

KOREA

TEXTBOOK

교과서 연구

2013. 6. 제 72호

RESEARCH

특.별.기.획.

교과서에 어떤 지식을 담을 것인가?

FOUNDATION

RESEARCH

TEXTBOOK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



TIOS란?

TIOS는 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의 줄임말로, 교과서 관련 민원 업무의 One-stop 처리가 가능한 교과서 관련 포털 사이트입니다.

- TIOS는 **통합**합니다!

그 동안 교과서 관련 민원의 분산처리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었고, 업무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확인되지 않은 다른 부서로 전화를 돌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교육 수요자의 각종 요구에 대한 민원처리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과서 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교과서 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TIOS 시스템이 구축 되었습니다.

- TIOS는 **소통**합니다!

TIOS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에 관한 정책을 소개하고, 교사·학생·연구자 등에게 교과서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의 증가, 급속한 사회 변화 등에 따른 제반 사항을 교과서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www.교과서114.com

www.textbook114.com

Tel : 1566-8572

[제10회 교과서 사랑 수필 공모]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는 교과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교과서 활용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공유하고자 다음과 같이 교과서를 소재로 한 수필을 공모합니다.

□ 공모 개요

- 주제 : '교과서와 학습'이라는 내용의 수필로서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경험을 진솔하게 담아낼 것
 - ※ 일반부는 본인의 학창 시절 경험 또는 자녀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
- 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초등학생은 4학년 이상, 일반인
- 원고작성방법
 - 초·중·고등학교부 :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초등학교부는 8매 내외), 자필 작성 원본 1부, 복사본 1부 제출
 - 일반부 : A4 용지 4매 내외로 한글이나 MS워드 작성, 머리말, 꼬리말 위, 아래, 좌우 각 20mm 글씨체(신명조), 제목 16포인트, 본문 12포인트, 줄 간격 160%
 - 공통사항 : 참가신청서 별도 작성 첨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작품 원고에는 제목 및 본문만 포함되어야 하고 인적사항 기재는 절대 불가함)
- 상격 및 부상(수상 인원 및 상격은 공모 결과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음)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특별상
초등학교부	1편(30)	1편(20)	1편(10)	2편(각 5)	지도교사 1명 (60)
중학교부	1편(40)	1편(30)	1편(20)	2편(각 5)	
고등학교부	1편(50)	1편(40)	1편(30)	2편(각 5)	
일반부	1편(60)	1편(50)	1편(40)	2편(각 5)	

- 금상 및 특별상 : 교육부장관상
- 은상, 동상, 장려상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상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3. 6. 17(월) ~ 7. 26(금) (우편접수 시 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 접수방법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우편접수 원본 1부, 복사본 1부 제출
 - 일반인 : 우편접수(2부 제출) 또는 e-메일(0121.12@textbook.ac) 접수
- 우편접수처 : (우) 137-80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47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수필 공모 담당자앞

□ 입상자 발표

- 2013년 9월 하순 개별 통보 및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www.textbook.ac) 게재

□ 시상식

- 2013년 10월 초순(자세한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홈페이지 게재)

□ 유의사항

- 응모작은 국내외 미발표 작품으로서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함
- 입상작이 타 기관에서 입상된 작품이거나 유사 작품 또는 표절로 판명될 경우 입상을 취소함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우리 재단에 귀속됨
- 입상작은 우리 재단이 발행하는 '교과서연구' 및 별도 작품집에 수록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필 공모 담당자(02-6206-6362)에게 문의하기 바람

□ 후 원

교육부, (사)한국검정교과서, (재)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주)교학사
(주)금성출판사, 두산동아(주), (주)미래엔 (주)지학사 (주)천재교육



교과서연구

계간지
2013년 여름
통권 제72호

목 차

권두언		
06	지구촌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과서	홍승용
특별기획 · 교과서에 어떤 지식을 담을 것인가?		
10	교과서 내용의 적정화를 위한 방향과 방안	홍후조
14	미래형 국어 교과서에 어떤 지식을 담을 것인가?	민병곤
20	초등 사회 교과서에 담아야 할 지식은 어떤 것인가?	홍미화
24	중등 사회과 교과서의 지식 유형과 구조화 방안	김정호
29	역사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실을 것인가?	강선주
33	영어 교과서에 어떤 지식을 담을 것인가?	박준언
현장교육 ·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과 교재의 재구성		
38	'배움' 이 즐거운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원	안영자
43	교육과정 재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이계자
48	수학: 공교육으로의 완성	이경희
53	학생들의 개인차를 극복하는 영어 교육과정 만들기	최한울
57	답입교사 행정업무 제로화를 통한 학생중심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경영 사례	김동래
논단		
62	중등 국어 교과서 내용의 적정화 방안	김주환
66	영국 학교 시민교육과 교재의 특징	김원태
연재		
73	스웨덴의 의무학교 교육과정 문서 체계	이 립
교과서 편집자의 변		
82	교과서 완주(完奏)하기	박혜원
연구논문		
86	교과서 본문·용지 품질 개선 및 유해성 검증에 관한 연구	김창근
명사 초대석		
92	나와 교과서	김정옥
연수후기		
96	교과서를 공부하는 선생님	권혜인
독자의 소리		
97	[교과서 연구] 열정을 담아 희망을 열자!	이정기
교과서 수필		
98	교과서 수필 공모 수상작 : 고등부 수상작	
104	교과서 개발 연수 안내	
105	교과서 개발 공모제 안내	
108	교과서 연구 후원제도 안내	
110	교과서 개발 구입 안내	
113	원고 모집	
114	교과서 정보관 이용 안내	



지구촌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과서



홍 승 용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바야흐로 지구촌시대요, 세계화시대다. 글로벌 지식정보화의 전개로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기회와 무대는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나 세계 주요국가 정부는 한결같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역량이란 외국어로 소통하는 능력, 다문화 이해하는 능력, 외국인을 편견없이 공정하게 배려하는 관용, 갈등을 줄이고 협력하는 자세 등이다. 자본주의 국가도 사회주의 국가도 국경 없는 경제 체제의 확산은 다른 나라와의 상호의존도를 높이면서 점차 사람, 정보, 상품, 서비스, 자금의 이동을 막는 장벽을 낮추고 있다.

교육에서도 조기유학, 교환학생, 언어연수, 인턴십 등으로 다른 나라의 사람과 문화를 접할 기회가 급증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김연아, 씨이 등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인물들도 늘어나고 있다.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도 외국유학생들과 외국어 원어강좌가 늘어나면서 여러 나라의 언어가 소통되고 있다.

아이들을 세계화된 세상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교육의 주요한 역할이다. 학교와 같은 공적 교육기관에서 교사와 학생이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교육 매체인 교과서는 글로벌 특성을 담을 필요가 있으며, 몇 가지 의견을 통해 지구촌 시대의 교과서에 대한 기대를 담아보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의 국가관·공동체관·가치관 형성에서 중요한 국사 교과서를 국제적 관점에서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6·25전쟁을 거치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지금은 우리 GDP경제규모가 세계 12위권으로 발전하면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끊임없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외침의 역사가 우리처럼 많은 나라도 없을 것이다. 20세기 후반 민주화와 산업화는 물론 지식정보화를 반세기 만에 성공한 것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다. 한 나라만의 역사 인식보다는 세계사와 연계된 역사인식이 중요하다고 보며,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국제적 시야를 가지고 만들면 어떨까 생각한다. 가령 임진왜란, 병자호란, 19세기말, 광복 전후, 역사의 고비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내외 인식과 타국의 세계정세를 상호 비교하여 보면 흥미로울 것이다. 절대적 역사관이 아닌 상

대적 역사관으로 역사적 사건을 객관화해 보자는 것이다. 요약하면, 국사교과서를 집필할 때 동아시아사, 세계사의 전문가들이 함께 집단지성에 의해서 역사교과서를 집필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자민족 우월주의, 자민족 중심주의나 색국적인 입장을 버리고 국제적 통용성이 높은 한국사 교육을 시켜서 더 넓고 높은 시야에서 우리 역사를 객관적·과학적으로 보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외국어 교과서를 마련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재가 빈약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함께 원어민 교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교과서가 독해와 문법 위주의 외국어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교과내용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서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매우 좋아졌다. 그러나 지나친 영어 일변도의 교육은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발전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려면 영어를 잘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는 물론 아세안 국가 언어, 중동국가 언어, 아프리카어도 잘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영어를 포함해 9개의 외국어만 학교의 공식 교육과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 언어는 심지어 활자조차 없어 책을 만들지도 못한다 한다. 교과서 출판사들은 외국어의 다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들에게는 그 부모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므로, 이런 언어들을 제 2 외국어화하고, 교과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9개의 외국어만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처럼 20~30개, 나아가 호주처럼 40~50개의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교과서가 마련되면 좋겠다.

셋째, 교과서에 외국어 단어를 병기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해당 교과목의 주요 용어를 세계어로서 영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어로 접할 수 있도록 작은 글씨로 단어를 병기하거나, 단원 말미의 주요 용어 란에 표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게간판이나 도로표지판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외국어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처럼, 일부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노출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스레 익힐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교과서에는 각종 인명, 지명, 원소명, 도구명 등이 한글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끼리 통용될지는 몰라도, 세계무대에 나가면 무슨 말인지 통하지 않을 때가 많다. 교육적인 효과 면에서 정부나 출판사들은 주요 용어를 병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자도 한자어 단어를 우리나라만이 번거로운 서체 글자인 번자체가 아니라, 간자체로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중국이나 일본은 간자체를 확대할 것이며, 우리나라만 번자체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애써 배우고도 통용성이 없다면 아이들에게 헛 가르치는 교육이 될 것이다. 학교의 기본 교과서에서 10여 년간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다면 일부러 단어를 외우지 않더라도,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나 여행에서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고교를 마칠 때까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기술, 예술, 체육 등의 교과서에서 주요 용어를 간자체 한자와 영어로 각각 100여개씩 주요 용어와 단어를 접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꾸며진다면 우리 국민의 문화수준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정보와 지식 생산이 범람하는 시대에는 엄선되고 정련된 좋은 교과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교과서 내용은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야 할 내용을 담아야 한다. 국가교육과정기준이나 교과서 정책이 자주 바뀌어서 집필자, 편집자, 출판계 인사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무쪼록 2세 교육을 위한 질 높은 교과서, 특히 세계화시대에 맞는 세계통용성이 높은 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하여, 우리 후손들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고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지식정보화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다양한 관점이 표출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교과서에 새로운 지식을 담고, 쓸데없는 지식, 낡은 지식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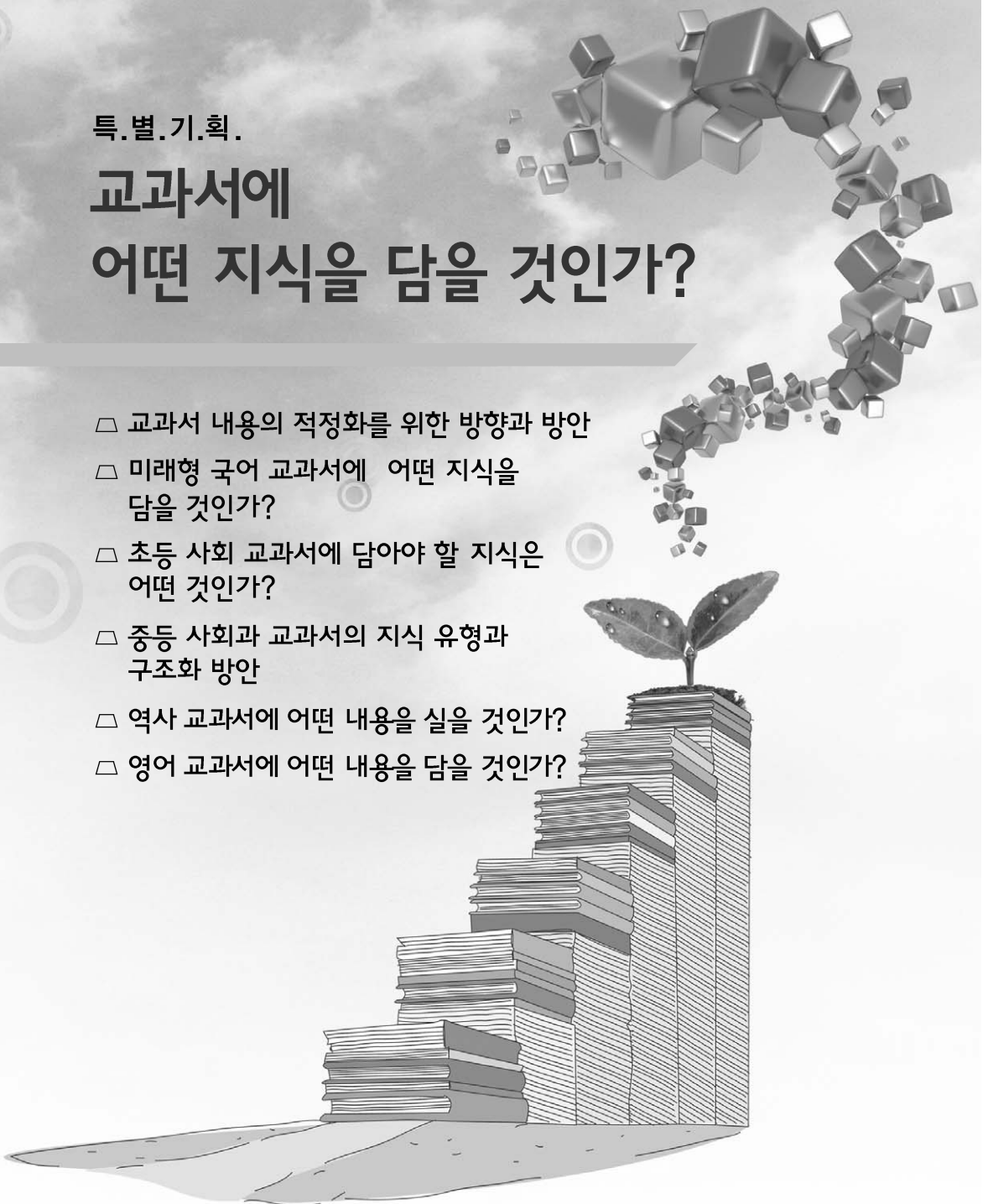
이런 관점에서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교육부, 2010. 1. 12)에서 국정·검정 도서를 대폭 줄여서 인정 도서로 전환하게 된 취지에 대해 "미래의 산 지식을 교과서에 적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본지에서는 몇몇 보통 교과를 중심으로 이 과제의 배경 혹은 철학, 해당 교과에서의 새로운 지식과 낡은 지식의 예, 이 제안을 실현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기로 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국어, 사회와 역사, 영어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 다음 호에서는 수학, 과학, 기술·가정을 다룰 예정이다. 

특.별.기.획.

교과서에 어떤 지식을 담을 것인가?

- △ 교과서 내용의 적정화를 위한 방향과 방안
- △ 미래형 국어 교과서에 어떤 지식을 담을 것인가?
- △ 초등 사회 교과서에 담아야 할 지식은 어떤 것인가?
- △ 중등 사회과 교과서의 지식 유형과 구조화 방안
- △ 역사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실을 것인가?
- △ 영어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교과서 내용의 적정화를 위한 방향과 방안



홍 후 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 교과서 내용 적정화의 필요성

‘교과서에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만 엄선해 두었으니 반드시 다 가르쳐야 한다.’ 이는 교과서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를 잘 반영한 문구이다. 학생에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 지식을 교과서에 담다 보니 그 내용은 많을 수밖에 없고 지도 방법도 암기주입식이 된다. 특히 7차 교육과정 이후로 교과서의 편집·디자인·색도·지질 등은 향상되었으나 내용은 별반 달라지지 못했다는 반성과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검인정 기준은 느슨해지고 책의 분량에 대해서도 허용적 이어서 책은 더 두꺼워지고 내용 분량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해설서식 교과서로 인해 배울 거리가 더 늘어나 진도를 다 맞추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하소연에 역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산업과 직업의 발달, 정보와 지식 생산의 폭주로 인해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교사와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를 정련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즉, 군더더기를 지우고 교육본질에 충실하게 각 교과목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정선된 내용을 가르치고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교실 수업의 주요 수단인 교과서에서 불필요한 지식, 불합리한 지식, 오래된 죽은 지식, 잡다한 주변 지식 등을 걸러내자는 취지에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제안한 것이다. 이를 흔히 ‘교과서 내용 적정화’라고 한다.

‘교과서 내용 적정화’란 궁극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알맞고 바르게 선정·조직하여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교육과정을 표현하는 교과서는 처음부터 무한한 문화내용 중에서 꼭 가르칠만한 것을 취사선택(取舍選擇)한 것이다. 가르치고 배울 가치가 있는 것은 포함(inclusion)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배제(exclusion)하게 된다. 사회·학문·직업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포함할 것도 있지만 그만큼 속아내야 한다. 옥석을 구분하지 않으면 교과서에서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것이다. 즉, 적정화된 교과서는 기존의 교과서에서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폐지·축소·악화하고 더 적합한 것은 확대·강화·추가·신설함으로써 낙차, 후퇴, 비약, 중복 등이 최소화된 더 나은 교과서를 의미한다.

2 교과서 내용 적정화를 기하는 방법

그렇다면 교과서 내용을 적정화하는 방법이나 그 기준은 무엇일까?

첫째, 교과서를 적정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모두에게 같게 가르칠 내용과 각 집단에게 다르게 가르칠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다. 각 교과과는 자기 교과가 중요하므로, 통합하지 않고 독립하여,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서, 내용 분량이나 시간 배분을 많이 하여 지도하고, 배운 것에 대해 꼭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곧잘 일부를 위한 내용을 전부를 위한 것인 양 과장하여 교육내용을 부풀리고 있다. 가령 전한 민주시민이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수학은 어느 수준인가에 대해 어느 정도 상식적인 최선답은 있다. 초등 6학년이거나 중학교 3학년 수준 정도다. 그 이상은 수학 전체 체계에서 이런 분야,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해당 분야의 사람들만 공부나 일을 위해 그 전공에서 배우면 된다. 우리의 생활에서 미적분보다 확률과 통계가 더 중요하게 많이 사용된다면 모든 사람을 위한 수학은 확률과 통계로 마무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반면, 체육활동 중 인간의 생사를 가르는 것은 수영과 인명구조훈련인데, 이런 것은 모두에게 가르칠만한 것이다. 모두를 위한 공통 교육내용과 각 집단을 위한 진로별 교육내용을 가려내는 것이 교과서 내용을 적정화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둘째, 사회의 요구에 따라 교과서를 정련하는 것이다. 정보화·세계화사회에서는 수렵채집, 농업,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축적된 지식을 모두 가르쳐서는 발전이 없다. 통용성이 높은 지식을 요구하는 세계화사회에서는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배려와 관용의 다문화교육도 필요하다. 가령 우리 역사를 국사로 쓰지 말고, 19세기 이전사는 동아시아 발전사 속에서, 19세기 이후사는 세계사의 발전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우여곡절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교과서를 쇄신

해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용어를 영어, 간편 한자 등으로 병기하는 것은 의사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정보사회로 인해 사실적·정보적 지식, 표준화·프로그램화될 수 있는 지식을 애써 암기할 필요는 줄어들었다. 정보사회에서는 수렵채집, 농업, 산업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육을 써서 일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필요성도 줄어들었다. 가령 초기 이메일에서는 상당수의 절차적 명령어를 알아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애플이 교과서를 만드는 프로그램과 앱을 제작할 수 있는 툴을 개발 공개한 것은, ICT로 모든 산업이 융합되는 시대에 미래세대는 SW생산자로서 기본소양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교과서는 전이가 높은 지혜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자의 발달단계, 수준과 능력,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교과서를 정비해야 한다. 초등 1학년 국어의 흉내 내는 말에는 경음, 격음 등이 많아 어린아동이 익히기 어렵다. 초등 수학교과서에서 곧잘 제시되는 사례로, $3+7=10$ 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의 경우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초등의 3할, 중학의 5할, 고교의 8할 학생들은 수학부진자로 수업시간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학은 교육과정을 학습가능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고치고 이에 따라 교과서나 시험문제도 달라져야 한다. 초등 2학년 마을지도 그리기, 안내도 그리기는 초등학교생의 발달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초등 사회과의 지역화 단원학습은 박물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온갖 지명, 인명, 역사, 지리, 산업이 망라되어 있다. 자세히 알 필요도, 가치도 없는 것을 사회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 또한, 타교과와의 연계를 고려하면 제시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도 있다. 가령 수학에서 함수, 유리식의 계산과 등식을 공부하기 전에 기술과 과학의 각종 법칙이나 계산식이 나온다. 한편, 평생학습의 기회가 많으므로 옷개는 법, 상 차리는 법과 같이 학교에서 애써 가르치

지 않아도 학생이 성장해가면서 가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은 제외해야 한다. 또, 학년 수준에 비해 내용이 너무 쉬운 것은 흥미를 유발하기 어려우므로 학습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과서의 내용이나 주제를 핵심적으로 달성할 성취기준에 따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의 내용 분량이나 난이도를 적절하게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한 이해(deep understanding)와 숙달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간 통합주제를 발굴해 내용을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교과내, 교과간 핵심주제와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내용이 정비되어야 교과서 내용의 전이가가 높아질 수 있다. 교과서가 점점 나아지려면 현재처럼

전면 개편보다 편수를 거듭하면서 바꾸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과교육과정 기준의 개선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려면 교육과정기준 개발에 현재처럼 교과인사만 참여해서 동시·일시·전면 개정하는 것을 금하고, 총론측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년군별로 연차적으로, 교과군별로 순차적으로 교과교육과정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교육과정기준 개발을 학문체계와 이를 교과의 지식체계를 구조화하는 능력이 탁월한 교수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학생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하고, 무엇을 흥미 있어 하며, 어떤 내용을 유익하다고 보고,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지를 잘 아는 편이라 할 수 있는 교사들의 참여를 대폭 늘려

〈 교과서 내용 적정화를 위해 필요한 질문들 〉

1.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교까지 각 교과 교육내용 중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진로별로 특정 집단만 알아도 되는 지식이나 할 줄 알아도 되는 기술은 무엇입니까?
2. 건전한 모든 시민들이 학교 교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할 줄 알아야 할 기술 중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역으로 불필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3. 교과의 계열성, 학습자의 발달 정도로 볼 때 내용 수준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비약, 낙차/후퇴, 중복 등)은 무엇입니까? 특히 유치원과 초등 1학년, 초등 6학년과 중학 1학년, 중학 3학년과 고교 1학년, 고교 3학년과 대학 1학년의 연계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1) 전자가 후자보다 어려운 경우, 내용이 너무 어려워 다음 학기나 학년에서 가르쳐야 더 적절한 내용
 - 2) 후자가 전자보다 쉬운 경우, 내용이 너무 쉬워 이전 학기나 학년에서 가르쳐도 되는 내용
4. 학년별 교육 내용을 재배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1) 다른 교과에서 관련된 내용을 배우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 2) 서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지만 가까이 붙여놓거나 결합하면 더 좋은 경우
 - 3) 어떤 단원의 내용과 다른 단원의 내용의 계열성을 볼 때, 순서를 바꾸면(도치하면) 좋은 내용
 - 4) 어떤 단원의 내용과 그 다음 단원의 내용의 계열로 볼 때 격차가 커서 비약이 심한 내용
5. 각 교과가 달성할 교육목표에 비추거나 교과간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삭제해도 되는 것이나 분량과 비중을 줄여도 되는 것, 즉, 삭제·폐지하거나 축소·약화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 1) 인접한 다른 교과와 겹치는 내용, 혹은 다른 교과에서 지도하면 더 적절한 내용
 - 2) 해당 교과 내에서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있는 내용
 - 3) 내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학습량이 많은 내용
6. 학습자와 사회(정보화, 세계화)의 요구를 고려할 때 추가·신설하거나 확대·강화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7.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 사례, 소재, 예시로 들고 있는 것 중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야 할 것이다.

다섯째, 더 근원적으로 교과목을 정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과목이 너무 잡다하게 분열되어 있는 편이다. 교과에 대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다과목 분산 피상학습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교정하고자 소교과 집중 심층학습을 위한 집중이수를 기획하였으나, 아쉽게도 방임적 자율화로 인해 체계적인 접근이 되지 못하였다. 본래 교과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된 것이다. 교과는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교육과정 내에서 그 비중이 결정된다.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하려고 과목을 자주 만들어 가면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너무 커진다. 교과는 학생의 능력을 증진하는 교육목표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다. 모국어로 의사소통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국어과,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외국어과, 사회의 합의를 높이는 사회과, 수와 양의 관계에 관한 수학과, 자연과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과학과, 의식주를 조달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과, 정서적 안녕과 창의적 표현의 예술과, 건강을 도모하는 체육과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는 모두 교과 아래 과목 정도로 배치하면 적절하다. 교과별, 교과간에 중복, 낙차, 비약, 후퇴 등을 개선할 과제가 산적하다. 아래는 위의 논의를 교과서 내용 적정화와 연계하여 질문으로 종합해 본 것이다.

3. 나가며

지식정보사회, 첨단기술사회, 세계화사회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교과서 내용이 많아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사회를 비롯한 그 이전 사회에서 개발된 지식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내용의 추가·신설에 맞게 오래된 내용의 삭제·폐지를 부지런히 하여 교과서에 죽은, 비활성, 쓸모없는 지식(obsolete)이 남아있지 않도록 부

지런히 쇄신할 필요가 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과 기술의 엄선 작업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해졌다. 전이가 낮은 파편화되고 잡다한 교육내용으로 학생들의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앗아가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유기적으로 통합된 산 지식, 전이가 높은 효과적 지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으로 구성된 교과서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도록 해보자. 

참고 문헌

- 김재춘(2004) “교육 내용의 적정화 : 전제와 쟁점”. 교육 내용의 적정화 방안 탐색을 위한 세미나, 19-36. 6월 4일 교육과정 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4-7.
- 이돈희(2004) “교육내용 적정화 : 왜, 무엇을, 어떻게?”. 교육 내용의 적정화 방안 탐색을 위한 세미나, 11-18. 6월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4-7.
- 이승미·홍후조·민부자(2011). 교과 교육과정의 적정화 지침 개발 연구, 교육학연구, 49(2), 1-22.
- 이양락(2004) 교과별 교육내용 적정화 연구 - 제7차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교육내용 적정성 분석 및 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4-1-1.
- 정영근·박순경(2007).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 적정화 담론 고찰, 교육사상연구, 19, 1-25.
- 황규호(2004) 교육내용의 적정화 기준 탐색. 교육과정연구, 23(3), 1-25.
- 홍후조·강익수·백경선·성열관(2008). 교육과정 적정화 및 필수 교과 조정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년 교육과정 선진화 위탁과제 답신 보고.

필자 소개

국가교육과정기준 개발, 사회협동성 창의성 진로와 같은 주제와 특정 대상 집단을 위한 교육과정기준 개발, 교과서제도 연구, 교육 현실에 기초한 교육이론 개발, 교육정책 개발에 관심이 많다.

미래형 국어 교과서에 어떤 지식을 담을 것인가?



민 병 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0년 1월 발표한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은 창의적인 '산 지식'의 제공과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¹⁾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길러 주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았다. 교과서의 선진화를 위하여 담아야 할 내용은 창의적인 '산 지식'이고, 그 요체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것을 구체화하고자했다는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비판이 적지 않은데 이는 국어 교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없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방안이 미래형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관련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국어 교과에서 다루는 지식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러한 지식을 교과서에 표상하는 데 따르는 제약이 무엇인지, 그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함으로서 미래형 국어 교과서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어 교과 지식의 성격¹⁾

국어 교과에서 다루는 지식의 성격을 살피기 위해서는 국어 교과가 '국어'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과 교육적으로 도구적 성격을 띠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어 교과의 내용이 국어라는 것은 국어 교과 지식이 언어와 관련되며 언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교과의 내용 즉 지식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국어 교과가 도구적이라는 것은 국어 교과에서 다루는 지식이 일종의 메타 지식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국어 교과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지식을 다루는 방법을 교과 내용으로 삼음으로써 교육적으로 도구적 기여를 하는 교과라는 것이다.

1) 이 글에서는 교과에서 다루는 지식을 교과의 내용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교과의 내용을 보통 식으로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의 교육 목표 분류화에 따르면 행동 중심의 통합적 분류도 가능하겠고, 행동을 절차적 지식이나 조건적 지식으로 개념적 지식과 함께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어 교과에서 다루는 지식이 언어 또는 언어 현상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언어에 접근할 때 국어 교과에서 다루는 지식은 문장 단위에 한정된 규칙의 체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어를 후기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에는 언어 단위가 문장을 넘어서 텍스트로 확대되며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과정 그리고 그 맥락까지 포함하게 된다. 미래형 교과서에 답아야 할 지식이 '산 지식'이어야 한다면 이는 언어 사용의 결과만이 아니라, 일정한 상황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담화 및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그 자체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어 교육의 목표가 실제로 생산 및 수용해야 하는 다양한 담화 및 텍스트를 다루는 데 있다면 국어 교육의 주요 내용은 그러한 언어 자료를 구성하는 내적 원리를 학습하고 이를 통하여 실제 의사소통적 사건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하는 다양한 담화 및 텍스트를 직접 경험해 보고 그러한 담화 및 텍스트의 원리를 규명하여 내용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상에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고, 존재할 모든 텍스트를 표상하는 전형을 가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학습자가 모든 담화와 텍스트를 경험할 수 없다면 어떤 수준에서든 내용이나 형식 측면에서 좀 더 전형적이고 확장성 높은 자료들을 선별해서 다루는 것이 불가피하다.

여기에서 어떤 자료가 전형성이 높아서 교육적으로 더 의미 있는 것이냐가 문제다.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발달 과정에 있는 학습자가 살아가는 어린이·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언어생활뿐만 아니라 청년기와 그 이후의 사회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까지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언어적 삶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직면하는 과제에

대하여 현재적 대응과 미래적 대응을 모두 고려한 교육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응은 단순히 학습자의 성장과 적응이라는 시간 축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라고 하는 매체 그 자체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도 문제가 된다. 음성과 문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의사소통의 양식이 복합 양식화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그것도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국어 교과 지식의 교과서 표상에 따르는 제약

미래형 국어 교과서에서 '미래형'이라는 말의 의미는 국어 교과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국어 교과 내용으로서 언어가 음성이나 문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복합 양식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면 이를 서책형 교과서로 구현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를 국어 교과 전반에 해당하는 것과 내용 영역에 따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1) 국어 교과 전반적 제약

국어 교과서에 답아야 할 주요 내용은 크게 세 부분, 즉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 실제에 해당하는 부분, 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글의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원이라면, 설명하는 글에서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원리, 여러 가지 유형의 설명하는 글, 그리고 이러한 원리와 실제의 교수·학습을 위한 활동이 주요 구성 요소이다. 이 외에도 단원의 도입과 마무리, 참고 자료 등도 있어야 하지만 이는 주요 구성 요소를 교수·학습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요소를 교과서에 담는 데 따르는 주요한 문제는 먼저 교수·학습 목표와 관련한 내용 지식을 어느 정도 자세하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이다. 대개 단원별로 ‘원리’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지는 이 부분은 교수·학습 상황을 전제로 하면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면서 동시에 학습자가 배워야 할 지식의 성격을 띤다. 어떤 원리를 얼마나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어 교육학, 교과서 검정 제도, 교과서 채택 방법, 교수자 및 학습자 측면 등에서 제약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쓰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단원을 구성한다고 할 때, 설명하는 글쓰기와 관련한 내용을 목적, 독자의 요구, 학습자의 수준 등에 따라서 어떻게 체계화하여 배열하고 반복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 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과서에서 내용으로 다루는 ‘실제’ 부분의 경우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교과서 편찬자가 고민하는 문제로는 어떤 제재를 실을 것인가, 얼마나 많이 실을 것인가, 어떤 형태로 실을 것인가 등이 있다. 어떤 제재를 실을 것인가는 주로 교육과정이나 편찬상의 유의점, 제재 선정의 기준 등에 영향을 받는데, 학년에 따라 가르쳐야 할 제재 특히 문학 작품의 목록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학습자가 배워야 할 제재의 목록을 학년별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학습자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하여 학교급, 학년군, 학년에 적합한 제재의 목록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 이러한 목록은 일정한 주기로 갱신하여 교과서 편찬이나 교수·학습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제재를 실을 것인가, 어떤 형태로 실을 것인가는 서로 관련성이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장편 소설의 학습을 위해서 어떤 성격의 작품을 실을지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몇 편 정도를 학습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게재할 것인가 등이 문제가 된

다. 그것은 교과 전문가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수의 작품 전체를 읽히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다수의 작품을 부분적으로 접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교육적 판단에 입시나 평가의 문제가 관여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교과서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인터넷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수업 상황에서 어떤 작품이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의 게재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여전히 수업에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에 제시되는 활동 부분은 수업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선택 폭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다. 교과서에 제시되는 활동의 목록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교사나 학습자가 채워야 하고 채울 수 있는 행간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의 제약은 활동의 선택이나 상세화의 문제보다는 다루는 내용에 따라서 매체나 상황적인 제약이 강하게 작동한다. 예를 들어, 영화나 연극의 학습을 위한 활동은 당연히 영화나 연극을 직접 관람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보기를 하면서 분석하고 평가하거나 직접 만들어 보고 실연해 보는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매체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내용 영역별 제약

국어 교과서의 내용 영역에 따라서도 제약은 다르게 나타난다. 듣기·말하기 영역의 경우 바람직한 말 문화와 내용을 규명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일이 쉽지 않거니와 구어 자료를 서책형 교과서로 제시할 경우 매체적 제약도 따른다. 입시에서 구어 사용을 표준화된 형태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충실히 교육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교사들이 구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교육의 효과에도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듣기·말하기 교육의 실천과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듣기·말하기 영역에서 교육 내용을 어느 수준에서 상세화하고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읽기와 문학 영역에서는 주로 제재의 선정과 제시가 문제가 된다. 글이나 작품의 선정과 관련된 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념의 대립과 계층 갈등의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교육적 견지에서 헌법 정신에 토대를 둔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사회적 갈등을 교육 현장에서 재현하게 될 우려 때문에 정치적 이념이 표방된 글이나 작품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다면 미래형 국어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좀 더 개방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미래 사회에는 더 다양한 사회적 가치관이 대립·충돌할 것이고 그러한 사회에서 필요한 언어 능력이란 다양한 사회적 이념과 가치를 존중하고 평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쓰기 영역은 글의 내용 측면에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이냐 그리고 글의 형식 측면에서 어떤 장르를, 어떤 매체로, 어느 정도의 분량만큼, 얼마나 자주 쓰게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근래의 작문 교육에서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따라 쓰기의 결과보다는 쓰기의 과정과 맥락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글쓰기의 과정은 내용 생성, 조직, 표현, 퇴고, 출판의 전 단계에서 문제 해결적 접근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러한 글쓰기의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예상하여 교과서에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다. 글쓰기를 과정 중심으로 접근하겠다는 기본 취지는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뜻인데, 그것을 표준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교과서의 형태를 디지털화하고 작문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문법은 국어 교과서의 가장 전통적인 내용 영역이다. 문법 영역은 다른 영역과 달리 명확한 내용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과서에 담는 것 자체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어떤 문법을 국어 교과서의 내용 지식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과 국어 교과에서 문법 영역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다. 이 문제에 따라 교과서에 실어야 할 내용과 싣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문법 교육 내용은 ‘학교 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 근간은 국어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구조주의 문법이다. 언어를 그 자체로 기술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구조주의 문법은 하나의 완결된 체계로 언어의 체계와 구조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 용어나 문법 범주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학교 문법이라는 규범화된 체계로 기술하는 데는 교육적 판단에 다른 학계의 합의만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구조주의 문법이 비록 완결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언어의 실체이거나 언어 활동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체계가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국어 교과서 단원을 구성할 때 문법 영역의 내용을 타 영역과 관련지어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다. 능동이나 피동 표현을 사용할 때 거기에 반영된 표현자의 의도와 같은 의미의 문제를 점검할 수 있고, 접속어나 지시어가 담화나 글을 결속해 주는 기능이 있음을 확인하는 정도이다. 말하자면 형식적 문법 기술이 실제 언어 활동과

연관되는 지점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문법이 표현의 정확성과 적절성의 문제를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지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 내용을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3. 디지털 국어 교과서의 가능성과 과제

‘미래형 국어 교과서’라는 개념은 미래에 사용할 국어 교과서라는 지향성도 있지만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국어 교과서라는 당위성도 함의하고 있다. 교과서의 형태를 서책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의 국어 교과서로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것은 태블릿 PC 형태의 소위 전자 교과서나 디지털 교과서일 것이다. 이를 무선 인터넷 기반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국어 교과서 편찬과 관련한 분량 제한이나 작품 선정과 관련한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교과서가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교과서 바깥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의 분량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자료나 작품이 우월적이거나 대표적인 지위에 있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체적 제약과 관련되는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다양한 구어 담화를 동영상으로 접하고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일이 매체를 통하여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수·학습 운영 측면에서도 학급 전체, 소집단, 개인의 자유롭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교과서는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풍부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교과와 경계를 넘어 지식의 적용을 가능하게 해 주고, 국어 교과와 경우 언어 활동의 실제성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제고할 수

도 있고, 학습의 주도성을 신장시키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나 우려도 없지 않고 무엇보다도 양질의 콘텐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증대는 결국 정보에 대한 판단과 평가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로 회귀하는데 이는 결국 국어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지식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어서, 서책형 교과서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디지털 국어 교과서도 결국 자료의 범위를 확대한 것일 뿐 국어 교과의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국어 교과서를 서책형과 디지털형의 두 측면으로 접근해 가면서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미래형 국어 교과서의 성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국어 및 국어 교육 현상에 대한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의 필요성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어 교과서에 담아야 할 내용은 곧 국어 교육의 내용을 의미한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교과서에 담아야 할지에 대한 연구 성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가르쳐야 할 내용을 확보한 후에 이를 서책형이든 디지털형이든 교과서에 담아 교수·학습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국어 교과서의 기획 및 설계, 집필, 편집의 전문가 집단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과서 연구와 편찬을 전담하는 연구 기관이나 관련 출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이는 교과서 제도를 국정과 검정 체제에서 인정제와 자유발행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과서 편찬은 상시성이 없기 때문에 관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셋째, 국어 교사의 교수·학습 전문성 특히, 교수·학습의 설계 및 실행자로서 교수·학습 자료를

평가, 선정, 제작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제도를 자유발행제로 전환해 나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교사의 전문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이다. 교과서 의존적 수업에 대한 오랜 인습과 입시 제도로 인한 부정적 영향, 그리고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등의 문제는 교사의 교수·학습 전문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넷째,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권력의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편을 지양해야 한다. 학문적 탐구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요구와 학습자 요구를 체계적·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교과서 편찬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교과서를 편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어떤 지식과 내용을 교과서에 담을 것이냐의 문제도 사회적 합의의 대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현재의 교과를 제도가 당분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면, 국어 교과서 검토에서는 교과 공통 기준만 최소 기준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검토 기준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서의 질에 대한 평가는 시장과 교육 현장에 위임하고 정부의 역할은 헌법 정신에 기초한 교육의 정신을 준수하는지 여부만 점검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교과서 채택 및 공급과 관련한 비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어 교과서에 담을 지식의 문제는 결국 국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살아 있는 지식으로서 국어의 실재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국어 교과서의 내용 영역에서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매체적, 제도적, 현실적 제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미래형 국어 교과서의 문제는 미래에 쓸 교과서가 아니라 현재와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를 살아갈 학습자들이 언젠가는 현재가 될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국어 능력 즉 메타 지식으로의 국어 능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과학·기술의 변화는 지식 정보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그에 따른 철학적, 사회적 문제를 교육에 제기한다. 국어 교과서는 미래 사회에서 지식 정보가 언어와 복합 양식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구성되고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삶에 끼치는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의 문제를 핵심에 놓고 그 정체성을 끊임없이 탐색해야 할 것이고, 국어 교과서는 그러한 변화에 따른 국어 교육의 대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매체 또는 자료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필자소개

논증이론에 기반을 둔 표현교육을 연구해 왔으며, 소통과 성장, 삶과 배움을 지향하는 화법교육론의 정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초등 사회 교과서에 담아야 할 지식은 어떤 것인가?



홍 미 화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1. 들어가기

초등 사회과교육은 학생들이 주변의 사회적 현상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획득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돕는 교과이다. 부연하자면 사회과교육의 중요성은 사회에 널리 퍼진 지식이나 정보의 획득에 있다기보다, 현재 개인이나 집단이 부딪힌 개인적 혹은 전 지구적 문제를 인지하고 그에 적합한 지식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시민을 길러내는 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방대한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모하였으며, 이와 함께 새로운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다. 매일매일 탄생하는 엄청난 지식과 정보는 기존 지식에 대한 가치를 되묻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도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지식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물음은 개인과 사회, 혹은 국가의 요구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나 사회는 그 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적합한 지식을 선정하고 교육해야 함을 포기할 수 없다. 특히 사회과교육은 그 성격상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좋은 삶을 위하여 어떠한 지식을 획득하고 생성하도록 도울 것인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이제 사회과교육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류의 삶에 보다 가치 있는 지식과 사고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합의하여 교과에 본질에 적합한 공적 지식을 체계화할 의무가 있다.

2 초등 사회과 교육에서의 내용 선정의 문제

복잡한 사회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다루는 사회과교육에 있어서, 적합한 지식을 선정하고 합의하는 문제는 어렵고 험난한 길이다. 교과교육자들의 관점은 차치하고, 다양한 사회과학적 논리들이 제각각 사회과교육의 내용지식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는 사회과학은 물론 인문학과 철학, 심리학 등의 학문적 논리

를 포섭하여 형성된 교과이다. 이러한 통합의 원리는 교육의 목적과 부합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심리적 요구와 삶의 일상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 사회과교육은 타당한 내용 선정의 준거로서 사회과학적 지식, 혹은 지식의 구조에 유독 의존해왔다. 2007 개정 초등 사회과교육과정의 4, 5, 6학년 내용 구성 체계표는 지리 영역과 역사 영역, 일반 사회 영역이라는 3분과적 내용 기준에 따라 학년별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회과교육이 통합교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였음을 의미 한다.

사회 교과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토대로 내용이 구성되었다. 사회과 교육내용의 근본적인 역할, 즉 어떠한 지식이 지금의 사회현상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지식인가라는 관점보다는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에 해당하는 지식 중에서 '무엇을 초등학교의 내용으로 선정할 것인가'라는 관점이 우세한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세 가지 영역에 한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현상을 인식하는 기본 지식은 역사와 지리를 비롯한 사회과학적 내용과 동일하고, 그러한 지식을 배우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고급 사고력이 길러진다고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교실 속 교과서의 성전적인 위치를 인식할 때 분명 불가능하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인류는 지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수용하는 데 동의하였다. 객관적 사실과 이론만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였던 기존의 지식관으로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지리학과 역사학, 그리고 각종 사회과학적 지식만을 사회과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각 학문영역에 해당되는 개념과 사실을 열거한 현행 사회 교과서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사회 교과서는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지식에 대한 비판적 선택 또한 소홀히 한다. 이러한 사회 교과서로는 현재 사태에 대한 이해는 물론 미래 지구 환경에 대한 안목과 문제해결력 및 참여능력 또한 기르기

어렵다.

사회과교육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새로운 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시민성교육을 자처하는 사회과교육이 사회과학적 사회과의 내용에 몰두하여 본래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학교현장은 지금보다 더 많은 범교과적 주제와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교육 내용으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3. 현행 초등 사회 교과서 내용의 문제

현행 사회 교과서는 객관적 지식의 전달에 치중한 나머지 학생들 스스로가 지식을 생성하는 주체임을 배제시킨다. 교사는 학생들의 삶과 동떨어진 지식, 일회성 지식을 강제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이 같은 교과서의 문제를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본다.

가. 초등 사회 교과서 지리영역 내용의 문제

초등 사회과교육에서 지리 영역의 내용은 인간과 장소,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으로 구성함이 원칙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소의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은 지역과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 교과서는 지역이나 고장, 혹은 국토와 세계 등 지역의 범위만을 고려할 뿐 동일 개념을 중심으로 각각의 특성을 열거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예를 들어 3학년은 고장의 자연환경(우리 고장의 기후와 지형 중심의 사실 나열), 4학년은 지역의 자연환경(우리 지역의 기후와 지형 중심의 사실 나열과 특징 설명), 6학년은 국토의 자연환경(우리나라의 기후와 지형 중심의 사실 나열과 특징 설명)으로 구성된다.

환경확대법을 적용하여 지역의 특징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이 공간의 다양성과 지리적 내용을 상기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탄력적 환경확대법을 적용한 현행 교과서의 내용은 모든 학년이 세계라는 공간을 넘나든다. 결국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자연환경, 지형, 기후와 같은 개념이며, 소재의 중복(음식, 축제, 가족 중심의 소재)으로 인하여 학습이 지루할 수 있다. 학생들은 위치에 따른 각 지역의 자연환경, 지형, 기후의 특성을 무의미하게 기억할 뿐,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학생들이 지리적 정보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도해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또한 교과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 외 세계 여러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대륙별로 기술한 6학년 교과서의 경우, 바람직한 인간의 삶과 관계된 세계에 대한 애착과 안목, 문화 편견성에 대한 극복, 지구촌의 미래와 협력적 상호관계와 같은 내용 또한 매우 부족하다. 현행 교과서는 인간의 삶터로서의 장소와 지역, 그곳에 있는 개인과 사회의 특별한 문화,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의 애착을 다루기에 미흡하다.

나. 초등 사회교과서 일반사회영역 내용의 문제

일반사회영역은 사회학과 경제학, 정치학, 문화인류학 등 근대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해왔다. 지리·역사 영역과 달리 일반사회 영역의 내용은 학생 주변의 삶과 직결된 현상, 현대사회의 변화와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투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 사회교과서는 학문적 개념과 그 개념을 떠받치는 대표적 사례에 대한 설명에 치중한다. 때로는 지면 부족 등을 이유로 학생의 선지식을 감안하지 못하고 많은 개념을 한 지면에 담거나 혹은 생략해 버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에 기술된 경제영역의 내용을 살펴보자. 4학년의 가정 경제 단원은 생산과 소비에 치중되어 실제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축, 시장의 형태, 가격의 결정과 변동, 유통 단

계, 화폐의 필요성, 은행의 역할, 가정과 기업의 관계 등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있어서 가정 경제의 실제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6학년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관계를 한정된 자원의 교류라는 소극적 무역 개념을 강조하고 다양한 무역 발생의 조건을 경시함으로써 실물경제를 이해시키지 못한다. 자유와 경쟁이나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 IMF위기를 잘 극복한 한국인, 한국의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 또한 내용 설명에 급급하여 한국 경제를 이해할 기회를 제한한다.

4. 초등 사회 교과서에 담아야 할 지식의 방향

사회 교과서에는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그 지식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함께 담아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초등 사회 교과서에 적합한 지식의 기본 방향을 간략히 제시하기로 한다.

가. 인간 중심의 삶에 기여하는 사회적 지식

지식기반사회의 특징은 인간이 자신의 판단과 가치에 의하여 지식을 생성하고 변화·발전시킨다는 점이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은 근대의 합리적 이성을 갖춘 인간상에서 합리적인 이성은 물론 일상의 삶에서 따뜻한 감성과 배려를 소유한 조화로운 인간상으로 변화되었다. 인류의 좋은 삶을 지향하는 사회과교육은 지식이 인간의 일상적 삶 속에서 탄생한 것임을 인식하고 개인의 삶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인간 삶의 태도와 참여 방식, 그리고 일상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나. 미래 사회에 유용한 새로운 지식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사회과와 기본적인 책무이다. 미래 사회에 대처하는 지식이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만한 문제를 예


측하고 해결하는 방법과 다르다. 미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예측은 그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을 생성한다. 미래 사회는 기존 환경과 자원의 고갈은 물론, 인간 수명의 연장과 국제정세의 변화, 생태주의적 삶의 확산, 가상공간의 활성화, 가족 해체와 새로운 가족의 구성, 우주개발 도전, 대체 에너지의 무한 가능성, 신종 질병 확산과 같은 현상이 예측된다. 사회 교과서는 기존지식을 분석하여 미래에 요구되는 지식을 예측하고, 그러한 현상과 문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지식을 선택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다. 사회적 통찰과 안목을 길러주는 감각적 지식

지식을 획득하는 목적은 삶에 대한 안목과 사물과의 관련성에 대한 통찰을 심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회 교과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단편적·인지적 지식을 축소하고 사회를 보는 직관과 상상, 공간에 대한 예술적·자연친화적 감각, 인간과 환경에 대한 배려와 애착심을 함께 담아 낼 필요가 있다. 이 감각은 교과서 속의 죽은 지식에 불과했던 인권, 평화, 민주주의, 환경 등의 내용을 살아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참여적 지식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는 사회과교육은 제도나 정책, 현상과 사건을 기억시키는 대신 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에 주목하여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사회영역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을 분리하여 많은 내용을 제각각 선정하기보다는 ‘관계’ 중심의 주제를 만들어 내용을 축소·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 정체성, 삶과 죽음, 사회 발전과 해체, 정보화, 인간소외, 경쟁, 자살, 폭력, 인권 등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선정할 경우, 학생들은 개인으로서의 삶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삶을 동시에 관계 지을 수 있다.

정보화시대의 사회 교과서는 사회과 본래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내용을 선택하여 담아야 한다.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최적의 내용이란 국가와 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상통하는 내용이며, 학생들이 사회현상을 이해하여 그들이 발견한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말한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초등학교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2007). 사회과 교육과정(별책7),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만곤(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및 검정의 주요 내용과 과제. 한국교과서연구학회지, 1(1), 81-93.
- 박영숙 외 3인(2012). 유엔미래보고서2030, 교보문고.
- 우석훈(2011). 나와 너의 사회과학, 김영사.
- 홍미화(2011). 2007개정 사회교과서 적용에 따른 초등교사의 사회수업변화, 사회과교육연구, 18(2), 125-142.
- Brunswic, E. et al(1990). "The Development of School Textbooks and Teaching Materials". Report of an IEP Seminar (Paris, France, November), 27-30.
- Martorella, P. H. (1991). Knowledge and Concept Development in Social Studies. Handbook of Research on Social Studies Teaching and Learning. Shaver, J. P.(ed), Macmillan Publishing Co, 370-384.

필자소개

저서로는 “초등생활경제이야기”, “사회과교육의 논리”, “세계를 배우는 어린이 지도” 등이 있고 교과서와 사회 수업 관련 다수의 논문이 있다. 제6차 교육과정기부터 현재까지 초등 사회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를 연구 집필하고 있으며, 연구 관심 분야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 교육과정과 사회수업, 내러티브적 사회교재 개발 등이다.

중등 사회과 교과서의 지식 유형과 구조화 방안



김 정 호
미래문화연구소 소장

1. 교과서도 문제인가?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데 학교는 겨우 10마일에서도 허덕인다’고 한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한국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미래에 필요치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진단도 하였다고 한다. 독일의 저명한 미래학자 마티아스 호르크스(Matthias Horx)는 “현재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사무실과 공장에서 경쟁적으로 일을 하던 산업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그는 지금의 한국 교육으로는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주입식 위주 교육이야말로 자본주의 3.0시대 교육의 ‘우울한 단면’이라고 비판하면서 “문제풀이에 매몰돼 있는 교육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¹⁾

그는 “객관적 사실과 공식은 인터넷에 널려 있고 이런 정보를 얻는 것은 앞으로 더 쉬워진다”면서 “학생들을 그런 단편적 지식을 묻는 것으로 평가한다면 미래사회의 변화추세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구태의연한 정답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질문을 던져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 학교는 축적된 수많은 정보나 지식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주는 단순한 우편배달부 역할만 할 수는 없다.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 온 교육의 과정은 ‘教授 Teaching → 學習 Learning → 思考 Thinking → 創意 Creativity → 革新 Innovation’으로 계속 진화해 왔다. 학생은 과거의 지식을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평가·검증하여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학습을 해 나가야 한다. 인생과 사회의 실상은 O X나 5지 선다형 문항의 정답 찾기가 아니라, 수많은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정글 탐험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 교실 생태계는 교과서 중심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학교를 기존 학문 영역의 교수와 현직 교사의 명예와 신분 보장을 위한 공급

1) 조선일보 2011. 12. 7. [자본주의 4.0 - 제3부 교육에 답이 있다] “지금 한국 교육은 자본주의 위기 넘을 힘 못만들 것”

자 중심의 도구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세계를 스스로 찾아나가는 과정을 지원하고 안내해 주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공공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와 정부 당국이 볼 때는 그 주장이 가당치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교과서에 있는 무용지식을 학생들에게 대량 전달하고, 그것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평가하는 일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학교 교육 문제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일도 아니고, 정부가 행정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교과서와 직결시키는 것은 분명 억설(臆說)이지만, 그렇다고 관계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 정부는 교육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교육부는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2013. 3. 28)²⁾를 통해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지향하는 인간상을 ‘창의·융합형 인재, 배움을 즐기는 인재, 상상력을 발휘하는 인재’라고 상정하였다. 이를 위한 실천계획을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이라 하였는데,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중에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들어 있다. 교육부는 이것을 자유학기제, 인성교육 중심 수업,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이라 풀이하였다.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는 참고서가 필요 없는 친절한 교과서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서책형과 디지털 교과서를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중심 학습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핵심역량 중심의 교과서 모형 개발’(13.4-14.2)과 중학 사회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추진한다는 교육부 정책 사안에 큰 관심을 갖게 된

다. 교과서 내용 구성의 준거체제와 교과서 존재 양식을 나타내는 이 두 가지 정책이 실현된다면, 지금까지 내려 온 교과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그 이유와 방법을 중등 사회와 교과서에 실을 지식의 유형과 구조화 방안 중심으로 보기로 하자. 물론 교과서 내용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는 그 법적 고리가 없다고 가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사회과 교과서 내용, 어디에서 가져 올까?

중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본 학생들은 어떤 평가를 할까? 교과서에 있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니 어려울 수 밖에 없고, 추상적 이론을 설명하니 재미가 없으며, 나의 삶과 연관성이 약하니 쓸모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그 사례로 ‘경제’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말 정부는 학교 경제교육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하며 많은 예산을 들여 교과서를 전면 개편하였다. 그 당시 교과서를 분석하여 찾은 문제점이 바로 ‘내용이 어렵고, 재미없고, 쓸모없다’는 것이었다. 그럼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경제 교과서의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되었을까? 그 사이 교과서 외형 체제와 전개 방식은 많이 바뀌었다. 충전연쇄 화보를 다양한 현실 사례와 같이 제시하여 학생들의 마음을 끌기도 하고, 책을 두껍게 만들어 설명을 자세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경제가 어렵다고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남아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교과서 분량을 대폭 늘려서 어려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참고서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친절한 교과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럴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회과 지식 내용이고,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한다는 시험 문제가 더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교과서

2) 교육부/정보마당/정보자료실/ 기획조정실 (<http://www.moe.go.kr/web/t104/ko/board/view.do?bbid=146&boardSeq=43183&mode=view>)

의 체제 모형이 아니라, 내용 구성의 준거 체제이기 때문이다.

대안은 교과서 외형 체제가 아니라, 내용 구성의 준거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과교육을 지배해 온 이른 바 '학문중심 사회과'를 '역할중심 사회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학습량도 적절하게 조절하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교육부가 핵심역량 중심 교과서의 모형을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그 역량도 실제 역할을 전제로 해야 생생한 가치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 즉 핵심역량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므로, 역할을 전제로 하여 관련되는 역량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중등학교 경제 내용 중 시장경제의 원리 이해를 교과서에 실을 때, 보통 수요공급 법칙과 가격기구의 기능 및 시장의 종류 등을 경제원론 체제로 제시한다. 분명 우리 주변의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법칙을 개념과 이론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지만, 학생들은 어렵다고 한다. 만약 이것을 어떤 포괄적인 시장 상황을 주고 내가 소비자로서 또는 공급자로서 문제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며, 실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해 보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앞의 학문중심 교과서는 이미 진리라고 제시된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례를 보지만, 뒤의 역량중심 교과서는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을 유도할 것이다.

법과 정치 영역에서 국회와 대통령을 설명한 내용도 헌법에 있는 제도(구성 방법, 권한)를 교과서에 열거하면 공부도 암기하여 시험 본 뒤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하여 정말 무용지식을 강요하는 일이 된다. 이것을 만약에 내가 유권자로서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또 후보자로 출마하여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도록 한다면 민주시민의 역할을 하는 데 직접 도

움될 것이다. 대통령 후보자는 국민의 공감을 받을 도덕성과 국가 번영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창의성을 가져야 선택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학습한다면 창의성과 인성 교육은 저절로 되는 것이므로, 달리 그것을 하려고 시간을 쓸 이유가 없다.

즉 중등 사회과 교과서는 앞으로 사회과학의 이론 체계를 설명하는 형식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문제를 발견하고 의사 결정을 해 가는 역할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주장은 학문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하고 학문도 필요한 부분을 도구로 삼으면 된다는 말이다. 교과서 내용을 배경 학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 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학문에서도 구하면 된다. 다시 한 번 더 경제를 예로 들면, 교과서 내용을 '자본주의 시장경제, 가격기구, 금융재정 정책, 국제경제'와 같이 전개하는 방법과, '생산자, 소비자, 투자자, 정책결정자'로 경제적 역할별로 나누어 구성하는 방법을 비교해 보자는 것이다. 모두 다 같은 말 같지만, 앞의 학문중심 교과서와 뒤의 역할중심 교과서는 지식 선정과 구성 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경제학 전공의 공급자가 아니라 일상의 경제 생활을 하는 수요자 처지에서 학생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보자. 현명한 투자가가 되기 위하여 기업 상황과 이자율 및 환율을 볼 것이고, 재무 설계를 위한 미래 전망까지 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초점은 이미 정해진 정답을 찾기 위하여 교사와 교과서가 제시하는 내용과 과정을 그대로 모방하는 전통적인 학교를 학생이 문제와 대안을 찾아가는 개방적인 과정을 스스로 조직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업으로 비유하면 선진 기업을 보고 따라가는 재빠른 추적자에서 아무도 기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선도 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창안적인 과제와 해결 방안을 자기 주도적으로 찾아 가는 경험

을 하게 되면, 진로 문제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리라 가정할 수 있다. 중등 사회과 교과서를 학문 중심 체제로 설명해 나가면, 교사의 전문성은 해당 교과의 분화된 전문 지식이고, 이 지식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교사)과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학생)을 분명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당연히 교육과정 운영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학생이 받아 이해하고 시험볼 때 회상해 내야 하는 단선 구조로 될 수 밖에 없다. 교사는 학생들보다는 교과 지식의 전문성이 높지만, 대학의 교수들보다는 낮기 때문에 항상 교육에 대한 권위를 교수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교과서에 있는 다양한 사회과학의 전문적 지식을 모두 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하는 교사의 권위를 학생들이 신뢰해 주기 바라는 자체가 무리이다. 중등학교 교육의 최고 전문가는 중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일 터인데, 실제 전문가로 권위를 행사하는 쪽은 가르치는 방법의 교사가 아니라 가르쳐야 할 학문적 내용의 교수인 것이 우리 현실이다. 무엇이 교육부가 공약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는 일인지, 이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가 되었다. 교과서 내용 구성의 준거체제를 혁신하는 것이 교사의 수업 권위와 학생의 학습 참여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다.

3. 사회과 교과서 내용, 어떻게 구성할까?

중등 사회과의 내용을 교과서에는 어느 범위까지 실는가, 또 교과서에 그 내용을 싣더라도 어떤 요소와 요소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배열하는가에 따라 교과서가 달라진다. 실제 교과서를 편찬할 때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은 배경 학문의 이론 체계를 그 학문의 순서와 방법대로 구성하는 것이다. 마치 경제원론과 헌법학 체계를 고등학교 경제나 법과 정치 교과

서가 따른다면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 수요자인 학생의 의견보다는 공급자인 교과서 저자의 전문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 배경에는 바로 교육부가 천명한 ‘역량중심 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가 있다. 우선 앞으로 정부와 학교가 역량중심 교과서를 용인한다면 구성 체제는 상황별 통합체제로 가게 될 것이고,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면 교과서와 자료집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어서 통합 체제만이 아니라 교과서 분량을 조절할 수도 있게 된다. 이 두 가지 모형을 하나로 묶어보면 중등 사회과 교과서는 역할 중심으로 다변화된 모형을 선보일 것이다.


예를 들면 중학교 사회과 A 디지털교과서는 헌법을 ‘총강-기본권-입법부-행정부-사법부....’ 하는 식으로 전통적인 교과서를 디지털로 형식만을 바꾼 정도로 편찬할 수 있고, B 디지털교과서는 아예 ‘국민-국회의원-대통령-법관-공무원....’ 하는 역량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되는 내용(사실, 개념, 원리 등)을 교과서에 모두 실어 학생들이 바로 보도록 할 수도 있고, 교과서에는 중심 읽기 자료만 주고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찾게 할 수 있다. 교과서에는 최소 학습량만 넣어 학생들의 정보 자료 찾기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방법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앞의 학문 체제 중심 모형은 관련되는 정보를 모두 교과서에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논리적 연결성을 높이려 할 것이다. 그러나 뒤의 역할 중심 모형은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여기 저기서 사실이나 개념 및 원리를 모아 한꺼번에 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새 정부의 비전인 경제민주화를 소재로 사회적 역할 중심의 디지털교과서를 구성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선 기업이 차지에서 이화두를 어떻게 수용하여 실적을 보일 수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과 사회의 관계,

기업과 기업간의 관계,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 기업과 정부의 관계 등 다원적인 차원에서 경제 민주화를 이해해야 한다. 정부는 이것을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과 정책을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경제외 경영, 법과 정치, 사회와 문화, 역사와 외국 사례, 이윤추구와 기업윤리 등 정말 여러 분야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교과서를 구성한다면 단일 학문을 전공한 교수가 아니라, 여러 영역을 가르치는 교사가 더 높은 전문성을 보일 수 있다. 학문과 학문을 연계시키기 위한 다학문적 구성이 아니라, 실제 사회적 삶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면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바로 창의인성학습을 하는 것이다. 다원화된 세상을 각 학문마다 따로 따로 자기만의 눈을 가지고 보려는 것은 더 이상 인정받기 어렵다.

디지털교과서 체제에서는 기본적인 정보 자료를 교과서에 굳이 실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밝힌 ‘참고서가 필요없는 교과서 완결체제’가 모든 자료를 다 실어서 다른 참고서는 보지 않아도 학습할 수 있다는 모형은 아닐 것이다. 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중요한 내용 줄기만 교과서에 제시하고, 필요한 사례나 개념 및 이론 등은 학습자료망이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면 된다. 교과서 완결체제의 가치는 ‘참고서를 배경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내용만 학습해도 실 생활을 하는 데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한다’는 뜻일 것이다. 즉 교과서 완결과 여부(興否)를 가르는 기준은 ‘분량이나 설명하는 정도, 시험대비 가능성’이 아니라, 그 교과서가 무용지식을 얼마나 버리고 활성 지식을 선정하여 실용적으로 구성하는가에 달려 있다. 인터넷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는 완결형의 속 뜻을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천명한 ‘역량중심 교과서와 디

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중등 사회과 교과서는 사회적 역할 중심의 내용을 선정하여 역할 수행이 필요한 지식을 다면적으로 가져와 통합적인 체제로 구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왔다.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할 때 중요하다고 하는 이념이나 모형도 다음 세대가 볼 때는 왜 그런 식으로 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웃음거리로 삼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중등 사회과 디지털교과서는 역할중심의 통합 모형으로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필자소개

사회과교육을 전공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과정 정책 연구, 교과서 개발과 검정 관리,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구관리 등을 하다가 정년퇴임한 뒤 강의와 미래문화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역사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실을 것인가?

— 중학교 역사를 중심으로 —



강 선 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 역사 학습량의 적정화 시도가 적정화로 나타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2007 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역사' 과목의 탄생이다. 이전에는 한국사는 '국사'라는 과목에서 별도의 교과서로 가르쳤고, 세계사는 사회과의 한 영역으로서 지리, 일반사회와 함께 사회 교과서로 가르쳤다. 그런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 한국사와 세계사를 '역사'라는 과목에서 함께 가르치도록 한 것이다.

중학교 역사에서는 학습량의 적정화를 위해 한국사 영역에서는 고등학교와 한국사 학습의 초점을 달리하는 방안을 취하였다. 중학교 한국사는 근대사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대신 종래 통합적인 사회상 이해에 장애가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문화사를 첨가하였다. 즉 중학교에서는 전근대사에 중점을 두어 정치사와 사회문화사를 중심으로, 고등학교에서는 근대사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중점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내용을 계열화하여 조직한 것이다. 중학교 세계사 영역에서는 한국사와 관련이 적다고 판단한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 등의 지역사와 유럽 중심주의를 지양하기 위해 유럽사의 몇 개의 주제를 삭제하고 교류사 관련 주제를 첨가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007년 중학교 역사는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성취기준의 수로만 본다면 대략 50% 정도가 줄었다. '적정화'가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 요소를 첨가·확대하고 학습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삭제·폐지·축소하라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적어도 사회과, 역사 과목에서는 삭제와 축소, 중복 지양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학습 내용을 삭제하고 축소하여 '감축'의 방향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과정을 9학년으로 축소하면서, 중학교 한국사에서 근대사의 비중을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성취기준이 약간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한 2011년도의 각론 개발 과정에서 또 다시 역사의 성취기준의 수를 대략 20% 줄였기 때문에 학습량은 줄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실 학습 내용의 적정화는 제4차 교육과정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것이다. 그럼에도 학습의 적정화, 학습량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러한 데는 몇 가지 체계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는 교육과정 상의 성취기준의

수는 줄었으나, 몇 개의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과정에서 내용 요소를 실질적으로 삭제하거나 축소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역사를 모두 통사로 접근하고, 성취기준을 명제적 지식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한해서는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 요소가 준다고 하여도, 교과서의 내용은 감축되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내용이 오히려 확대·추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사 영역의 성취기준 수는 줄었지만, 개정 교육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거나 삭제한 내용 요소들이 교과서에서는 축소되거나 삭제되지 못하고 거의 모두 서술되었다.(김성자, 2012 : 34)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

교과서 집필자들이 스스로의 판단하여 ‘중요한 학습 내용’을 선정하여 첨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새로운 역사 학설이나 새로운 각도의 역사 해석, 새롭게 주목받는 역사적 현상이나 사건을 첨가하는 것은 오히려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내용은 대체로 본문이 아닌 ‘읽기 자료’로 첨가되었기 때문에 학습량의 확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는 개정 교육과정에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가르쳐왔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종래대로 서술하는 데 있다. 역사 교과서 집필자에는 다수의 현장 교사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종래 학교 현장에서 중요하게 가르쳐왔던 내용 요소들을 삭제하지 못하고 첨가하였다.(김성자, 2012 : 36) 출판사도 이러한 교사들의 선택을 존중하였다. 왜냐하면 현장 교사들이 급격한 변화에 저항적이며 매우 보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사들 가운데 종래 교과서의 문제를 분석하여 그러한 문제를 어떤 교과서가 해결했는지를 검토하여 교과서를 선정하는 교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육과정의 요구를 보기보다는 종래 자신이 가르쳐왔던 교과서와 얼마나 비슷하고 다른가에 비추어 익숙한 교과서를 선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과 교과서 검정 과정의 검토 의견서의

내용 요소 추가 요구이다. 교육과정에는 없는 내용을 첨가하도록 요구하면서 내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교육과정 개발진,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연구진, 교과서 검정 연구진 간의 소통 부재는 교과서 내용의 양적인 측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앞으로도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제작에 이르기까지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육과정 상에서 학습량 감축은 교과서로 연결되기 어렵다.

2 역사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해마다 3·1절, 개천절, 광복절 등과 같은 기념일이 되면 신문이나 TV 등에서 ‘역사교육 문제 있다’는 매우 자극적이 표제 하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다. 2013년 3·1절에 나온 ‘역사교육 실종’이라는 TV 뉴스에서는 ‘집중이수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집중이수제 때문에 중학교 1, 2학년생이 역사를 배우고 싶어도 역사를 배울 수 없고 따라서 역사를 잘 모른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학생들에게 했던 질문이다. “이완용이 누구인지 아는가?” “안중근이 어떤 사람인가?”, “3·1절을 어떻게 읽는가?” “사진(일본의 전범기)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잘 대답한 학생들은 TV 화면에 나오지 않았다. 기사화된 학생들의 대답은 “이완용이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 “모른다”, “삼 점 일절이다” 등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학생들이 역사를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역사교육에 접근한다면 역사에서 가르쳐야 할 핵심적 내용은 ‘실생활과 밀접한 단편적 지식’이다.

학부모, 학생, 역사교육 전문가 등이 많이 지적하는 역사교육의 문제는 파편화된 지식을 암기하게 하고, 역사적 사고나 지식의 체계적인 구조를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단순하게 역사적 사실을 암기했다면 왜 이완용이 누구인지, 광복절이 어떤 날인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을까? 반복되는 기념일이다. 학생들이 역사를 매 학년에서 학습하지

않는 한, 여러 국가적 기념일들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을 기억할 수는 없다. 사실 3·1절, 광복절과 같은 기념일은 학교 역사보다는 사회가 기억하게 해야 한다. 특정 시간에 TV 중계 방송되는 국가적 기념행사만으로는 학생들이 그러한 기념일을 역사와 관련시켜 기억하기는 어렵다. 역사적 순간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민간의 행사와 축제가 어우러질 때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위 실생활과 밀접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기억 여부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역사교육의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를 오히려 비판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여러 기념일을 통해 역사적 사건보다는 역사적 감정을 기억하여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좀 더 냉철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 삼을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학교 역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필자는 본인이 재직하는 대학에서는 물론 다른 대학에 강의를 나가서 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해 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근대’, ‘근대성’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세계사나 한국사에서 근대와 관련되는 사건들을 설명해 보라고 한 적이 있다. 학생들 대부분은 어렵듯이 근대의 특징들을 나열했다. 예를 들면 대량생산, 민주주의 등과 같은 소위 유럽 중심적 사고에 기초한 ‘보편적 근대’이다. 세계사에서 학습한 ‘르네상스’, ‘종교개혁’, ‘산업혁명’, ‘시민혁명’ 등 소위 ‘근대’ 시기의 사건들을 기억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서유럽에 비하여 다른 지역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면서 세계사 교육의 유럽 중심성을 실감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중학교에서 한번 학습한 세계사의 ‘근대’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지어 대충 말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근대는 특징은 물론 역사적 사건과 관련짓는 것도 어려워하였다. 학생들은 갑신정변, 갑오개혁 등에 관련된 구체적 인물이나 사건의 대략적인 전개 과정 등에 대해서는 기억하지만 그러한 사건을 ‘근대’라는 큰 그림과 구조 속에서 분류·분석·비교·종합하여 설명하지는 못하거나 혹은 설명하기 어려워하였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자신

이 어떤 관점에서 세계사나 한국사를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해 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나 세계사를 선택 과목으로 이수하지 않는다면 중학교에서 역사학습의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된다. 학생은 역사를 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할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학생이 역사를 배우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다. 결국 과거뿐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역사적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가 현재 우리 생활에 어떻게 하면 생생하게 살아나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역사적 통찰력은 어떻게 하면 키워질 수 있을까? 현재와 같은 방식의 ‘지식 암기 위주 역사’로는 어렵다는 데 많은 전문가, 비전문가도 공감한다. 지식 암기가 아니라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나는 역사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역사 문해력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논자에 따라 역사 문해력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필자는 역사 문해력을 가장 기초적으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글을 읽고 비판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에서부터, 스스로 역사적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데 역사적 설명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그 설명이 어떤 역사적 증거와 주장들에 기초한 것인지, 어떤 역사의식을 추구하는지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자신의 역사 지식을 구성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본다.(강선주, 2012: 28) 그것이 바탕이 될 때 영화, 드라마, 역사소설, 역사서, 이미지, 음악, 박물관 전시물 등 다양한 역사물이 제시하는 역사 지식과 역사의식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과거를 현재에 생생하게 살려 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도 있으며, 이 사회가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서도 역사적 맥락에서 고민해 볼 수도 있다.

역사 문해력은 역사교육의 내용을 명제적 지식으로만 정의하고 접근해서는 가르칠 수 없다.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에 대한 분석적 독해와 심층적 탐구를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탄생에서 현대


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사 전체, 통사를 모른다면 어떻게 역사적 사건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가?”라는 우려와 비판이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기념비적’ 이거나 ‘골동품적’ 관점에서 역사교육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 역사를 기념하고 보존해야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하나의 독특한 사고 방법으로 본다면 역사 문해력을 역사교육의 중심에 놓을 필요가 있다.

물론 조선시대의 전반적 유교 문화와 신분적 사회 질서를 모르고 조선시대의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거나 탐구하기는 어렵다. 또 조선이 왜 유교를 정면으로 내세우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를 이해할 필요도 있다. 또 현재의 불교 문화나 유교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만이 아니라 그 이전 문화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연대기적 이해는 역사 이해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반대로 특정한 사건들이나 역사적 현상을 중심으로 탐구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와 사회 질서를 이해하는 방법이 불가능하지도 않으며, 탐구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연대기적 사고를 발달시킬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역사 문해력을 강조한다고 해서, 특정 시대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야 할 역사의 범위와 순서를 재조정한다면 통사로 접근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공통과정 9학년 가운데 역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한 번씩 학습할 기회가 있다. 역사에서 초등은 인물사와 생활사, 중학교는 정치사와 사회문화사 등으로 분야를 달리하는 것만으로는 중복을 피하고 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교과서 차원에서는 초등의 정치 인물사 중심과 중학교의 정치 사건사 중심이 구분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때로 초등학교의 교과서 쪽수가 중학교보다 제한되면서 사건 설명에서 비약과 생략이 많아 더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역사적 문해력이라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명제적 지식뿐 아니라 방법적 지식까지 통합된 역사로서 초등과 중등 사이에 어떻게 연계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역사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을 명제적 지식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방식도 변해야 하며, 교과서 검정 체제나 교과서 자체의 구성 방식도 변해야 한다. 이는 매우 ‘과격함’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번에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면 변화보다는 문제와 혼란을 만들뿐이다.

앞에서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삭제하거나 축소해야 할 내용을 유지하는 방식의 저항은 물론 수업이나 평가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악화된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역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기초 연구를 통하여 변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현장 교원 연수를 통해 교원의 역사 문해력을 향상시켜 역사교육의 실질적인 변화를 꾀할 필요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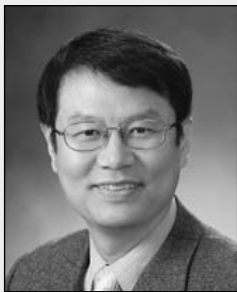
참고 문헌

- 강선주, 역사교육과 박물관 역사 전시의 만남, 『역사교육연구』 16, 2012
- 김성자,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내용 적정화 담론의 수용과 굴절, 『歷史教育』 121, 2012

필자 소개

서울대학교에서 역사교육을 전공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사교육 분야에서 교육과정, 수업 방법, 교과서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박물관 교육도 연구하고 있다.

영어 교과서에 어떤 지식을 담을 것인가?



박 준 언

승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교육과정을 학교 교육현장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매체가 교과서이다. 교사는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에 내포된 다양한 교육적 목적과 기능들을 전수하고 학생들은 이를 배우며 자신들의 학습능력을 신장시킨다. 영어교과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국의 초중등학교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어 교과서들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각종 지침들을 준수하여 개발되고 교과서 검인정 심의 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것들이다. 따라서 영어 교과서들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정신과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는 영어교육의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변화해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전의 언어 형태 중심의 교육에서 언어 기능 중심의 교육으로의 변화로서, 영어 학습자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방향으로 영어 교과서가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기존의 교사 중심의 영어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습자 중심의 영어교육을 지향하는 교과서 개발로 이어지게 되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교육과정 개편과 그에 따른 영어 교과서 개발 경험이 축적된 결과, 우리나라 초중등 영어 교과서들은 내용면이나 형식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영어 교과서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제언들을 하고자 한다.

1. 소재

제7차 개정(2007 개정) 영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여 학습해야 할 소재들을 거의 모두 제시하고 있다. 다만,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인 창의성 계발과 관련된 소재에 대해 보다 명시적인 언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현 영어 교육과정에도 제시된 소재들 곳곳에 창의성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창의성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학교 폭력, 자살 등 학생들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재들도 영어 교육과정에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되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해마다 다문화 가정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 관련 소재들로 적

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다양한 영어 표현 제공 (의사소통기능)

현 영어 교육과정에는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영어 의사소통 기능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영어 의사소통 기능들은 상세하게 분류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제시된 영어 의사소통 기능들을 교과서를 통해 학습하면 영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각 의사소통 기능별로 제시된 예시문이나 예시 표현들이 제한적이거나 애매하여 학생들이 각각의 의사소통 기능에 해당하는 다양한 영어 표현들을 학습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적 예시들은, 학생들의 영어 사용 수준을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영어 교과서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한적 표현들만 교과서에 제시할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표현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영어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영어 의사소통 기능들의 예시들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강력히 요청된다.

3. 문법에 대한 명시적 학습

오늘날 영어교육의 흐름이 언어 형태보다는 언어 기능 학습을 위주로 교육하는 것으로 진행된 결과, 예전에 비해 영어 교과서에서 영어 문법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예전의 영어 교과서들이 지나치게 문법 교육 위주로 개발되어서 학생들의 실제적 영어사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장애가 되었던 점에 비춰볼 때, 교과서에서 영문법 교육 비중을 약화시킨 것은 긍정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법이 언어 학습의 기초인 점을 고려할 때, 영어 교과서에서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도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영어 교과서들이 영어 문법을 제시할 때 문법적 용어들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문법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문법적 용어들을 사용해서 문법 항목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문법 항목들을 제시하는 방법 면에서, 예전의 언어 사용 맥락이 배제된 문법을 위한 문법 제시가 아닌, 문법 항목이 실제 영어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맥락 속에서 제시해야 한다.

4. 코퍼스 언어학적 연구결과 반영

최근에 언어학 연구 분야의 하나로 코퍼스 언어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다량의 실제 언어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언어자료를 구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언어적 사용 용법들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코퍼스 언어학 연구결과 덕분에,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의 실제 사용 용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를 영어 교과서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연어(collocation)인데,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코퍼스 언어학 기반의 collocation을 통해 실제 사용되는 영어 표현들을 보다 풍부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영어 교과서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세계영어(World Englishes)의 부분적 수용의 필요성

영어학자인 Braj Kachru는 영어 사용 국가들을 영어 모국어 사용 국가(inner circle), 영어 공용어 사용국가(expanding circle), 영어 외국어 사용국가(expanding circle)의 세 부류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영어 외국어 사용국가에 속하며, 학교 영어 교육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모국어 사용국가, 특히 미국 영어를 모델로 삼아 교육해 오고 있다. 영어를

모국어나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언어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영어 모국어 사용국가의 영어를 모델로 삼고 이를 교육하는 것은 영어교육의 필요상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 영어가 단순히 영어 모국어 사용 국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영어 공용어 사용 국가들과 영어 외국어 사용국가들 모두가 사용하는 국제적 통용어(lingua franca)임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이 장차 다양한 영어 사용자와 의사소통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영어 교과서에서 부분적이거나 다양한 영어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발음 부분에서 다양한 영어들의 발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들의 경우 미국 영어식 발음만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영국 영어식 발음까지 포함해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어 교과서는 종래대로 미국식 영어 발음을 제시하고,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는 미국식 영어 발음과 영국식 영어 발음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중학교 영어 교과서까지 확대하고, 또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부분적이거나 미국, 영국식 발음 이외의 영어들의 발음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언어-내용 통합 교육의 단계적 수용

최근에 영어 교육학계에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영어 사용능력 향상을 위해 종래의 언어 중심적 교육에서 탈피하여 언어와 내용을 결합하여 교육하는 것을 권장하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즉, 단순히 언어만을 교육하기보다는 학생들의 교과목과 연계된 언어교육을 실시할 때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고양되고 그만큼 영어 학습 참여도가 상승된다는 것이다. 내용중심 언어학습(content-based instruction)이나 내용언어통합 교육(content language integrated learning)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영어교육은 일반적 목적을 위한 영어교육(English for general purposes) 차원에서 실시해오고 있어서, 학생들의 교과목 내용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영어 교과서 개발 시에는 부분적이거나 학생들의 교과목 내용과 연계된 교과서를 개발할 것이 강력히 요청된다. 초등 영어 교과서의 경우, 학생들의 영어 지식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 교과서에 교과목 내용을 반영하기가 어렵지만, 중,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는 부분적이거나 학생들의 교과목 내용을 수용해서 반영하면 학생들의 교과목 지식과 영어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한 조언 / autonomous learning


오늘날 영어 교과서의 기능이 영어 교사의 지식을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참고 교재로서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바, 이 기능을 영어 교과서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에 학생들 스스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전략(learning strategies)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언어의 4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을 위한 학습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효과적 영어 학습을 도와 줄 수 있다. 

필자소개

저서로 “우리의 영어교실에 영어는 있는가”, “우리나라 영어공교육 희망은 있다” 등이 있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중등학교 영어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다. 또한 교육부의 영어교육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시간(단위) 배당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편성·운영하는 것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에서 학교 재량으로 20% 범위의 증감 운영을 하거나 특정 자율학교에서 교과별로 그보다 더 큰 폭의 증감 운영을 할 경우 교육과정의 취지는 잘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학교 현장의 이해와 실재는 그렇지 못하여 교사용 지도서 혹은 교과서의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지도해야 하는지, 주제 통합·차시 통합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재 재구성을 주제로 교육청, 교사의 수업 활동, 교과 교육과정, 학교 경영의 측면에서 전문적 견해를 들어 보았다. 



현.장.교.육.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과 교재의 재구성

- △ ‘배움’이 즐거운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원
- △ 교육과정 재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 △ 수학 : 공교육으로의 완성
- △ 학생들의 개인차를 극복하는 영어 교육과정 만들기
- △ 담임교사 행정업무 제로화를 통한 학생중심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경영 사례



‘배움’이 즐거운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원



안 영 자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

1.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11번의 개정을 통해 교육과정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았듯이 기존의 일시·전면 개정 체제 방식에서 벗어나 수시·부분 개정 체제로 개정 방식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나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장 교사들에게 교육과정은 책장 속에 고이 모셔두는 죽은 문서에 지나지 않았으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되는 존재일 뿐이었다. 교육과정이 일괄 개정되면 그 상황에 따라 집단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교육과정 담당 부장이 대충 내용을 파악해서 교육과정 편성 시안을 마련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면 그뿐이었다. 꼭 필요하다면 교사들이 모여서 시수표를 짜고, 새로 도입된 교과나 교육활동을 모든 교실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청 지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그뿐이었다.

그런데 수시 개정 체제로 들어오면서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히 대답을 해 주는 이가 드물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조금씩 막막해지는 답답한 경험을 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2011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학교 안팎에서는 비판의 소리와 함께 아우성에 가까울 정도로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학교의 혼란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교과군, 학년군, 집중이수, 시수 20% 증감,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 전문가 100인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는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때 교육적 명분이 주어진다는 전제하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행복기’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배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도록 전환해 나가고 있다.

셋째, 블록타임 시수를 학교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단위별, 차시별, 교과서 진도 폐기식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4시간 단위의 다양한 형태의 블록타임 수업을 학교평가 지표에 신설함으로써 교사들에게는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을 신장시키고, 학습자 활동 중심

으로 수업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초석을 깔고 있다.

2. 100인의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자율화의 실체는 지금까지 통제 위주로 개정해 왔던 교육과정을 교사, 학습자 중심으로 개방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읽고 이해하는 “교육과정 리터러시(literacy)” 능력과 같은 전문성 신장, 교육과정을 학습자들의 상황·필요를 존중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성 회복이 관건이므로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100인의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사업을 마련하였다. 교육과정 운영 경험에 많은 현장 교감, 교사 등을 중심으로 초 40, 중 30, 고 30명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다.

전국 단위의 유명 강사를 초청하여 ‘미래형 핵심 역량 강화 교육과정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설계’, ‘학교는 어떻게 성취기준을 재구성할 것인가?’, ‘초·중등 교육과정 컨설팅의 실제’, ‘초·중등 교사 사기 제고와 교육과정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으로 구성된 사전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2박 3일 합숙 워크숍을 통하여 초·중·고 분과별로 전국의 교육과정 전문가를 멘토로 초빙하여 ‘2013학년도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하기’, ‘교육청 및 학교 행사를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기’ 등 실천적 과제를 부여하여 직접 편성하고, 발표하고, 전문 멘토의 조언을 듣고 상호 협의를 해나면서 전문가 그룹의 교육과정 이해 및 활동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금년에 첫 배출한 전문가 100인의 교육과정 컨설팅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그러나 금년도에 1차로 교육과정 전문가 그룹을 학교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컨설팅 요원으로 투입하였고, 우선 기존의 교과서 차시별 진도표에서 벗

어나 범교과 영역을 교과에 통합하기, 학교 행사를 교육과정 속에 녹여내기,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편성하기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반영한 낮은 수준의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원한다면 교과서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바라는 내용과 형식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등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고 재구성하도록 하는 높은 수준의 컨설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교육과정 전문성은 한두 차례 워크숍이나 단기간 연수로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전문가 심화과정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교육과정 컨설팅 과정에서 직면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꾸준히 찾아나간다면 향후 3년 뒤에는 우리 교육청 교육과정 전문가 100인이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실현의 초석이 되어 주리라 믿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행복기’ 교육과정 운영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은 학생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적용할 때만이 교육적 명분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자는 것이 바로 ‘행복기’ 교육과정 운영의 취지이다.

우리 교육청은 금년에 초·중등 학사 일정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다. 그 까닭은 2월에는 학년말 업무 및 새 학년도 준비로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이 낮으며, 학부모들의 학사일정 조정안 건의,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인해 방학 일수가 줄어들어 따라 휴한기와 휴시기에도 등교를 하는 등 2012학년도 학사 일정 운영 결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학사 일정 개정을 통해 방학 일수 증가 등 개선에 따른 장점도 있었지만, 수업시수 확보를 위하여 일부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5~6학년 7교시 수업을 전 학교에 허용할 수밖에 없는 단점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배

움의 즐거움은 물리적인 시간의 양이 아니라 배움의 질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학교 여건에 따라 특정 주간, 월, 요일 등을 '행복기'로 정하고 이 날은 시정 운영을 "신난다 시정표", "30분 놀이시간 제공" 등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운동회·예술제 등에서 필요한 체험활동, 경험학습, 각종 행사도 교육과정 속에 녹여서 통합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제동행 인성교육 등 교육청 시책까지도 교육과정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하였고, 교과-교과 간,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간 연계 등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처럼 학교 여건에 맞게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최소화하고, 즐겁게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통합'의 날을 편성하

여 '행복기'로 명명하고 운영하도록 안내하였다.

그 결과 교사 입장에서는 7교시를 부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시수 확보가 용이해졌고, 성취기준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습 진도 조절이 수월해졌으며, 특히 종소리 없이 시정이 운영됨으로써 생활 지도에도 도움이 된다는 등 긍정적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주제를 여러 교과에서 병렬적으로 배우게 됨으로써 학습의 일관성이 생기고, 수업의 리듬이 역동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으며, 체험중심 학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행사로 인한 학습 결손도 줄어들게 되었다.

물론 '행복기'를 제외한 평상시에는 탐구, 토론 등 자기주도적 학습기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 입

〈표1〉 '행복기'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예

학 년	1 학 기										어울 마당
	시 기			주제	시 수	교과 / 창의적 체험활동	단원(차시)	학습활동			
	월	주	날짜								
4	5	10	4.30 (화)	대구 사랑 투어	6	창의적 체험활동	행사 2	대구 도심 골목 투어하기 체험한 내용으로 기사 작성하기	30분 놀이 활동		
						사회	1.우리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모습(11-13/14)	대구 도심 골목 투어하기 (경상감영, 대구한방박물관, 계산성당 둘러보기)			
						국어	4. 이 말이 어울려요(듣말 5/6)	알게 된 점을 바탕으로 어른에게 편지 쓰기			
			5.2 (목)	즐거운 체육 대회	6	창의적 체험활동	행사 1	체육대회에 즐겁게 참여하기	"		
						체육	2-1. 표적을 향해 쏘라(2-5/6)	체육대회에서 재미있는 경기하기			
						도덕	2. 내일은 내가 하기 (4/4)	체육대회에서 내가 할 일, 맡은 역할 충실히 수행하기			
5.3 (금)	신문과 놀자	7	창의적 체험활동	특색7	학급 신문 제작하기	"					
4	7	19	7.1 (월)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3	국어	7. 넓은 세상 많은 이야기 (듣말 3-5/6)	신문에 소개된 책의 표지 살펴보고 구성알기 그림책에 들어갈 인물, 사건, 배경 구성하기	"		
			3		미술	6-3. 나도 그림책 작가 (1-3/4)	다양한 책의 형태 알아보기 (입체,병풍 등) 책 표지 구성요소에 맞추어 디자인하기	"			
			2		미술	6-3. 나도 그림책 작 (4/4)	그림책 만들어 전시하고 감상하기	"			
				국어	7. 넓은 세상 많은 이야기 (듣말 6/6)	친구의 작품 칭찬하기					

〈표2〉 '행복기' 재미난다 시정표

시 정	시간(분)	활 동 내 용			
08:30 ~ 08:40	10	아침 독서	• 아침독서 10분	수요일 시정	
08:40 ~ 09:20	40	1교시	• 교과학습활동		
09:20 ~ 09:30	10	쉬는시간	• 안전지도	1교시	08:40 ~ 09:20
09:30 ~ 10:50	80	2~3교시	• 교과학습활동	2교시	09:30 ~ 10:10
10:50 ~ 11:20	30	놀이시간		3교시	10:20 ~ 11:00
11:20 ~ 12:40	80	4~5교시	• 교과학습활동	4교시	11:10 ~ 11:50
12:40 ~ 13:30	50	점심시간	• 급식지도 • 건강검기	5교시	12:00 ~ 12:40
13:30 ~ 14:50	80	6~7교시	• 교과학습활동	점심시간	
14:50 ~ 15:00	10	정리, 하교	• 청소 및 정리 • 안전하교지도	정리, 하교	
15:00 ~ 16:30	90	방과후학교 업무추진	• 방과후학교 • 교재연구, 부진아지도		

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였고, 교과서 진도 폐기식 획일적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학교별로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이 없고 이해가 부족한 학교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양성해 놓은 교육과정 100인 전문가를 투입해서 실시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관련 컨설팅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따른 집단적 불만, 교육과정 편성의 문제보다 오히려 블록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거부감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4. 블록타임과 학교평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매 차시별로 가르칠 '내용' 까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상세히 제시 하던 방식을 성취기준에 따라 내용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성취기준에 적절한 내용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대강화하고, 교사가 학생들이 처한 상황과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교육적으로 판단해서 학생들의 배움이 즐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이 시행

[지표의 의미와 취지]

- ▶ '학습자 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편성·운영'이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하였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그 하위 요소로 ① 범교과 영역의 교과 반영 정도 측정, ② 블록타임 수업시간 편성·운영 측정, ③ 진로집중 개설 과정수를 비율로서 구한 것을 의미한다.
- ▶ 이 지표의 취지는 범교과 영역의 교과 통합 편성을 통한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노력 정도와 블록타임 편성·운영 정도를 통해 교수-학습 방법을 어떻게 혁신하고 있으며, 학생 맞춤형 진로 집중과정을 개설하여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있다.

〈표3〉블록타임 수업시간 편성·운영 비율

학교명	블록타임 수업시간 수(C)	전학년 교과 수업시간 수(D)	블록타임 수업시간 편성·운영비율 (C/D)×100


중인 현재, 학교나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인식하고 다루는 방식은 여전히 집단적이며, 공문 형식의 지시와 전달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서 교육과정 자율권은 취지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교육청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블록타임 수업 시수를 학교평가 지표로 신설하였다. 이는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을 제고하고 수업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40분 단위의 '자주, 알게 반박' 하는 학습 양식을 다양한 형태의 블록 수업을 통해 '길게, 집중하는 배움' 학습 양식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도이다.

교사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자율화가 너무 어렵다고들 아우성이다. 하지만 이런 아우성을 잠시 미뤄두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동료에게, 전문가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 교육과정은 교사를 위한 방편인가, 학생을 위한 수업 설계도인가?
- 교육과정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진화하고 있다는데 교육과정 리터러시가 부족해도 교단에 탈 없이 계속 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에 숨어 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이라면 교사와 학교에 주어진 교육과정

자율권이 학생들로 하여금 '배움'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은 절대적이다. 이를 위한 우리 교육청의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노력, 제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도록 유도하는 노력 등은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의미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

반성적 실천을 통한 교수학습방법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2004년 행정자치부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는 교육과정중심교실 수업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 자

화성 구봉초등학교 교감

1. 교육과정 재구성은 왜 필요한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아무리 이상적으로 편성되었다 해도 학교마다 처한 환경, 지역 사회의 특성, 학생들의 사전 경험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학교·학급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지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한 까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생 중심 교육관을 바탕으로 교육내용 재구성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학습 내용이 자신의 삶과 동떨어져 있거나 수준에 맞지 않으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고 학습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 중심 교육관을 바탕으로 학생의 특성, 경험, 흥미, 적성, 관심, 성취 수준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의 당면한 문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생들의 삶에 필요한 내용을 그들의 수준에 맞

게 구성하여, 학생 스스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

2. 교육내용의 적합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동안 교사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수업 방법에 중점을 두고 교재연구를 해왔다. '무엇을, 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내용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내용을 따르면 그만이었다.

이제 교사는 가르치려는 교육내용이 학생들이 살아 가야 하는 '미래의 삶에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학습을 통하여 어떠한 능력을 길러줘야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여 교육내용을 선정·조직해야 한다.

3. 교육과정 전체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각 교과목의 전문가들은 각자 자기 전공분야의 내용만을 강조하다 보니 교과간 관련성에 대한 횡적 연관성이나, 교과간 통합과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학교교육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점을 감

안할 때 교과 지식 중심의 분절화된 교육과정보다 통합적 교육과정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4. 교사는 전문가로서의 교육적 진단과 처방이 가능해야 한다.

비행기 조종사는 비행기에 대한 기계 역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풍부한 비행경험을 통한 항공술을 가질 때에 조종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된다. 교사는 국가에서 주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학교와 학급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실천적 지식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나갈 때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 내 학교, 내 학급에 맞는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을 때 교직의 전문성은 확보되고,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하는 일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II. 교육과정 재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과정 재구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 발달을 위한 수단이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려는 교사는 확고한 학생 중심적 교육관의 바탕아래 교육의 본질적 이념과 정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1.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향

가. 삶과 얹이 하나 되는 체험중심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한다.

흔히들 '체험'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체험중심 학습'이라고 할 때 박물관 견학 등 특별하게 한 번 경험하는 활동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체험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삶속에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강원도 어느 학급에서 숲속의 새집을 지어주기 위해 나무판자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자르는 조작 활동, 6학년 수학과 '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하기 위해 운동장에 나가서 나무 등치, 놀이기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활동은 체험중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구성된 사례이다. 이러한 체험 활동은 교과서로 학습을 하는 경우보다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데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학생들의 삶과 얹이 하나 되는 체험중심 교육과정은 스스로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만들고, 더 알고 싶어 하도록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질문이 있는 수업'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든다.

나.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한다.

'역량기반 교육과정 (competence-based curriculum)'이란 미래 학습자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르기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교육과정이다. 즉 창의적 문제해결 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민주시민의식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함을 말한다. 6학년 교사가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길러주기 위하여 사회과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기' 내용을 토론수업에 적합한 '환경 문제와 경제 개발' 등 이슈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경우에 해당 된다.

학생들은 토론활동을 위한 사전 조사활동, 자료수집 활동, 실제 토론활동을 통하여 해당 단원의 성취기준을 넘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등 '핵심역량'을 기르게 될 것이다.

다. 주제중심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주제에 따른 '수업운영 방법'과 '수업전략'을 생각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도록 한다. 주제 중심 교육과정은 교사의 수업 운영 방법에 따라 교과 내 재구성 또는 교과간 통합에서 모두 가능하다. 가령 초등학교 3학년 도덕과 '함께 어울려 살아요'와 사회과 '서로 배우고 존중하는 문화' 단원을 통합하여 '지구촌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는 경우이다. 학생들은 관심이 있는 나라별로 소집단 팀을 만들고 그 나라의 '명절과 기념일 조사 활동', '모의 축제 발표 활동' 등 팀별로 조사·탐구한 내용을 전체가 공유하는 학습과정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 존중, 배려 덕목을 함께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 재구성 역시 수업 내용을 넘어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수업 전략'이다.

주제중심수업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경우 협동 학습, 프로젝트학습, 탐구학습, PBL 등이 용이하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2.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과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교육과정 재구성의 범위면에서 살펴보면 국가수준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제작된 교과 내용을 가감·통합하여 부분적으로 재구성을 하는 방법과 교사가 교육내용 선정 및 조직에 적극적인 결정권을 갖고 보다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재구성을 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부분적 재구성, 전체적 재구성으로 구분하여 그 방법을 제시해 본다.

가. 부분적 재구성

학교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재구성 방법

이다. 이미 제시된 교과 교육과정에 따라 내용을 분석하여 재구성하는 방법이므로 '교재(교과용 도서)의 재구성' 의미에 더욱 가깝다. 아래에 제시된 부분적 재구성 유형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재구성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재구성 방법 간에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한 두 가지를 상호 복합적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내용을 추가할 경우나 대체할 경우, 교재의 다른 내용이 자연스럽게 생략되거나 축약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혼합되는 방법으로 재구성된다.

▶ 교육내용 전개 순서 변경

교사의 주관으로 교과 내용의 특성, 수업시수, 지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내용 전개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가령 초등학교 교과서에 '즐거운 운동회'라는 단원이 10월 지도계획으로 편성되었으나 해당 학교의 운동회가 5월에 있는 경우 지도시기 및 수업 시수를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교육내용 생략, 축약

교육내용이 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중복되는 경우, 학교 및 지역사회 여건으로는 학습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전체를 다루기에는 교과내 중복 요소가 많고 시수가 부족한 경우에 내용을 생략, 축약하여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사회과' 수업에서 문화재 탐방을 위한 사전조사, 탐방활동, 사후 보고서 작성 계획이 편성되었다면 '국어과'의 관련 영역 글쓰기 지도를 생략 또는 축약하여 재구성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교육내용 추가, 내용 대체

단원 내용 전체, 혹은 일부가 학생의 현재 여건에 맞

지 않아 흥미, 수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합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대체하는 방법이다. 흔히 학생들의 살고 있는 지역시설을 활용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학 실험에서 대체자료를 활용하여 실험을 할 경우에 해당된다. 4학년 과학과 '분출하는 화산' 지도는 안전사고를 이유로 '칼흙을 이용한 화산 모형 만들기'로 교과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분출하는 화산'의 모습을 관찰하기가 어려우므로 콜라(사이다), 모래, 베이킹 파우더 등 안전한 재료를 이용하여 실제로 화산이 분출하는 모습을 실험 관찰하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

나. 전체적 재구성

교육과정의 전체적 재구성은 타 교과와의 통합,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통합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각 교과 교육과정을 준거로 몇 개의 교과를 동시에 조망하여 학습실정에 맞도록 편성을 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때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차시별 통합보다는 단원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재구성하기에 쉽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교사의 실천적 지식과 성찰이 필요하며 교사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이를 판단해야 한다.

▶ 타교과와 통합

하나의 주제 아래 경험 활동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통합된 교과의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수학과 '길이 비교하기' 주제와 즐거운 생활의 '신문지를 활용한 재미 있는 놀이하기' 주제를 통합하여 '신문지 길게 이어 붙이기' 놀이와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학적 개념인 '더 길다, 더 짧다'를 이해하도록 재구성할 수 있

다. 그러면 학생들은 놀이를 통해서 '즐거운 생활', '수학'과의 성취기준에 쉽게 도달 하게 된다.

▶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통합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별 시수는 20% 이내 증감을 허용하고 있으나 '연간 총수업시수'에 대한 감축이 없어 학교 현장에서는 주5일 수업실시로 인해 수업시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 단순 행사로 그쳤던 체험활동을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 편성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행사활동'으로 경주지역으로 수학여행을 계획할 경우 5학년 사회과 '삼국과 가야의 문화', 미술과 '사진으로 본 세상', 국어과 '상상의 날개' 등 교사의 수업전략에 따라 몇 개의 교과 성취기준을 염두에 두고 다양하게 통합할 수 있다. 학생들은 수학여행 중에 '삼국과 가야의 문화제'를 조사·탐구하고, 사진을 찍는 활동을 한다. 수학여행 후에는 인상 깊은 문화제 사진이나 기념사진을 붙이고, 문화제에 대한 느낌을 시나 글로 표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교사는 학생들이 '수학여행' 활동과 교과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재구조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자기주도 학습능력', 문화적 소양능력 등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III.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제안

1. 학교·학년 단위의 공동체 중심으로 연구 개발

앞에서 언급한 '체험중심 교육과정', '역량기반 교육과정', '주제중심 교육과정'은 교사들의 집단적 지혜가 없으면 제대로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교사

개인의 노력보다는 학교·학년 단위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움직일 때 교육과정 재구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교사들마다 교과에 대한 각자의 견해와 교과 내용에 접근하는 노하우나 아이디어가 있으므로, 이러한 개개인의 전문성을 교류, 공유하며 상호 비판적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면 보다 발전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학교·학년 단위의 공동체 내부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이 나오고 ‘목표 공유’를 할 때 그 교육과정이야말로 실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 수업과 평가 방법의 변화 모색

참된 학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수업 방법이나 평가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토론수업, 주제 탐구활동,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기르는데 적합한 수업 방법으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학습과정에서 더 많은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수업개선과 함께 평가 방법도 변화되어야 한다. 이미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많은 학교에서는 학습 경험에서 형성된 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기 위해 서술형·논술형 평가 비율을 높이고 학급교육 과정에 따른 ‘교사별 평가’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IV. 맺으며

학교·학급에 알맞은 교육과정 재구성 없이 전국공통의 ‘고정된 교육과정’이 각 교실에서 동일하게 운영된다면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학교와 교사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가 궁색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제 더 이상 지식은 고정 불변의 진리가 아니듯 교육과정 역시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된 학력을 기른다는 것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게 해주는 일이므로 교육과정은 교실 상황과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고 재구성 되어야 한다.

교사가 국가수준의 교과교육목표, 내용체계, 성취수준을 분석하고 재해석하여 교실 상황에 맞는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고 적용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교육과정 재구성이 실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

교육과정과 수업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현장교육실천
사례연구발표대회 8회, 경기도수업인증제 1등급 5회
입상하였다.



수학 : 공교육으로의 완성

이 경 희

(전)한국삼육고등학교 교장



□ 수학을 포기하지 말자는 메시지

고등학교 2학년 수업 시간, 반복되는 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미 수학 공부 자체를 포기할 해버린 학생들을 향하여 했던 말이 생각난다.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는 수학 문제를 잘 풀었지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수학 점수가 괜찮았지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 풀 때부터 수학이 조금씩 힘들어지지 않았나요?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도형의 방정식부터는 많이 힘들어지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 아예 수학을 포기하게 된 친구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수학수업 시간은 일주일에 다섯 시간씩이나 들어 있고 수능 시험을 볼 때까지 300시간 이상이 남았는데…… 이왕 정해진 수학시간이니 300시간 동안 선생님 따라서 천천히 한 문제 한 문제 열심히 풀다보면 분명히 아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수업 시간만큼이라도 열심히 하면 노력한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300시간이라는 말에 공감감이 가서인지 아니면 교사의 열정과 의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지 잠시나마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 중학교에서의 수준별 학습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 주당 수업시간이 많은 과목, 사교육 참여 학생 비율이 높은 과목, 그러나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많음에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수업 시간에 얹드려 잠자려 하는 학생이 많은 과목이 수학이다. 나는 일선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평교사 시절에도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지만 2004년 9월 이후, 두 곳의 학교에서 교장의 일을 하는 동안에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과목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처음 5년간 근무했던 학교는 중·고 병설 학교였는데 중학교 학생들의 수학 기초과정을 단단히 하기 위해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수준별 수업을 운영했다. 한 학급 40명의 학생을 중상위권 25명과 하위권 15명으로 분반하고 중·고 병설과 소규모 학교의 이점을 이용하여 하위권 학생들의 기초학력 다지기에 최선을 다했다. 한 학급을

수학
상품권
박미향



수학시간에 탐과 열정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기에
OO를 우수 학생으로 선정합니다.

OO문구 이용권
1,000원

두 개 반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교사들의 수업 시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여러 학급을 섞어 분반을 했을 때 하위권 수업 분위기가 자칫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위권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일 학급의 소수 인원으로 구성하는, 다소 무리한 방법을 시도했던 것이다.

또한 하위반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 및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위해 활동 및 태도에 대한 보상 스티커 발행 제도를 활용했다. 칭찬이 필요할 때는 스티커를 지급하고 주의 및 지도가 필요할 때는 회수하는 방법으로써 즉각적인 회수와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효과가 컸다. 또한 모듈별로 스티커를 모으기 때문에 서로서로 조원들을 관리하고 숙제도 열심히 했으며 적극적으로 발표에 임하고 형성평가 시에도 문제를 신중히 푸는 등 바람직한 수업 참여와 함께 모듈별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스티커는 기별로 정리하여 모듈별 시상을 하였다.

이 수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중상위권 학생들의 교실수업은 밀도 있는 수업 전개와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으로 진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고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소그룹 교실에서 공부하는 하위권 학생들은 수업 내용이 쉽고 교사의 세심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포기하는 학생이 없어졌다. 또한 협동학습의 효과로 친구들과의 관계가 학습 중심으로 돈독해졌다. 하위권 학생들은 '수가 적어서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수

학공부가 쉽고 재미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학교생활이 즐겁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효과적인 수준별 수업과 개인 지도가 가능한 교실환경 및 교수·학습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수학 시간이 되었으며 중학교에서의 학력 부진 및 수업 포기가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를 끊을 수 있었다. 정규 수업의 만족도 향상에 이어 방과후 학교에서는 기초반에서 심화반까지 더 세분화된 수준별 반 편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사교육 참여 학생 비율이 낮아졌으며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부진 학생이 거의 없고 우수학생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수준별 수업강사 지원을 받게 되어 교사의 수업 부담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다.

□ 고등학교에서의 N+1 수준별 수업

두 번째 근무한 학교는 과거 18년간 수학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곳으로 젊은 날 진학지도에 온 정열을 쏟아 부었던 추억이 있는 고등학교였다. 부임했을 당시의 학교 상황은 정규수업을 마친 후 학원으로 달려가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늦은 시각까지의 학원 수업으로 피곤한 탓인지 다음 날은 수업시간에 었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았다. 학력이나 진학 상황도 예전만 못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력 향상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중도에 자퇴하거나 전학 등으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 환경과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고 진학 성적도 우수한 학교였지만 정규수업과 방과후 수업의 열기가 식어지면서 성적은 점점 하락하는 것이 요인이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력과 진로문제에 대해 학교보다는 오히려 학원수강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에 더 의존했으며 학교는 학원수강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고려해야 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다른 이해 속에서 생각이 많이 달랐던 것이다.

특별히 수학 과목에 대한 사교육 참여가 현저히 높았음에도 수학 과목 성적이 제일 부진하여 수학 교사들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학원수강으로라도 수학 성적이 향상되었으면 문제가 적었을 것인데 학원수강으로도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 불뚱이 학교에 떨어졌다. 성적이 뜻대로 오르지 않게 되자 서울의 중상위권 학생이 많이 모인 본교에서는 좋은 내신 성적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상대적으로 좋은 내신을 얻기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학교로 전학하려는 학생들이 끊이지 않았다. 학교에는 위기가 닥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하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학원, 과외와 같은 사교육에서 향상시키지 못한 수학 성적을 학교가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수학 수업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가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N+1'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두 번째로 수학교사들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학교사의 업무를 과감하게 경감시키며, 세 번째는 학생들의 질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사들의 개인지도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수학질

문방'을 운영하는 일이었다.

먼저, 교사들의 수업시수 증가 부담이 있었지만 교사들과 협의를 거쳐 'N+1' 수준별 수업을 전 학년에 걸쳐 실시했다. 늘어난 수업 시간을 해결하기 위해, 부담한 첫 해에는 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2학년 인문계 수업을 도왔다. 수학과목 성적이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예체능계 학생들의 수업을 이끌어 가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는 원론적인 목적과 앞으로 대학에서 전공할 과목과 관련하여 수학의 활용면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더니 관심을 보인 학생들이 많았다. 수업 방법으로는 교과서 예제를 중심으로 해당 문제와 관련된 기초과정을 도입부분에서 다루었고 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설명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혼자서 문제를 다시 풀어봄으로써 풀이과정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주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전 시간에 배운 문제에 대한 쪽지 시험을 보았고 채점 결과에 따라 칭찬도 하고 재시험도 따로 보았다. 진도는 더디게 나갔지만 시간을 투자한 만큼 학생들의 수업참여 열기는 계속 상승했다. 비록 모의고사 시험점수 향상은 곧 바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는 수학을 못한 학생이 아니라 나도 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것을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수업의 결과는 꼭 수치적 계산이 아닌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 가장 큰 학습 효과라고 생각했기에 학기를 마칠 때까지 학생과 교사가 수업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 었드려 잠만 자던 하위반 학생들을 맡아 지도한 덕분에 다른 반 교사들은 훨씬 좋은 분위기에서 수업할 수 있어 중상위권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왔다.

□ 교재연구 시간 확보

두 번째로, 학생들의 학원수강 욕구를 해소하고 정규수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정규 수업과 방과후 수업까지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여러 학년과 여러 권의 교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들이 교재를 연구할 시간이 부족함을 호소했다. 수업 외 시간에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일이나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일은 업무를 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분장을 할 때 수학교사들을 과감하게 제외하였으며 담임 배정에서도 수학교사 배정을 최소화하여 오로지 학생들의 수학 성적 향상에 시간을 투자하도록 했다. 수학교사들은 좋아했지만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아진 일부 타교과목 교사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학원수강 욕구를 해소하고 학교 안에서의 학습 열기를 증진하므로 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비사적인 조치임을 설명하고 이 사업이 일차적으로 성공하면 다른 과목교사들의 업무도 경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

히했다. 이 일을 계기로 2010년 교과교실제 A형에 응모하여 2011년부터 전과목을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는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타 교과목 교사들의 업무도 대폭 감소시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 '수학 질문방' 운영

세 번째로는, 수학교사들의 연구력 증진과 1:1 학습 지도 및 학생들의 질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수학 질문방 운영 프로그램이다. 담임업무와 사무업무에서 해방된 수학교사들이 한 장소에 모여 수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꾸며진 연구 환경은 과거 상황에 비해 매우 만족스러웠다. 파티션을 설치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사 책상 외에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책상을 따로 마련하여 일대일 지도에 불편함이 없게 했다. 그리고 4교시 수업을 비워둠으로써 점심식사를 먼저 하고 점심시간에 많은 학생들의 질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적극적인 1:1 학습 관리를 위해 하루에 7명 이상의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목표를 세우고 일지를 작성하여 질문방



수학과 개별지도 일지

교장 교감

지도교사 : 김민정 기간: 11월 10일 - 11월 15일

주요담당	학년	이름	지도방법		주요시간	문제 유형	
			질문방	방과후		문	이
정	1	김민정	○		10	○	
	2	김민정	○		10	○	
	3	김민정	○		10	○	
	4	김민정	○		10	○	
	5	김민정	○		10	○	
	6	김민정	○		10	○	
	7	김민정	○		10	○	
부	1	김민정	○		10	○	
	2	김민정	○		10	○	
	3	김민정	○		10	○	
	4	김민정	○		10	○	
	5	김민정	○		10	○	
	6	김민정	○		10	○	
	7	김민정	○		10	○	
수	1	김민정	○		10	○	
	2	김민정	○		10	○	
	3	김민정	○		10	○	
	4	김민정	○		10	○	
	5	김민정	○		10	○	
	6	김민정	○		10	○	
	7	김민정	○		10	○	
특	1	김민정	○		10	○	
	2	김민정	○		10	○	
	3	김민정	○		10	○	
	4	김민정	○		10	○	
	5	김민정	○		10	○	
	6	김민정	○		10	○	
	7	김민정	○		10	○	
공	1	김민정	○		10	○	
	2	김민정	○		10	○	
	3	김민정	○		10	○	
	4	김민정	○		10	○	
	5	김민정	○		10	○	
	6	김민정	○		10	○	
	7	김민정	○		10	○	


〈 질문방에서 개별지도를 받는 모습〉

운영 상황을 관리했다. 7명의 학생 중에는 스스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학생도 있지만 교사가 학생을 불러 개인지도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업 외 시간에 교사와 학생의 만남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개인 지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련한 질문방 운영은 학생과 교사들에게 호응을 얻어 정규수업 효과를 상승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질문방에서의 교사와의 개인적인 만남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했으며 학생들의 수업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열기도 가속화되었다. 평가가 있는 달에는 교사들을 찾는 학생들이 더욱 많아져 수업 시작 전 아침 일찍부터 질문방 활동이 시작되기도 했다. 학원수강을 비롯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수학과목 성적이 사교육이 아닌 학교의 교수·학습 방법 및 수업환경 개선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 학력의 변화와 공교육 신뢰 문제

이러한 변화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 향상으로 나타났다. 수학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2009년에 72.7%, 2010년에 83.8%, 2011년 90.8% 2012년 96.8%로 크게 향상하였으며 2012년에는 기초미달 학생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서울지역 일반계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종합 성적이 2010년에는 9위, 2011년에는 4위, 2012년에는 2위의 놀라운 성적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대입수능성적 1·2등급 합계 순 및 서울대 및 의대 합격자 비율이 높은 서울지역 우수학교 중의 하나로 신문에 보도되어 그동안 수고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나는 우리의 많은 제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수업시간을 포기하는 일을 배우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일수록 교사들이 시간을 투자하여 더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실패한 수업은 학력 저하보다 학생들을 무기력하게 만들며 학교 생활 부적응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수업을 통하여 수치적인 성적 향상의 결과 뿐 아니라 학업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사를 신뢰하고 학교를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학생들로 기를 수 있다면 우리의 제자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학교가 많아질 때 공교육이 신뢰를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소개

삼육고등학교에서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수업환경 개선에 노력하여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의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및 2011년 전교과교실제 학교를 운영함.
2012년 스승의날 대통령표창(교과지도부문)



학생들의 개인차를 극복하는 영어 교육과정 만들기



최 한 올

서울 당산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에서 공식적인 영어교육은 3학년 때부터 시작된다. 때문에 초등 3학년 영어 교육과정은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초등학교 영어교실에는 매우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들이 모여 있다. 선행학습, 여러 가지 학습자 요인 등으로 인해 같은 3학년임에도 출발 수준이 다른 것이다. 본교의 경우 이러한 영어 수준의 차는 고학년 때까지도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공식적인 영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 3-6학년 교실에는 원어민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이부터 알파벳을 읽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아이들까지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학생들의 개인차'를 다루는 문제이다. 특히 영어는 어떤 과목보다도 학생별 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영어수업을 위해서는 아이들 모두가 의미 있게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에서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를 아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초등 영어 교육과정에서는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을 촉진자(facilitator)로 표현하고 있다. 초등 영어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가 바람직한 촉진자가 된다는 것은

학습자 개인의 학습 동기를 자극하고, 앞으로 영어 학습을 위한 바람직한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즉 교사는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를 아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본교에서는 '다수준의 아이들 모두에게 유의미한 영어 학습'이라는 기치아래 다음과 같이 영어수업과 학교생활을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 수업 내에서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 아우르기

• 개별 학습자의 신경망 활성화 - '3분 상상하기'

영어는 외국어이기 이전에 '언어'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영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으로 영어를 사용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영어 학습동기를 효과적으로 유발하는 일은 앞으로의 꾸준한 영어 학습에 초석 역할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 모두가 효과적으로 개인의 학습동기를 활성화시킬까에 대

한 고민을 하였고, '3분 상상하기' 활동을 고안하였다. 이것은 수업 초반의 3분 동안 모든 아이들이 눈을 감고 미래의 어느 날 외국인과 자신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즐거운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려보는 것이다. 이 때 아이들의 상상을 돕기 위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물(유명한 축구선수나 연예인, 정치인 등)을 상대로 떠올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면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미래의 어느 날 자신이 외국인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모든 수준의 학습자에게 '영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진작시킬 뿐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아이들이 영어공부를 하는 목적을 '의사소통에 두기보다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것 등 그 외의 것에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3분 상상하기 활동은 영어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줄 뿐 아니라 각 학습자 모두에게 의미를 갖는 활동이 될 수 있다.

• '문자학습'에서 '소리학습'으로 - '소리로 학습하는 영어'

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쳐보면 많은 아이들이 영어를 문자로 학습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리로 영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와 문장을 머릿속에서 철자의 형태로 암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습 경향은 상 수준 아이들에게 교과서의 단어와 문장은 '이미 아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뿐 아니라 하 수준 아이들에게는 '영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본교에서는 아이들이 문자로 영어를 학습하기보다는 언어의 본질이 의사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영어를 소리로 학습한다. 소리학습의 첫 번째 형태는 단어 익히기이다. 단어학습을 문자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이 녹음한 단어파일을 학교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학생들이 이 파일을 들으면서 소리로 단어를 학습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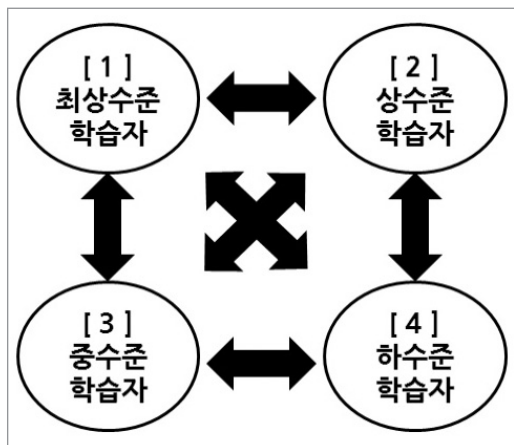
학습점검은 원어민 교사가 읽어 주는 단어의 발음을 듣고 그 단어를 이해하는 정도에 대해 파악한다. 이 방식은 문자와 쓰기에 익숙한 아이들의 단어 학습 방식을 소리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에게도 꽤나 도전적인 학습이 된다. 아이들이 소리보다 문자 쓰기에 익숙해져 있고, '실제 발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로는 이미 알고 있는 단어라도 '실제 소리'를 들려주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리 학습의 또 다른 방식은 문장을 소리로 모사하는 것이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아이들 수준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한다. 그리고 각 장면을 5-10문장 단위로 잘라 작은 파일을 만든다. 아이들은 스크립트(Script)와 해석이 없이 일주일 동안 이 파일 안의 문장들을 들리는 대로 계속 반복해서 모사한다. 아이들이 파일의 외국인과 같이 문장을 모사할 수 있게 되면 문장을 글로 보고 그 의미를 함께 공부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학습방식이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활동의 초기에는 아이들이 어렵게 느낀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진행하면 문자로 영어를 학습하는 것보다 덜 지루하게 느끼고, 학습효과 또한 크다.

하 수준 아이들은 영어 단어와 문장이 의미 없는 문자의 나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문장을 기억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런데 소리로 따라하고 연습하는 활동을 하면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를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들리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학습에 임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소리로 먼저 학습하고 의미를 이해하면 읽기, 쓰기 활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상 수준 아이들은 자신이 문자 형태로 알고 있는 것을 소리 형태로 재학습하면서 아는 것과 의사소통 하는 것의 간극을 깨달으면서 도전적인 과제로 인식하게 된다.

• 함께 학습하는 분위기 형성

영어 교육과정에는 짝을 활용한 발화 연습이 많다. 이때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로 모둠과 짝을 구성하다면 서로 돕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본교 영어수업 시



〈그림 1〉 다수준 모둠

간에는 [그림1]과 같이 다 수준의 아이들 4명이 모여 1 모둠을 구성하며 한 아이는 총 3명의 짝을 갖게 된다. [1]-[2]는 어깨짝이며, [1]-[3]은 얼굴짝, [1]-[4]는 대각선짝이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상 수준의 학생이 하 수준의 학생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며, 어깨짝, 얼굴짝, 대각선짝 등을 돌아가면서 활용해 수준을 다양화시키고 도움을 주는 역할과 받는 역할의 유동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이처럼 서로 간에 도움을 주는 환경 구성은 한 교실 내의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가 서로 간에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 이때, 최상 수준 학생들은 교사가 적절한 순간에 자극을 주고, 격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 수준 학습자와 하 수준 학습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교육과정 기준에서 종종 최하나 최상 수준 학생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교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수업 장면에서 모두에게 의미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수업이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로 진행될 때, 하 수준 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때문에 종종 영어 수업 자체에 완전히 흥미를 잃거나 말하기 자체를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고,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발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학습지’를 활용할 수 있다. 도움학습지는 각 단원의 핵심 문장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으로 하 수준의 아이들이 수업 중에 발표를 하거나 각종 활동을 할 때 이것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에 상 수준의 학습자는 영어 교육과정의 내용이 너무 쉽기 때문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중에는 “선생님, 저는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너무 쉬워요.”하며 학교에서 영어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 아이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효과적으로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도우미 활동이다. 교사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통역을 담당하거나 또래 교사가 되어 하 수준의 아이들의 영어를 돕도록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최상 수준의 아이들에게는 매 단원학습의 마지막에 간단한 글쓰기를 권장한다. 교육과정의 내용보다 심화된 수준의 문장들을 예시로 주고, 그 문장들을 보기삼아 자유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한 후 원어인 교사의 피드백으로 영어 학습을 점검해 보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은 최상 수준 아이들에게 영어 실력 향상과 더불어 긍정적인 자극으로 작용한다.

■ 영어 학습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과정

• 런치 클래스를 통한 심화 보충학습

본교는 교내 중점 실천과제로 ‘생활 중심의 영어 교

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영어체험학습센터와 연계해 학생들의 영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영어체험학습센터는 본교의 부지를 빌려 영등포구에 위탁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영등포구 관내의 초·중·고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영어 학습을 위한 것이다. 본교에서 영어체험 학습센터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대표적인 교육과정은 '런치 클래스(Lunch Class)'이다. 런치 클래스는 3~6학년 학생들이 학기 당 5회씩(일주일 연속 수업) 영어 교사의 임장 아래, 센터 소속 원어민과 함께 학습하는 것이다. 센터에는 원어민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교 영어교사들과 센터 원어민 교사들은 사전에 런치 클래스의 수업계획에 관해 협의를 한다. 이 때 수업은 영어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교과서를 벗어나 좀 더 유연한 학습주제와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계획한다.


아이들은 학습 수준과 학습 스타일에 따라 3그룹으로 분반되어, 각자 수준에 맞는 반에서 일주일간의 수업을 받게 된다. 센터 수업에 대한 아이들의 만족도는 꽤 높다. 우선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보충·심화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상 수준의 아이들은 원어민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늘리게 되고, 하 수준의 아이들은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하게 된다. 특히 초등 영어 교육과정의 내용과 기준은 준용 하되 교과서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구성된 수업계획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생활영어 인증제

생활영어 인증제는 3~6학년을 대상으로 '모든 아이들이 그 학년에서 배워야 할 기초적인 영어 표현은 모두 배우고 진급하자.'라는 목표아래 실시되고 있는 활동이다. 3학년(4레벨)에서 시작해 6학년(1레벨)까지 인증서를 받게 되면, 학생들은 4개의 레벨 모두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각 레벨은 '각 학년 영어 교육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년 영어 교육과정 의 가장 기초적인 성취수준을 모든 아이들이 달성하는 데 있다. 인증 방식 또한 문장 암기 방식이 아닌 의사소통 방식으로, 유의미한 맥락에서 아이들이 해당 문장을 바르게 사용할 경우 학습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한다.

■ 마치며

교육과정은 특정 학습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습자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수업도 특정 수준의 학습자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어 수업이 모든 학습자들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를 배려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이얼로그(Dialog) 듣기 - 표현 이해하기 - 연습하기'의 친편일률적인 영어 학습이 되지 않도록 교사는 끊임없이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을 수업 내에서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교과서의 내용 그 자체가 수업의 주가 될 때 수업은 '누군가'만을 위한 것이 되지만,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맞게 재구성될 때 수업은 '모두'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필자소개

국가 및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현장교육을 풍요롭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담임교사 행정업무 제로화를 통한 학생중심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경영 사례



김 동 래

인천 산곡남초등학교 교장

1. 들어가며

사회 변화에 따라 학교의 역할과 기능 변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학교에 기대하는 직무의 성격과 종류가 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다.

교사의 직무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교사의 직무를 필수 업무, 보조업무, 잡무로 구분하고 있다. 필수 업무는 교사의 본질적인 의무로 간주되는 교수 활동,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생활지도 등을 의미하며, 필수 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보조 업무, 그리고 필수 업무와 보조 업무 이외의 업무를 잡무로 구분하고 있다.

교사의 업무는 단순한 지식 전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시키고 적재적소에 맞는 창의적인 인간으로 길러야 하는 복잡성과 다중성을 가지고 있다. 미래사회는 단순 지식뿐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과 주입식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 · 인성교육으로의 대전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교육에서 보다 내실 있는 창의 · 인성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어떤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더구나 요즘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언급할 때의 흔한 화두인 ‘공교육의 위기’라는 말과 함께 세트처럼 따라오는 말들이 『학교폭력』, 『사교육비 증가』, 『학습부진』라는 문제들이다. 필자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을까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 Zero』, 『사교육비 Zero』, 『학습부진 Zero』를 위한 해답의 열쇠를 ‘교사’에게서 찾기로 했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교사이고, 교사는 학교교육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교사가 곧 교육환경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효과적인 학습과 업무처리의 자동화로 교사 업무를 감축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ICT와 정보화는 오히려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담임교사와 학생 간의 눈 맞춤이 줄어들게 하고 있다.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의 일정과 보고해야 할 공문을 살펴보기 위해 모니터에 집중하느라 입실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눈을 마주 칠 여유가 없다. 네트워크의 발달로 교육지원청 등으로부터 수시로 메신저가 오고 쉬는 시간에는 급한 결재를 받으러 교장실에 다녀오는 일도 흔히 있다. 교

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수록, 바쁠수록 담임교사의 빈자리가 가장 먼저 반영되는 대상이 바로 학생들이다. 학생의 표정과 언행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그 학생의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장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념하기 어려운 직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업무 부담과 불필요한 잡무들은 교사들을 수업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들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심층적인 관찰과 개별 상담시간 부족으로 학생생활지도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있다.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운영체계의 구축은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담임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 학교 업무조직의 재설계, 학교 업무처리 시스템의 혁신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행정업무에 대한 분석과 교사 면담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답을 얻게 되었다.

담임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이 아닌 Zero화를 통해 수업 우선의 학교문화를 정착하고, 『업무 중심』의 학교에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로 전환하여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II. 담임교사 행정업무 Zero화 추진

1. 학교 실태 분석

인천산곡남초등학교는 대도시 구도심권에 위치하며 31학급(특수학급 2 포함)으로 교직원 분위기가 상호협조적이며 교원 40명, 일반직 4명, 회계직 22명(조리종사원 포함)으로 구성된 인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역 사회적 특징은 학교 주변에 교육관련 시설과 문화시설이 부족한 편이고, 군소 학원들이 학교에서

떨어진 대로변에 밀집하여 사교육이 성행하기 좋은 지리적 여건과 주로 서민형 빌라와 연립주택 및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어 주거환경이 다소 낙후된 지역으로 전출입 학생 또한 많은 편이다.

학부모들은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으로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과 더불어 기본적인 보살핌이나 가정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편이라 방과후 사교육으로 연장되고, 이러한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며 가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담임교사가 채워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학생들은 공동체 의식과 주체 의식이 미흡한 편이고 사교육의 영향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다. 대부분의 학생이 주지교과에 대한 기초학력 및 기본학습능력은 있으나 학생 개개인의 경험, 문화, 학력수준의 편차가 있어 맞춤식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충실한 교실 수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결손 가정이나 문제 행동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담임교사의 철저한 관심과 관리가 절실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2. 운영과정

(1) 공감대 형성 및 협의를 통해 단계적인 절차로 추진

학교장으로 부임한 2011학년도 3월부터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으나 전교직원의 공감대 형성이 없이 시도하는 것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태 파악, 필요성 인식 및 공감대 형성, 단계적인 협의 과정으로 3개월이라는 준비 기간을 거쳤다.

처음에 『담임교사 행정 업무 Zero화』를 위해 담임교사의 행정업무를 회수하여 업무분장을 재편성하겠다는 뜻을 제시하자 반발하는 여론이 다소 있었으나 충분히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회계직의 경우 일반 교사들이 하던 행정업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으므로 실무적인 워크숍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갔고, 업무의 반복을 통해 익힌 프로세스를 인지함으로써 능숙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회계직에게 업무를 부여할 때에도 관련 부서와의 연계성에 따라 분담하였다. 즉, 과학실무원에게는 과학영재부의 업무로 과학 기자재 및 학습준비물 업무를, 사서실무원에게는 학력관리부의 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업무를, 돌봄전담교사에게는 돌봄교실 업무를 부여하였다.

계원들이 하던 업무를 추가하게 된 업무부장들에게 업무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계획서 작성 시 형식적인 부분을 줄이고 개조식으로 간소화 하였고, 메신저 및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대면 온라인 결재로 면대면 결재에서 오는 불필요한 동선을 축소하는 등 전자문서 시스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였다.

(2) 관례적인 학교업무의 혁신적인 개선 시도

학교 업무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1학년도 6월부터 지금까지의 관례적인 학년부장제를 폐지하여 학년업무 담당제로 전환하고 업무부장 중심의 혁신적인 업무 개선을 시도하였다. 즉 담임교사가 수업과 학급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던 행정 업무를 모두 회수하였다. 담임교사들로부터 회수한 업무는 교장, 교감, 업무부장교사, 교과전담교사, 회계직(교무행정실무원, 사서실무원, 돌봄전담교사, 특수교육실무원, 과학실무원, 상담사, 영어회화전문 강사, 스포츠 강사 등)의 동력을 이용하여 재배치하였다.

업무부서 또한 시대 흐름에 맞게 전문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창의적인 명칭으로 10개 부서로 편성하였고, 회계직들이 업무 보조 인력으로 충원됨으로써 업무부장의 업무 부담 또한 적절히 해소되었다.

업무추진의 유연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많은 장

점이 있었다. 기존에는 한 부서의 업무를 부장 이하 여러 명의 계원을 두고 운영하다보니 매 업무마다 결재라인이 계-부장-교감-교장의 4단계였지만 부서 업무 전체를 부장교사가 총괄하게 되어 결재라인의 단축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업무 부장이 부서의 전체적인 성격과 맥락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파악하여 관행적인 행사의 폐지 및 간소화 등 업무부장 선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서에 산을 포함한 핵심사안 이외의 권한은 업무부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최소화 하였다.

(3) 교내인사 시기의 조정과 준비기간 운영으로 업무 과중 현상 해소

2012년 12월 말에 2013학년도 교내인사를 단행하여 방학기간을 통해 여유있게 새 학년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학기 초에 업무가 과중되는 현상을 해소 하였다.

또한 연간업무계획과 1학기 사업계획을 2월중에 일괄 결재하여 바쁜 학기중에 매번 사업별 업무계획을 결재 받는 횟수를 일원화하였고 10개부서의 업무부장 중 3개부서의 업무부장을 전담교사로 배치하여 수업 시수의 조정을 통한 업무부장의 업무과중 현상을 해소 하였다.

(4) 『학급경영 책임관제』운영

행정업무가 없어진 담임교사는 모든 에너지를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게 하였다. 『학급경영 책임관』인 담임교사 개개인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여 학습부진과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임교사가 철저하게 학급경영과 수업에만 전념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등교할 때부터 하교할 때까지 교실에 상주하며, 업무연락은 메신저와 인터넷을 활용하

고 학생들의 교과 및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담임교사의 비본질적인 업무처리의 해소로 확보된 시간은 학생 개개인의 특기·적성 지도는 물론 학습활동 모습, 학습지도 결과, 교우관계, 학교 및 학급행사 등을 실시간으로 학급홈페이지에 탑재하는데 할애하고 학부모와의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바람직한 학교로 발전하고 있다.

(5) 담임교사 행정업무 Zero화 이후의 성과

담임교사들의 행정업무가 회수된 후 여러 방면에서 성과가 드러났다. 학기 초부터 모든 학생들과 개별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파악하여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방과 후에 주로 업무처리에 소비되던 시간이 학생들 지도시간으로 확보됨으로써 학습부진이 보이는 학생들을 동학년에서 교과별로 맡아 지도함으로써 학습부진의 누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결손 보충에 충실할 수 있었다.

담임교사 행정업무 Zero화가 성공적이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교육부장관 학교표창, 인천 독서교육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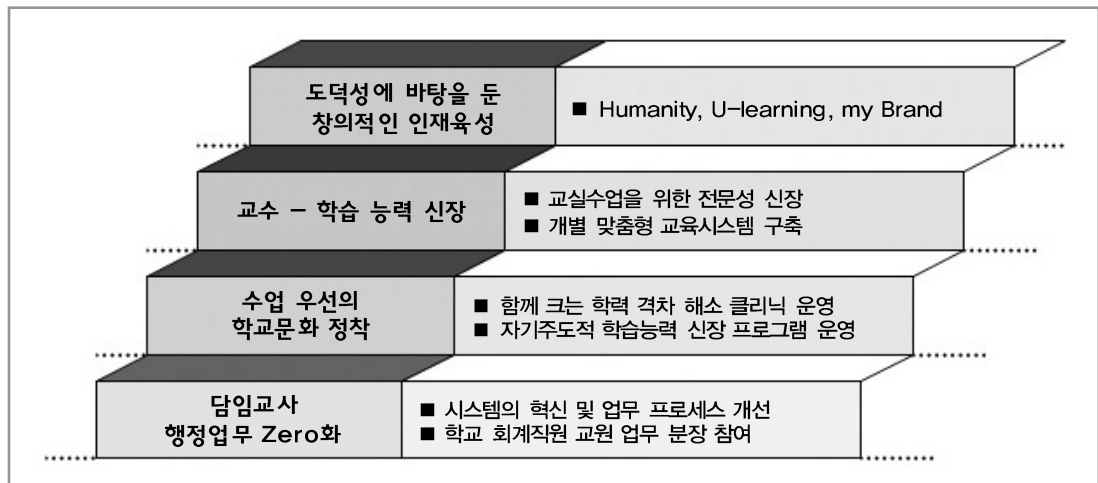
상, 학부모 만족도와 방과후학교 만족도 교육지원청 1위, 학력향상 우수학교 표창을 받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Zero화 되었다는 사실이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에 더욱 집중하여 학교폭력 사례도 줄었으며, 방과후학교(53개부) 학생 참여율이 높아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대폭 경감되었다. 한편 수업연구와 자기연찬을 위한 교원의 직무연수 이수시간도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III. 혁신적인 학교 경영의 실천으로 발전적인 확산 기대

학교장의 학교 경영은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특색있고 자율적인 교육과정계획을 수립하고 교직원들의 역량을 육성하고 활용하여 창의성 발현과 시너지를 배가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관습적인 업무시스템을 과감히 개선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시켜 나아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년 6개월에 걸친 사례에서 발전적인 성과를 보고 있듯이 앞으로도 수업우선의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도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별 매뉴얼을 개발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단위 업무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관행적인 행사를 최소화할 것이며, 부장교사와 회계직의 워크숍을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담임교사는 학기 초부터 안정된 분위기에서 학급을 운영해 나아갈 수 있도록 2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교재연구는 물론 학급경영 전반을 충분히 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실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내장학을 실시하고 있다.

주위에서는 인천산곡남초등학교의 변화를 다양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담임교사 행정업무 Zero화라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학교 경영의 첫걸음이 나비 효과처럼 다른 학교들에게도 시사점을 던지며 발전적으로 확산되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IV. 제언


본교의 사례가 학습부진 Zero, 학교폭력 Zero, 사교육비 경감에서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타교에 적용할 경우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현실화 시켜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본교에서는 업무를 분할하여 처리하지 않고 부서업무를 총괄하는 부장교사가 담당부서의 업무 전반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장교사는 업무의 경중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등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 및 잡무처리를 하는 행정실무사의 배치보다는 부장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여줄 수 있는 전

담교사나 기간제 교사의 증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담임교사의 행정업무 Zero화를 적용하려는 학교는 규모, 인적구성 현황, 업무 보조 가능 인력 등 단위학교의 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구안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처음에도 언급하였듯이 담임교사가 학급경영에 전념하기도 부족한 현실에 행정업무까지 가중되면 학급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다.

담임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완벽하게 Zero화하기가 어렵다면 최대한 업무를 경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본교의 사례처럼 현실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가시적인 업무경감을 위한 경감방안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발전적인 경감 방안이어야 할 것이며,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무리한 실행이 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

교육부 교과용도서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교원교육학회 현장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등 국어 교과서 내용의 적정화 방안

- 국어 교과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



김 주 환

인동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국어 교과는 지식 교과인가, 기능 교과인가?

교육내용의 특성으로 보면 지식을 중시하는 교과와 기능을 중시하는 교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학 교과의 경우는 지식이 중시되는 교과라고 할 수 있고 예체능 교과의 경우는 기능을 중시하는 교과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을 중시하는 교과에서는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지만 기능을 중시하는 교과에서는 학생들의 '수행 능력'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국어 교과는 '지식의 습득'이 중요한 교과일까 아니면 '수행 능력'이 중요한 교과일까?

국어 교과가 지식 교과라는 관점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을 <표현·이해>, <언어>, <문학> 세 영역으로 나누면서 배정 학문을 각각 수사학, 언어학, 문학으로 제시했다. 즉, 국어 교과는 수사론, 언어학, 문학 이론을 가르치는 교과이며 국어 교과의 내용은 이 세 가지 학문에서 선정되는 개념과 원리의 체계라는 것이다. 이른바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도입된 세 가지 학문의 체계는 이후 국어과 교육과정

편성의 근간이 되었다.

국어 교과가 기능 교과라는 관점은 제5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 교육을 문학, 언어, 작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가 아니라 학생들의 언어적 성장을 돕는 과정이라고 보고 언어 사용 기능 신장을 국어교육의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이전의 제4차 교육과정이 문법적 지식이나 장르적 지식을 가르치는 데 치중함으로써 실생활에 필요한 학생들의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영역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여섯 영역으로 나누고 그동안 교과서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말하기, 듣기, 쓰기 등의 교육내용을 교과서의 단원으로 편성하였다.

국어 교과의 성격을 밝혀 놓은 공식 문서가 국어과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어과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국어 교과가 지식 교과인지 기능 교과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교과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항목으로 나열하고 있다.

〈표 1〉 국어 교과 교육내용

		타교사	국어교사	일반인		Chisq
1. 지식	빈도	12	11	19	42	7.140a
	백분율	8.6%	9.2%	15.1%	10.9%	6
2. 능력(기능)	빈도	91	70	77	238	.308
	백분율	65.0%	58.3%	61.1%	61.7%	
3. 태도	빈도	34	38	27	99	
	백분율	24.3%	31.7%	21.4%	25.6%	
4. 기타	빈도	3	1	3	7	
	백분율	2.1%	8%	2.4%	1.8%	
빈도		140	120	126	386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

나.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다.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하는 태도를 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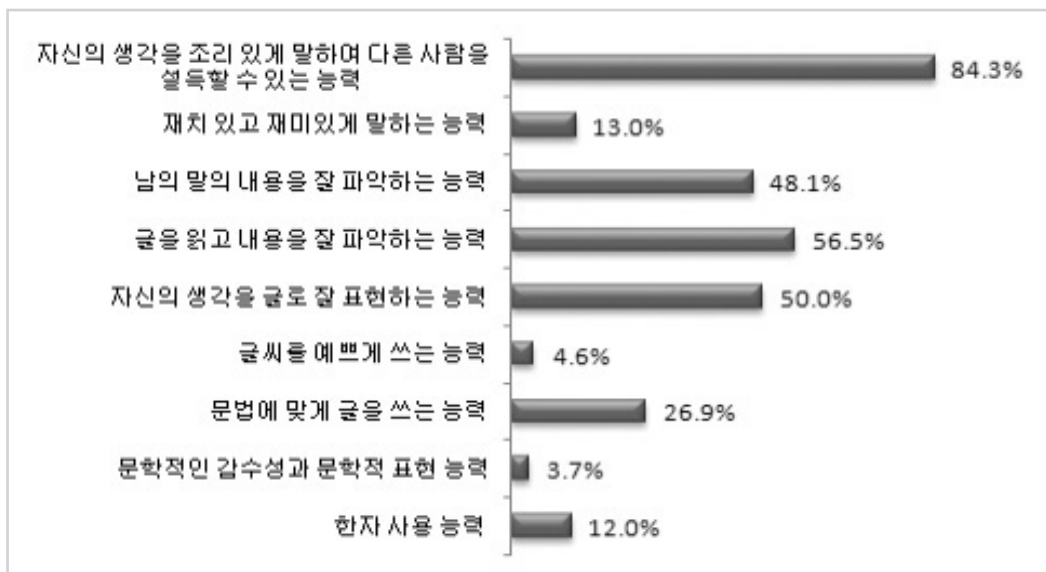
세부 목표의 진술에서는 지식, 기능, 태도 세 가지 항목을 차례대로 나열하고 있을 뿐 이들 서로 간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세 가지 항목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목표 진

술만을 보면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면 국어 교과는 기능 교과가 아니라 지식 교과일까?

2 국어 교과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무엇인가?

국어과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국어 교과가 어떤 교과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 목표가 이렇게 모호하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을 수행하기

〈표 2〉 학교 국어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국어 능력



어렵다. 국어과 교육 목표의 진술은 국어 교과를 형성하는 하위 영역간의 특성과 결부되면서 국어 교과적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어 교과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어떠한가?

국어과 교육과정이 학문 공동체의 논리에 침식당해 모호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반면에 국어 교과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대체로 명확하다. 사회적 요구 조사(김주환, 2011)의 결과를 보면 국어 교사나 일반인, 타교과 교사 등 모든 집단에서 '표현과 이해 능력(기능)의 습득'을 가장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지식보다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국어 교과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순서와는 시뉘트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다른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윤준채 외, 2009)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여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남의 글을 읽고 내용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다. 결국 학교 국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이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핵심 능력이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도 기초적인 문식 능력 향상을 국어 교과의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이순영, 2011).

3. 현재 국어 교과서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다면 현재 국어 교과서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올해부터 적용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분석해 보았다. 이 교과서

는 학년군제를 적용한 교과서로 중학교 과정 전체가 개발 보급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국어1』, 『국어2』 교과서이다. 모두 16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지만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단원을 편성한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C출판사의 『국어1』, 『국어2』 교과서의 편성 체계를 분석해 보았다.

C출판사의 『국어1』은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어2』는 5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대단원은 소단원 2-3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소단원의 수는 모두 24개이다. 정규 교육시간을 계산해 보면 대체로 1주에 최소한 한 개의 소단원을 학습해야 한다.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면 이러한 단위 구성은 그리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언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배정된 시간 안에 활동을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다.

소단원의 편성 내용을 보면 5개 영역 중에서 문법, 문학 영역의 소단원 수가 가장 많다.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영역의 경우는 성취기준별로 하나의 소단원을 편성했지만 〈문법〉, 〈문학〉 영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성취 기준을 가지고 두 개 혹은 세 개의 소단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법〉 영역의 '음운의 이해'는 두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했지만 〈말하기·듣기〉 영역의 '소개하기 활동'은 하나의 소단원으로 구성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소개하기와 같은 언어활동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지식 단원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본문에 사용된 텍스트의 유형에서도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정보 텍스트는 짧은 글을 포함해서 모두 5편이지만 문학 텍스트는 시, 소설, 수필, 드라마, 비평글을 포함해서 모두 9편이다. 그 외에는 담화 텍스트가 2편, 만화 텍스트가 1편이 선정되었다. 담화 텍스트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학생들은 학습 활동에 사

〈표 3〉 C출판사의 『국어1』, 『국어2』

	내 용 영 역					계
영역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학교명
소단원 수	4	4	3	7	6	24

용된 조각글 두 편이 전부이다. 학생들의 실제적인 언어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빈약한 반면에 전통적인 문학 텍스트는 학습 활동에 반영된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그 비중이 매우 높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목표에서도 '담화의 수용과 생산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 내용은 대체로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다. 언어활동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보다 전통적인 지식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문법〉, 〈문학〉의 비중이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언어활동 영역에서도 실제적인 활동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절차적 지식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4. 마무리

국어 교과는 무엇을 가르치는 교과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찾는다면 국어 교과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가르치는 교과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담화의 수용과 생산 활동'이나 '국어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보다는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를 구성하는 요인을 흔히 학문과 학생, 사회 세 가지를 든다. 교과는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어 교과의 내용은 세 영역의 학문적 지식의 체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주체가 주로 세 영역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영역별 전문가들 간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김영란·성열관, 2007).

국어 교과가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교과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을 학문 영역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언어활동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교과의 경우도

하위 학문이 많지만 학문 영역이 아닌 사회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편성하고 있다. 국어 교과 또한 학문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국어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학생들의 언어생활을 개선하는 교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대행(2006), 「국어생활 · 국어문화 · 국어교육」, 『국어교육』 119호, 한국어교육학회.
- 김영란 · 성열관(2007),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특징 탐색 연구」, 『중등교육연구』 55집 3호,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 김주환(2010), 「국어과 교육과정의 통합성 연구」, 『새국어교육』 8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주환(2011), 「사회적 요구 조사를 통해 본 국어 교과의 정체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노명완(1997),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그 탐구 과제」, 『한국어학』 6권, 한국어학회.
- 윤준채 외(2009), 『한국인의 언어활동 조사 연구』, 2009-01-74, 국립국어원.
- 이대규(1995), 『국어 교과의 논리와 교육』, 교육과학사.
- 이순영(2011), 「21세기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탐색-미국의 공통핵심기준의 특성과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제43집, 청람어문교육연구회.

필자 소개

국어과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국어과 교과서검정심의위원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영국 학교 시민교육과 교재의 특징

- 우리도 어린 시민들을
훌륭한 시민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적 장치가 필요하다 -



김 원 태

모락고등학교 교사

1. 시민교육 교과목과 새 교육과정

영국은 사회과라는 교과가 존재하지 않고, 지리, 역사, 시민 교과가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된다. 영국의 교과목 중에서 우리나라 일반사회 교육 내용의 성격과 가장 가까운 것이 시민교육 교과이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역사와 지리 과목만으로는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시민을 육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이 1990년대 초부터 제기되어 10여년 간의 논란 끝에 초등학교(Primary school)에는 선택교과로, 중등학교(Secondary school) 필수 법정 교육과정으로 시민교육을 도입하여 2002년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1) 노동당의 집권과 학교 시민교육의 강조

영국에서 시민교육 교과목이 도입된 것은 영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관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보수당 집권 기간에는 영국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개인주의, 소비자 권리와 개인적 소유권, 시민적 의무감 등이 중시되었다. 1997년 총선에서 '교육, 교육, 교육(Education, Education, Education)'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노동당이 집권함으로써 이런 기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노동당 정권은 공동체주의에 토대를 둔 시민적 도덕성(Civic Morality)과 시민 공화주의 사상(Civic Republicanism)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고, 국가와 파트너십을 가진 개인의 시민적 책무성, 타인의 요구와 관점에 대한 배려,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교육의 강화를 고려하였다. 이런 시민 공화주의 사상에 대한 부활은 영국의 군주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1997년 노동당 정부 이전까지 의도적으로 배제되어오기도 한 철학이다. 그러나 21세기 신시민공화주의의 부활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방임하였던 정치참여, 개인의 책임과 의무,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1997년 대선에서 드러난 사상 최저의 투표율과 급증하는 청소년 문제, 다문화

주의는 영국 사회에 다시 한번 결속하고 통합해야 할 계기와 이유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노동당의 시민교육 교과 도입이었던 것이다. 또한 영국이 대영제국으로서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기는 했지만 그것을 위한 전쟁에서의 승리감 부재 그리고 무혈 혁명 같은 역사적인 배경이 영국 시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위해 유럽의 다른 나라들처럼 투쟁하고 싸우거나 새로운 정치제도나 사회적 이슈들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게 만드는 시민교육이 부재하다는 사실에 대해 둔감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 시민교육의 3대 요소 - 사회·도덕적 책임성, 공동체 참여, 정치적 문해력

위와 같은 배경 하에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1997년 버날드 크릭 교수를 중심으로 교육기술부(DfES)안에 '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시민교육자문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민성의 정의, 학교에서 효율적인 시민교육 방안 모색이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시민성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 정의를 그 시대의 정신과 관심을 반영하여 시민교육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시민교육의 도입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이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시민교육의 개념과 목적, 방향과 방법 등에 관한 지침서가 소개되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영국의 교육기술부가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철학적 바탕이 되었다.

크릭 리포트라 불리는 이 지침서(Crick Report: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of democracy in schools)는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가 반드시 포함해야 할 시민교육의 3대 요소를 사회·도덕적 책임성(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y), 공동체 참여(community involvement), 정치적 문해력(political literacy)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3대 요소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정치 문해' (Political Literacy)에 관한 것인데, 크릭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문해력'은 단순히 정치적인 지식

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사회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와 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므로 영국의 시민교육은 무엇보다 '정치문해' 교육과 실천에 필요한 민주적인 지식과 실천 기술, 관용, 이해, 존중 등과 같은 덕목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의 대표 작성자였던 정치학자 버날드 크릭은 민주주의에 대한 계몽서를 작성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그저 칭찬해야 할 지상 최고의 가치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권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그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는 시민의 자질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교육은 그것을 위한 시민적 능력의 육성을 그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2 시민교육 교육과정과 교재

(1) '시민교육 교과목의 목표와 내용 체계

영국의 중등학교에서 '시민교육(civic education)' 교과는 11-16세를 위한 법정 교과이다. 법정 요건은 국가 교육과정 학습 프로그램(National Curriculum programmes of study)에 첫째, 교양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지식과 이해, 둘째, 탐구 및 의사소통 기술 기르기, 셋째, 참여 및 책임감 있는 행동 기술 기르기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기술되어 있다. 영국 시민교육은 '시민됨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citizenship)'이다. 다시 말해서 능동적이고, 교양 있으며,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교육이다.

이를 핵심단계(key stage)별로 나누어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 과정(key stage 3)의 시민교육의 목표는

- 정치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문화적 쟁점, 문제와 사건에 대하여 고려한다.
- 일상생활과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는 법적·정치적·종교적·사회적·경제적 제도와 체계의 역할을 확인한다.
- 학교, 이웃, 보다 넓은 커뮤니티에서의 삶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책임감 있게 일을 수행한다.
- 학교·지방·국가·세계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배운다.

고등학교 과정(key stage 4) 시민교육의 목표는

- 주제별로 정치적·도덕적·사회적·문화적 쟁점·문제·사건을 학습하고, 사고하며 토론한다.

- 자신의 삶과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정치적·종교적·사회적·입헌적 체계의 작동 과정과 영향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게 관찰한다.
- 자신의 학교·이웃과 보다 넓은 커뮤니티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며, 비판적 인지와 평가 기능을 갖는다.
- 학교·지방·국가·세계 수준에서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공정·사회정의·존중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익히도록 한다.

다음의 <표-1>은 영국 중학교 단계(key stage3, 핵심단계) 시민교육 내용이다. 이는 국가 교육과정 학습 프로그램(National Curriculum programmes of study)에 소개된 자료를 번역한 것이다. (<http://www.standards.dfes.gov.uk/> 참조)

<표-1> 영국 중학교의 시민교육 내용 체계

교양이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지식과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법적 권리, 인간적 권리,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책임감, 주요 법 체제의 기본 측면 등이 젊은 사람들과의 관련성 b. 영국에서의 국가적, 지역적, 종교적, 인종적 정체감의 다양성과 상호 존중과 이해의 필요성 c.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와 어떻게 그들이 재정을 처리하는지 이해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d. 의회제도와 다른 정부 형태의 주요 특징 e. 선거체제와 투표의 중요성 f. 국가적, 국제적 자원 집단인 지역 사회의 업무 g.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 h. 사회에서의 매체의 중요성 i.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의미와 EU·영연방·UN의 역할
탐구와 의사소통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정보와 ICT기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주제별 정치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문화적 쟁점, 문제, 사건에 대하여 사고하기 b. 그와 같은 쟁점, 문제, 사건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구두나 글로써 표현하고 정당화하기 c. 탐구를 위한 집단 수업에 기여하고, 토론에서 일부 역할 수행하기
참여와 책임감 있는 행위를 위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생각하는데 그들의 상상력을 이용하고, 이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b. 학교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활동에서 책임감 있게 협상하고, 결정하고, 결정사항의 일부를 수행하기 c. 참여의 과정 고찰하기

(2) 중학교 '시민교육 교과 내용과 학습 활동 내용

다음 <표-2>는 영국의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 DfES)가 시민교육 홈페이지인 시민교육 학습방안(Schemes of work)을 개설하여,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는데 중학교 '시민교육' 교과의 학습 방안을 간단히 소개한 것이다. 영국은 이처럼 학습방안(학습지침)을 제시할 뿐 프랑스나 독일

처럼 국가 전체에 통용되는 교과서는 만들지 않고 있으며, 교재 구성권을 교사에게 주어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런 시민교육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간단한 학생용 단행본(Citizenship in Focus)들이 발행되고 있는데, 인권(Human Rights), 세계적인 문제(Global Concerns), 미디어 문제(Media Matters), 시민과 법(The Citizen and the Law), 실천하는 민주주의(Democracy in Action) 등이 있다.

<표-2> 영국 중학교(key stage3) '시민교육(Citizenship)' 교과의 학습방안 내용

학년	단원	단원명	수업 주제 *	비고
7	1	도입단원 : 시민교육 - 무엇에 관한 것인가?		
7-9	3	인권	1. 나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인가? 2. 인권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3. 인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	2~9 단원은 시민교육과 별도 교과 단원이거나 다른 과목과 연계될 수 있음
7-9	4	영국- 다양성의 사회?		
7-9	6	정부, 선거와 투표	1. 언제, 어떻게 우리는 선거를 하나? 2. 선거 캠페인은 어떻게 조직되나? 3. 선거에 참여하기 4. 의회는 어떻게 작동하나? 의회의 다른 형태는? 5. 정부는 어떻게 예산을 지출하나?	
7-9	7	지역 민주주의		
7-9	9	사회에서 대중매체의 중요성	1. 무엇이 새로운 뉴스거리를 만드나? 2. 주장이나 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미디어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 3. 유명인은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있는가?	
7-9	10	시민교육과 지리 : 세계화 문제에 대한 토론		다른 과목을 통해서 실시되거나 별도 시민교육으로 다룰 수 있는 단원임
7-9	11	시민교육과 역사 : 오늘날 세계평화 유지는 왜 어려운가?		
7-9	12	시민교육과 역사 : 왜 영국에서 여성과 일부 남성은 투표권을 얻기 위해 투쟁해야 했나? 오늘날 투표의 중요성은?		
7-9	13	시민교육과 종교교육 : 우리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가?		
7-9	14	민주적 참여의 기술 개발	1. 모임은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2. 학교에서 나는 어떻게 대표가 될 수 있는가? 3. 우리는 어떻게 의사 소통 기술을 증진할 수 있는가?	보다 넓은 교과 과정이나 수업 외 일정을 통해 실시할 수 있는 단원임
7-9	15	범죄와 안전에 대한 인식- 학교 전체의 다양한 기구들에 대한 접근		
7-9	16	인권의 기념- 전교적인 시민교육 활동		
7-9	20	공익이란 무엇인가?	1.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2.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관점이 있는가? 왜? 3.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4. 우리는 어떻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시민교육과 과학의 연계 학습 단원임
7-9	21	사람과 환경		

* 수업주제는 연구자의 관심 영역만을 번역함. (출처 : <http://www.standards.dfes.gov.uk/>) 위의 내용 중 6단원 정부, 선거와 투표 단원에 대한 교육기술부의 학습 지침을 간단히 소개한다.

〈표-2〉의 6단원 1과. 언제, 어떻게 우리는 선거를 하나?에서는 가능한 학습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사람들의 다양한 투표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에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우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들의 예시를 이용한다. 특정한 목적에 따라 특정한 투표방법이 사용됨을 알게 한다. 가령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승자를 가려 내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비용과 시간을 들인 비밀 투표를 하는 것은 각각 옳은 일인가? 선거와 여론 수렴에 있어서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
- 학생들이 다른 형태의 선거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조사하게 한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더 공정하거나 아니면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논의한다. 각각의 선거제도가 왜 공정한지 무엇이 공정성을 유지하게 만드는지 설명하고 토론하게 한다.

6단원 2과. 선거 캠페인은 어떻게 조직되나?에서는 가능한 학습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학생들이 정치 캠페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각각의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자신들을 선전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들을 쓰는지 알아보게 한다.
- 특히 자신들의 강점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는 방법들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피게 한다.
- 지역방송과 전국방송은 어떻게 다른 선거캠페인을 하는지 비교하고 홍보용 자료나 방송자료들도 수집한 후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인지를 논의하게 한다.
- 또 왜 많은 정당들이 선거 캠페인과 광고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지, 어떻게 비슷비슷한 정당들을 가려낼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본다.
- 다른 방법으로는 학생들이 모의 선거를 해보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인이 되어서 선거와 캠페인에 참가하듯이 추천부터 공약 만들기, 후보 연설, 상대방 후보에 대한 반박 연설, 기자회견 등을 직접 해보도록 한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팀워크 함께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6단원 3과. 선거에 참여하기'에서 가능한 학습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세 명의 학생들에게 그동안 선거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어본다.
- 선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자신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물어볼 수도 있다.
- 만약에 학급선거에서 투표율이 과반수가 안 되었다면, 당선자가 어떻게 그 학급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한다.
- 대표자의 영향력이나 능력은 그 일을 수행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 만약에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
- 지방 선거, 전국 선거, 유럽연합 선거들의 투표율을 비교해본다. 왜 사람들은 총선거보다 유럽연합선거에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는 것일까?
- 선거 연령이 예를 들어 16세에서 14세로 낮추어진다면 자신들은 선거에 참여하겠는가? 만약에 투표를 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3) '시민교육' 교재 중 '미디어 문제(Media Matters)'의 내용

영국에서는 프랑스나 독일처럼 국가 전체에 통용되는 교과서는 없지만 교사에게 교재 구성권을 주어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런 시민교육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간단한 학생용 단행본들이 시리즈로 자유롭게 출간되고 있는데 그 책 제목들은 '인권(Human Rights)', '세계적 문제(Global Concerns)', '미디어 문제(Media Matters)', '시민과 법(The Citizen and the Law)', '실천하는 민주주의(Democracy in Action)' 등이다. 〈표-3〉은 위에서 소개한 시리즈 중 '미디어 문제(Media Matters)'라는 교재 단행본의 목차이다. 이 교재는 앞의 〈표-2〉의 9단원. 사회에서 대중매체의 중요성'이라는 단원의 수업에서 활용되는 교재라고 할 수 있다.

〈표-3〉 ‘미디어 문제’ 교재의 목차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미디어 문제(Citizenship in Focus – Media Matters)	Collins	2003	중·고교 검용
1. 미디어의 힘 2. 영국의 방송미디어 3. 영국의 인쇄매체 4. 누가 미디어를 소유하는가? 5. 누가 뉴스 의제를 결정하는가? 6. 정치가, 홍보활동과 미디어 7. 무엇이 기사를 보도가치가 있도록 만드는가? 8. 뉴스보도 : 진실하고 공정하고 정확한가?	9. 자유와 검열 10. 책임감 있는 언론? 11.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2. 광고의 힘 13. 인터넷의 성장 14. 인터넷의 문제점 15. 디지털 혁명 16. 세계를 통치하다-누가 세계적인 의제를 정하나?		

〈표-3〉의 교재 내용 중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질문이나 토론거리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당신은 공공 서비스 방송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BBC는 시청자의 다양한 욕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 공하는데 납세자의 돈을 쓰기 때문에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상업 텔레비전만 있다면 프로그램의 욕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이런 관점에 동의하는가?
- 왜 어떤 사람들은 미디어 조직을 인수하는 거대한 다국적 회사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는가? 당신이 볼 때, 당연히 두려워할 일인가?
- 왜 디즈니 같은 미디어그룹이 가게, 호텔, 크루저, 테마공원을 소유하기를 원하는가?
- 앞으로는 외국 미디어 회사가 영국의 상업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인수할 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이것이 ‘좋은’ 혹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 “모든 미디어 메시지는 만들어진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광고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잡지의 가격이 내려가도록 하고, 텔레비전 회사가 다양한 쇼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당신은 이 관점을 어디까지 동의하는가?
- 당신은 뉴스가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는가?
- 만약 신문이 진실이 아니라면,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정보 소스가 있는가?
- 신문이 사람들의 정치적 관점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적게 혹은 많이? 왜 그런지 말하라.

- 정치인들이 공보비서관을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 “홍보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은 거짓말로 득을 본다.” 당신은 이 관점에 동의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라.
- “텔레비전 채널은 시청률이 떨어지더라도 정치적 논쟁이나 정당 간의 논쟁을 보도하는 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 대해 토의해 보라.
- 미디어는 선거 무관심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정당정치 방송은 미국의 선거방송처럼 더 짧아져야 하는가?

3. 마치며

영국의 시민 교육내용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정치적 능력’ 교육이다. 이것은 크릭 교수가 일찍이 정치교육에 도입하자고 열심히 주창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요한 요소 중에 ‘사회적 도덕적 책임’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젊은이의 황폐’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을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영국의 시민 교육은 “청소년들을 훌륭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어린 시민들을 훌륭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적 장치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강영혜 외(2011),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 2011-09, 한국교육개발원
- 김원태 외(2006), 『주요 외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 김원태(2012), '유럽 학교 '시민교육' 교과 내용의 특징-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2012학년도 정기학술대회자료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장근영, 박수역(201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개발 연구 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필자 소개

현재 모락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전국사회교사모임 연구위원, 경기도교육청 시민교육
교과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랑하고 싶은
지은책으로는 '아름다운 참여'가 있다.





스웨덴의 의무학교 교육과정 문서 체제



이 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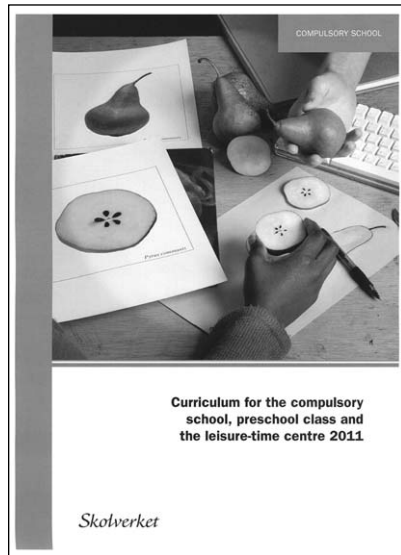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원

1. 교육과정 문서 보기의 의미

교육과정은 교육의 핵심으로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는 한 국가의 교육을 움직이는 엄청난 힘을 가진 문서이다. 이 교육과정 문서를 가지고 각 지역과 학교는 지역 또는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사들은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준비한다. 수업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는 교과서 역시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중요성만큼이나 교육과정 문서를 어떠한 체제로 제공할 것인가는 국가적 고민이 필요한 문제이다. 한 국가의 교육의 기초가 되는 문서인 만큼 이를 활용할 교사나, 학생, 학부모, 교육행정이 등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교육을 위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아 안내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초·중학교 의무교육기 교육과정을 개정한 스웨덴의 교육과정 문서를 활용성과 포괄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스웨덴 의무학교 교육과정 문서 체제

스웨덴의 학제는 크게 취학전교육기관(preschool, preschool class, other pedagogical activity)-의무학교(compulsory school, leisure-time center)-후기중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고등교육기관(adult



[그림 1] 스웨덴 의무학교 교육과정 문서 표지

education, supplementary school, folk high school, higher vocational education, university and university college)으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의무학교(9년, 6~8세에 입학)만 의무교육기간이지만, 지방 정부는 ①부모가 일 또는 공부를 하는 경우 ②부모가 직업이 없는 경우 ③부모가 부재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취학전교육(preschool)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학교급별로 나누어 세 가지로 제공된다. ①취학전교육과정(curriculum for the preschool), ②의무교육과정(curriculum for the compulsory school), ③후기중등교육과정(curriculum for the upper secondary school)이 그것이다.

270여 쪽으로 구성된 스웨덴 의무학교 교육과정 문서(2011년 개정판)의 체제는 <표 1>과 같다. 스웨덴의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전체 문서 안에 총론과 각론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번과 2번 항목이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3번의 교수요목(Syllabuses)이 각론(교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 표 1 > 스웨덴 의무학교 교육과정 문서 체제

<p>1. Fundamental values and tasks of the schoo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ndamental values - Understanding and compassion for others - Objectivity and open approaches - An equivalent education - Rights and obligation - Tasks of the school - Good environment for development and learning - Each school's development 	<p>1. 기본적인 가치와 학교의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가치 - 타인에 대한 이해와 동정 - 객관성과 개방적 접근 - 평등한 교육 - 권리와 의무 - 학교의 역할 - 발달과 학습을 위한 좋은 환경 - 각 학교의 발전
<p>2. Overall goals and guidelin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 Norms and values 2-2. Knowledge 2-3. Responsibility and influence of pupils 2-4. School and home 2-5. Transition and cooperation 2-6. The school and the surrounding world 2-7. Assessment and grade 2-8. Responsibility of the headteacher 	<p>2. 전체적 목표와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 기준과 가치 2-2. 지식 2-3. 학생의 책임과 영향 2-4. 학교와 가정 2-5. 이행과 협력 2-6. 학교와 주변 세계 2-7. 평가와 성적 2-8. 학교장의 책무성

3. Syllabu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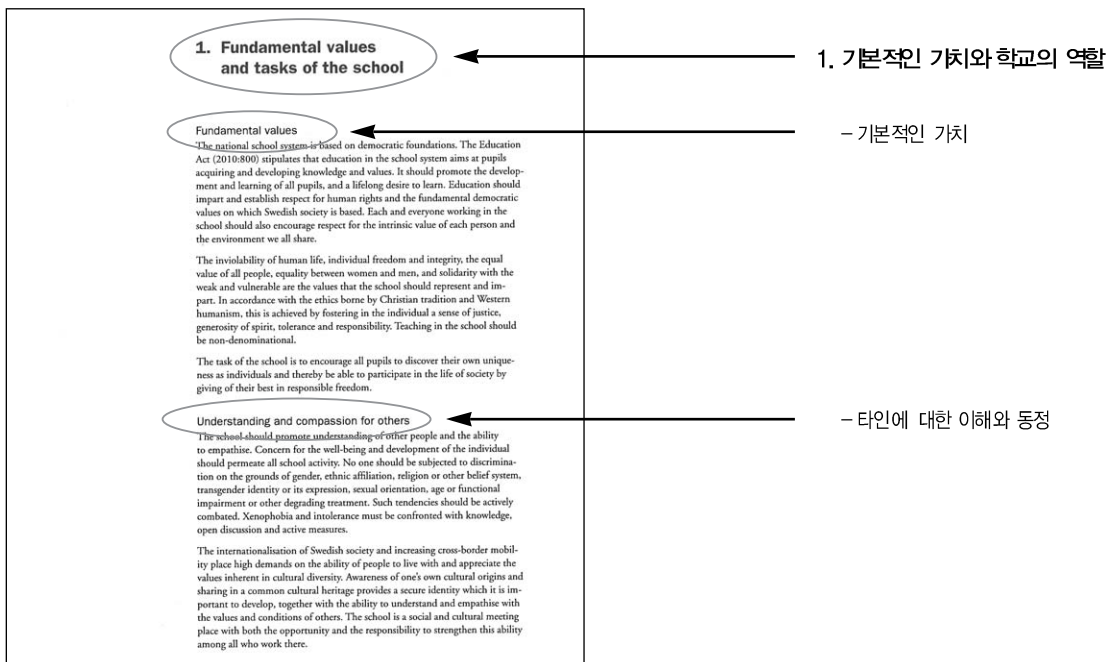
- 3-1. Art
- 3-2. English
- 3-3. Home and consumer studies
- 3-4. Physical education and health
- 3-5. Mathematics
- 3-6. Modern languages
- 3-7. Mother tongue tuition
- 3-8. Music
- 3-9. Biology
- 3-10. Physics
- 3-11. Chemistry
- 3-12. Geography
- 3-13. History
- 3-14. Religion
- 3-15. Civics
- 3-16. Craft
- 3-17. Swedish
- 3-18. Swedish as a second language
- 3-19. Sign language for the hearing
- 3-20. Technology

3. 교수요목

- 3-1. 예술
- 3-2. 영어
- 3-3. 가정과 소비자 학습
- 3-4. 체육과 건강
- 3-5. 수학
- 3-6. 현대 언어
- 3-7. 모국어
- 3-8. 음악
- 3-9. 생물
- 3-10. 물리
- 3-11. 화학
- 3-12. 지리
- 3-13. 역사
- 3-14. 종교
- 3-15. 시민교육
- 3-16. 공예
- 3-17. 스웨덴어
- 3-18. 제2외국어로서의 스웨덴어
- 3-19. 수화
- 3-20. 기술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 기본적인 가치와 학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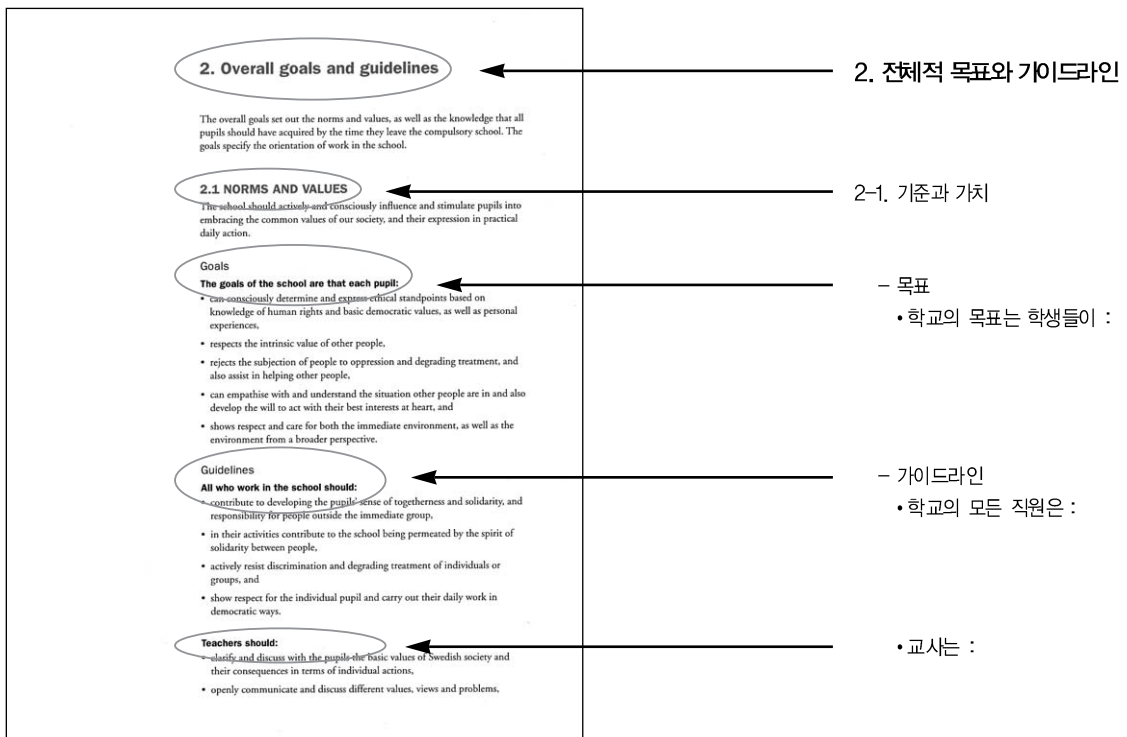
[그림 2] <1. 기본적인 가치와 학교의 역할>이 기술된 부분

1번 항목인 기본적인 가치와 학교의 역할은 ①기본적인 가치, ②타인에 대한 이해와 동정, ③객관성과 개방적 접근, ④평등한 교육, ⑤권리와 의무, ⑥학교의 역할, ⑦발달과 학습을 위한 좋은 환경, ⑧각 학교의 발전 등 8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여기에는 학교교육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기술되어 있다. 각 하위 항목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① 기본적인 가치 : 스웨덴 교육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기술된 부분으로 자유, 평등, 정의, 관용, 권리와 책임 등 민주적, 기독교적, 인본주의적 가치들이 추구되어야 할 가치로 기술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치를 학생들이 잘 체화하고 자신만의 독특함을 발견하여 사회적 삶에 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임이 명시되고 있다.
- ② 타인에 대한 이해와 동정 : 스웨덴 교육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 중 타인에 대한 이해와 동정 부분이 별도의 하위 항목으로 기술되어 있다. 즉 성, 나이, 인종, 민족, 종교 등에 따라 타인을 차별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학생들을 교육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화되어가는 환경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고유의 문화를 잘 이해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③ 객관성과 개방적 접근 : 학생들이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서로 다른 관점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가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④ 평등한 교육 : 여기서 제시되는 평등한 교육의 의미는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학생의 성, 흥미, 능력, 처한 환경, 필요 등에 부합하는 교육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학교의 의무이다.
- ⑤ 권리와 의무 : 학교는 학교 운영 및 행정의 과정(교육목표와 학생·학부모의 권리 및 의무 등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행위 등), 수업 및 평가의 과정 등을 통하여 학생이 민주적 가치인 권리와 의무를 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⑥ 학교의 역할 : 학교는 학생이 지식과 가치를 습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 속에서의 삶과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적 가치를 가르치고 학습을 촉진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개인적 성장을 촉진시켜야만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창의성, 호기심, 자신감 등을 자극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역사적 관점, 환경적 관점, 국제적인 관점, 윤리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다양한 교육방법과 내용의 조합을 통해 학생들의 조화로운 발달을 촉진해야 한다.
- ⑦ 발달과 학습을 위한 좋은 환경 :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습의지를 촉진하는 사회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성장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족을 경험하고 성장의 기쁨을 느끼며 발달하는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 ⑧ 각 학교의 발전 : 학교 활동은 국가적 목표와의 관련 속에서 조직되어야 하고 학교의 교육적 리더십과 교사의 전문적인 책무성은 학교 발전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다. 학교의 발전은 교직원과 학생, 가정,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2) '2. 전체적 목표와 가이드라인'



[그림 3] <2. 전체적 목표와 가이드라인>이 기술된 부분

2번 항목인 전체적 목표와 가이드라인은 ①기준과 가치, ②지식, ③학생의 책임과 영향, ④학교와 가정, ⑤이행과 협력, ⑥학교와 주변 세계, ⑦평가와 성적, ⑧학교장의 책무성 등 8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항목별로 목표와 가이드라인이 항목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기술되고 있다.

목표에서는 각 학생이 도달해야 하는 것(The goals of the school are that each pupil)을 기술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에서는 ①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해야만 하는 일(All who in the school should)과 ②교사가 해야만 하는 일(Teachers should)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항목별로 필요에 따라 모든 내용이 기술되기도 하고 일부 내용만 기술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번 항목의 첫 번째 하위 항목인 '기준과 가치'는 <표 2>와 같은 체제로 기술되어 있다.

〈 표 2 〉 '2-1. 기준과 가치'의 체제

2. 전체적 목표와 가이드라인

2-1. 기준과 가치

목표

학교의 목표는 학생들이 :

- 개인적 경험과 인본주의적 권리,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도덕적 관점을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타인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
•

가이드라인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은 :

- 학생들이 연대감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공헌해야 한다.
- 그들의 활동 속에서 학교의 결속력이 스며들 수 있도록 공헌해야 한다.

•
•
•

교사는 :

- 스웨덴 사회의 기본적 가치와 개인적 행동의 결과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 서로 다른 관점과 가치, 문제들에 대해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해야 한다.

•
•
•

각 하위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1. 기준과 가치 :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공통적 가치를 기술해 놓은 항목이다.
- 2-2. 지식 : 학생들이 습득하고 발달시켜야 하는 지식에 대해 기술해 놓은 항목이다.
- 2-3. 학생의 책임과 영향 : 학생들이 그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책임을 지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함을 명시한 항목이다.
- 2-4. 학교와 가정 : 학교와 가정의 연계적 책임을 통해 학생의 발달과 학습을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음을 명시한 항목이다.
- 2-5. 이행과 협력 :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과 학습을 위하여 의무학교는 취학전교육(preschool class), 레저 타임 센터(leisure-time centers), 나아가 후기중등학교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 2-6. 학교와 주변 세계 : 의무학교는 학생들이 다음 교육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기중등학교, 직업 세계,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 2-7. 평가와 성적 : 성적은 학생들이 습득한 국가 수준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표현하는 것임이 나타나 있다.
- 2-8. 학교장의 책무성 : 학교장의 책임은 학교가 국가 수준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3) '3. 교수요목'

3번 항목인 교수요목은 우리나라의 각론(교과 교육과정)에 해당된다. 예술부터 기술까지 총 20개의 교과목별로 ① 목적, ②핵심내용, ③요구되는 지식을 기술하고 있다. 핵심내용은 교과목별 특성에 따라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세부 항목은 다시 1~3학년, 4~6학년, 7~9학년 세 가지의 학년군으로 나누어 기술된다. 예를 들면 예술(Arts)의 경우는 그림 창작하기(Producing pictures), 그림 창작을 위한 도구(Tools for producing pictures), 그림에 대한 분석(Analysis of pictures)으로 나뉘어 기술되고 있고, 영어의 경우는 의사소통 내용(Content of communication), 듣기와 읽기-수용(Listening and reading-reception), 말하기와 쓰기, 토론하기-생산과 상호작용(Speaking, writing and discussing-production and interaction)으로 나뉘어 기술되고 있다. 요구되는 지식에 대해서는 6학년까지의 E등급,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에 해당하는 지식, 9학년까지의 E등급,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에 해당하는 지식이 각각 기술되고 있다. 이 모든 기술 뒤에는 각 등급별 내용이 표로 정리되어 제시되고 있다. 교과 교육과정의 문서 체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표 3 〉 스웨덴 교과 교육과정(각론)의 문서 체제

- 목적	- 요구되는 지식(Knowledge requirements)
- 핵심내용(Core cont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학년 • 4~6학년 • 7~9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학년까지의 E등급에 해당하는 지식 • 6학년까지의 D등급에 해당하는 지식 • 6학년까지의 C등급에 해당하는 지식 • 6학년까지의 B등급에 해당하는 지식 • 6학년까지의 A등급에 해당하는 지식 • 9학년까지의 E등급에 해당하는 지식 • 9학년까지의 D등급에 해당하는 지식 • 9학년까지의 C등급에 해당하는 지식 • 9학년까지의 B등급에 해당하는 지식 • 9학년까지의 A등급에 해당하는 지식

3. 우리나라와 스웨덴 교육과정 문서 체제 비교

1) 교육과정 문서의 분리 체계(활용성 측면)

우리나라 교육과정 문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문서가 통합되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문서로 제공되는 반면, 스웨덴 교육과정 문서는 초·중학교 교육과정 문서가 의무교육과정으로 제공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서는 별도로 제공된다. 즉 스웨덴은 학제와 교육과정 문서가 일치된 모습을 보인다. 스웨덴은 핀란드의 종합학교처럼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 의무학교로서 일관교육으로 제공되고 있고 이 학제에 맞는 교육과정 문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분리되어 있음에도 교육과정 문서는 하나로 제공되고 있어 교사나 학교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운 문서가 될 수도 있다. 홍후조·민부자(2012)는 6-

3-3 학제, 6-6 교사양성제, 9-3 의무교육제, 9-3 교육과정제 등 학교교육의 기본이 되는 제도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육법규 정비를 통해 초-중 9년간의 의무교육을 단절 없이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는 통합학교를 도입하고 이에 맞게 교육과정도 9년의 일관 교육과정을 지향해야 할 것임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과정 문서가 총론과 각론이 분리된 문서 체제인 반면, 스웨덴은 총론과 각론이 통합된 문서체제이며, 교과 교육과정 문서가 상당히 대강화되어 있다. 스웨덴의 경우 교과별로 10쪽 내외의 분량으로 교과 교육과정이 구성된 반면 우리나라의 각론 문서는 교과목별로 다양하지만 100쪽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분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문서를 읽고 분석해야 하는 교사 및 학교 입장에서는 그 활용성에 있어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2) 성취기준의 제시(활용성 측면)

우리나라, 스웨덴 모두 각 교과 교육과정에는 각 교과목별 특성에 맞는 성취기준(우리나라) 또는 요구되는 지식(스웨덴)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제시 방식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공통 교육과정의 각 교과 교육과정에는 학년 또는 학년군별로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그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생이 성취해야 할 기준이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는 1~3학년, 4~6학년, 7~9학년에 각 교과목별로 배워야 할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A등급에서 E등급별로 6학년과 9학년의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지식의 정도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임과 동시에 개별 학생의 상태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교사가 개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은 교사가 한 학생을 평가할 때 교사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국 교사별, 학교별 평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할 때 교육과정 문서를 객관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교과목별 시간 배당 제시(포괄성 측면)

스웨덴 교육과정 문서에는 교과목별 시간 배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스웨덴의 경우는 이 시간 배당을 교육법에 규정해 놓았다. 교육법에는 9년의 의무 교육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6,650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이 명시되어 있고, 예술 230시간, 공예 330시간, 영어 480시간 등 각 교과목별 이수 시간도 제시되어 있다. 물론 이 기준 내에서 학교별 특성에 따라 20%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전체 이수 시간의 13% 정도는 선택 과목에 배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이 시간 배당이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간 배당이 교육부 고시의 교육과정에 제시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교과목별 시간 배당으로 인한 각 교과별 이익을 챙기기 위한 각축장이 된다. 성열관(2008)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 의사결정 과정은 각 교과 관련 집단의 교과 가치 정당화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나타나는 과정이며, 교과목의 단위수가 화폐처럼 여겨져 시간 배당표의 단위수가 등가적 비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보다 각 교과의 이기성이 반영되는 교육과정 개정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무 교육기의 시간 배당은 교육법에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제시(포괄성 측면)

우리나라와 스웨덴 교과 교육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리적으로는 두께이고, 내용적으로는 대강화 vs 상세화의 차이이다. 국가 교육과정 문서가 대강화로 가야 하느냐, 자세한 문서로 가야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교사들의 수업을 위한, 그리고 나아가 학생들의 실질적 학습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가 되기 위해서는 상세화된 문서로 제공될 필요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스웨덴 교육과정의 경우는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되고 있는데, 교육과정 문서의 포괄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문서가 교사나 학교에는 굉장히 친절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4. 나가며

국가 교육과정 문서를 국가별로 일률적 비교는 할 수 없다. 교육을 위한 문서인 교육과정 문서가 한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토대를 외면하고 만들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이라는 인간의 공통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별 교육과정 문서를 비교하는 일은 더 나은 교육과정 문서를 만드는 데 있어 필요한 일임은 분명하다. 교육과정 문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배제하며,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법규, 법령, 고시문 등과 교육과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교육과정 문서의 체제는 달라질 것이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을 위해 만들어지는 문서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문서는 계속적으로 진보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성열관(2008). 국가 수준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특징에 대한 고찰 : 은유의 발견, 교육방법연구, 20(2), pp. 41-56.
- 홍후조·민부자(2012). 의무교육에서 학교·교원·교육과정 제도 간 불일치의 문제와 과제, 교육정치학연구, 19(1), pp. 211-235.
-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11). Curriculum for the compulsory school, preschool class and the leisure-time centre 2011.
- <http://www.skolverket.se>
- <http://eacea.ec.europa.eu/education/eurydice>

필자 소개

고려대학교에서 교육과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교육과정 기준 개발, 교과서 제도 및 정책, 교육관련법 체제 등에 관심이 있다.

교과서 완주(完奏)하기



박 혜 원

(주)박영사

교과서개발부 대리

어디에선가 노랫소리가 들린다. 쉽고 간결한 리듬에 아름다운 가사... 그런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노래, 이번 교과서에 실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다. 음악 교과서 편집자가 된 지 6년차. 이제 음악과 관련된 무엇이라도 접하게 되면 교과서에 넣을 공리를 하고 있는 나를 보며 새삼 놀란다.

◎ 첫발을 내딛던 순간

작곡을 전공하고 교과서는커녕 편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교과서개발부에 입사했을 때,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편집보다 먼저 교과서 체계를 이해하는 것에 어리둥절했다. 교과서도 책인데, 교정 보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교과서'를 이해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익히고, 검정 기준과 교육과정 해설, 편찬상의 유의점을 달달 외웠다. 지난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사용 중인 교과서를 일일이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몇 달간 이어지면서 교과서에 대해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했을 때 그제서야 교과서를 집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다. 물론 아직 집필진과 원고는 구경도 못한 채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서를 홀로 구상해 보게 된 것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은 수시로 바뀌는 체제로 바뀌면서 한 번 만들면 십여 년 간 사용하던 교과서 역시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맞춰 사용 기간이 줄게 되었다.

음악 교과서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유난히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오래된 교과서보다는 시대에 맞는 교과서로 수업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만, 그래도 어쩐지 온갖 정성으로 만든 교과서를 3년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어쨌든 그렇게 바뀐 개정 교육과정 체계의 첫 교과서는 신입 편집자인 나에겐 여러 모로 혼란스러웠고, 기존의 교과서 체제를 얼마만큼 유지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창의적인 교과서를 만드는 것만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예전과는 다른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기존 교과서의 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체계의 교과서를 기획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기획안을 가지고 실제로 만난 집필진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고, 현장 경험에 비추어 가장 효율적이고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과서 체제를 가장 중요한 첫 단추로 꼽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교과서를 무조건 피하려하기보다는 기존의 익숙한 교과서의 활동 방식에 새로운 요소를 더 한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내적 체제를 만들었다. 내적 체계의 윤곽이 잡히고는 본격적인 원고 집필이 시작되었고, 처음 교과서를 집필하는 대부분의 집필자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교과서의 원고를 받아들게 된 나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싶은 조금은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교과서를 만들었다.

첫 교과서를 만들 때는 엄격한 검정 심사에 합격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맞춰 집필하도록 하는 것이 편집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부분적으로 교정할 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다 끝나간다고 생각할 때쯤 한 권의 심사본을 놓고 교육과정을 하나씩 체크하면 꼭 어딘가 놓친 부분이 발견되었다. 그럴 땐 요소에 맞는 새로운 단원을 구상하거나, 알맞은 단원에 새로운 악곡과 활동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흐름이 바뀌거나 기존 쪽수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곤 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가면서 교육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만든 교과서였지만, 심사본을 제출하고 합격 발표 때까지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진 않을까, 교육과정의 기준은 모두 충족했지만 편찬상의 유의점에 어긋나는 점

이 있지는 않나 조마조마하며 몇 번이고 심사본을 들춰 보곤 했다.

그렇게 몇 달의 고생 끝에 얻은 잠시간의 평화롭고도 불안한 시간이 흐른 뒤, 처음으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그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뒤척거리며 밤을 지새운 뒤 아침 일찍 홈페이지를 새로고침하며 기다리던 그 몇 분은 마치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고 합격 발표를 기다리던 때만큼이나 심장이 뛰던, 인생의 몇 안 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함께 고생한 교과서개발부의 모든 편집자가 함께 기쁨을 나누었을 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과 희열이 느껴졌고, 그동안 그 한 권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수많은 나날들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갔다.

◎ 일상 속 음악들의 변주

‘음악 교과서’는 물론 음악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가끔씩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노래는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음악 교과서로 배운 것들이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접하는 음악이 인성과 정서를 어느 정도 좌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음악 교과서’의 악곡 선정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과정에는 음악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음악 교과서를 만드는 편집자로서는 어떤 기준으로 음악을 선정해야 최선일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된다. 물론 교과서를 집필하는 집필진의 선택이 최우선이겠지만, 기존의 오래된 악곡과 요즘 학생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악곡을 적절한 비중으로 조합하는 것이 음악 편집자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장르의 악곡을 준비하고 집필자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좋은 음악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악곡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내 취향에 맞는 음악보다는 교육적이고 예술성 높은 다양한 음악을 고르려고 한다.

내가 처음으로 만들게 된 중학교 음악 교과서는

‘생활화’ 영역이 신설된 제7차 개정교육과정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활에서 접하는 음악으로 음악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보니 나의 일상생활 속 음악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생활 속에서 찾아내는 반가운 음악들을 교과서와 연결하기 시작했다. 야구장에서, 백화점에서, 카페와 전시회 등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음악이 나오는지 노트한다. 들려오는 음악뿐 아니라 영화나 뮤지컬을 보면서도 좋았던 음악이 나오면 교과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 적어 두기도 한다.

◎ 생활의 발견

음악뿐만이 아니다. 교과서가 4도가 되면서 디자인이 심사에 더 비중 있는 요소가 되었고, 그로 인해 더 눈에 띄는, 학생들과 교사의 기호에 맞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본문의 헤드와 악물 등의 큰 디자인은 디자인 회사를 거쳐 오지만 그 외의 레이아웃은 전적으로 편집자의 몫이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보기 좋은 교과서가 될까 고민하게 된다. 때문에 잡지나 단행본은 물론이고 영화의 인트로, 광고를 보다가도 좋은 구도와 레이아웃을 발견하면 어디엔가 메모해 놓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렇게 여기저기 흠어진 아이디어를 한데 모아 만든 교과서를 보면 난감한 경우가 많다. 조금씩 교정볼 때는 좋아 보이던 것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워하면서 버리거나 수정하곤 한다.

사진과 삽화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이 음악 교과서에 부담 없이 즐겁게 다가갈 수 있는 삽화를 위해 거리를 지나다가, 전시회에서 보는 좋은 그림과 작품이 있으면 사진으로 찍거나 작품명을 메모하고 종류별로 모아 놓는다. 꼭 이번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어디에서든 쓸 수 있도록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두는 것이다.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교과서에 서의 삽화와 사진 선택은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음악 교과와 경우 악기를 잡는 자세와 바른 운지 등은 물론이고, 전통 음악의 악기 배치, 음악사를 표현하는 삽화 등의 경우 오류 없는 자료만을 위해 몇 번이고 검토하고 의뢰하고, 수정한다. 사진을 찾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디자인적으로 필요한 삽화와 사진인 경우에도 혹시나 악보에 어울리지 않거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심혈을 기울여 작업한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작업이다 보니 얇은 교과서 한 권을 완성하는 것은 몇 달 집중적으로 달려든다고 되는 것이 아닌 마라톤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심사본을 제출하고 합격 통보를 받고나서도 교과서는 끝나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수정·보완 작업과 표지, 면지 등 후속 작업을 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음악의 경우에는 음원 작업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다. 교과서의 악곡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작곡가를 선정하는 것부터 어떤 스타일의 반주로, 어떤 악기를 사용해서 연주해야 하는지도 정해야 할 뿐더러 완성된 곡을 악보대로 바르게 연주하는지,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한 곡 한 곡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이런 끊임없는 교과서 업무이지만 사정을 모르는 다른 이들에게 그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얇은 교과서 한 권을 만드는 일이 뭐가 그리 어렵냐는 핀잔을 살 뿐이다. 하지만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은 피아노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 남들에게 그거 한 곡을 연주할 뿐이지만, 그 한 곡을 완주하기 위해 흘린 구슬땀은 피아노를 배워 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피아노를 배우듯이..

피아노를 배우는 첫 단계에서는 음악에 대한 지식

보다는 자세를 바르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음악에 대한 지식이 많더라도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결코 좋은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바르게 앉아서 피아노 치는 손 모양을 연습한 후에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쳐 볼 수 있게 된다. 손가락을 하나하나 움직이며 기본적인 음계를 연습한 후에는 테크닉을 배우게 된다. 제대로 된 연주곡을 연습하기 전에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인데, 이것 또한 몇 주에서 길게는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그런 손가락 연습이 어느 정도 익으면 짧고 쉬운 동요부터 시작해서 점차 길고 어려운 곡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 시기에 피아노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려 하기 보다는 그저 한 곡을 완주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경우가 많다. 한 곡을 완벽하게, 틀리지 않고 연주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셈이다. 부분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한 곡을 완성해 나간다. 부분적으로 연습하던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면 자연스럽게 못하거나 덜컹거리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그럴 땐 다시 부분 연습을 하면서 한 곡씩 완성해 나간다. 그렇지만 자신만의 연주곡 리스트를 한 곡, 두 곡 늘려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곡이라도 ‘음악적으로’ 연주하는 것이다. 보통 고전파와 낭만파 음악가의 작품을 연주할 수 있는 수준의 연주자라면 악보에 표기된 음악 기호를 잘 표현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연히 연주곡의 예술적인 가치를 깨닫게 된다.

내가 경험한 교과서 편집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처음 교과서를 편집을 할 때에는 막연하게 교과서가 무엇인지를 먼저 연구하게 된다. ‘교과서’ 편집자로서의 자세를 바로 하는 것이다. 교과서의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과 편찬상의 유의점 등을 꼼꼼히 익히고 나서야 교과서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교과서를 꿈꾸고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내적 체제와 외적 체제를 구상한다. 그런 교과서 준비 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집필진의 원고를 교정하기 시작하지만, 처음에는 맞

춤법과 띄어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 번 사전을 뒤적거린다. 교육과정에 맞는 원고인지도 늘 확인하면서 기본을 익히는 기간이다. 그렇게 조심스러운 원고 교정 작업이 이어지다가 한 단원씩 늘어 가는 교과서의 모습에 내심 뿌듯해한다. 하지만 한 권의 책을 모두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쯤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교육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거나 표기의 통일, 단원 간의 균형 등이 틀어져 있는 것이다. 그럴 때는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다시 한 단계씩 되짚어가면서 한 권의 교과서를 완성하게 된다. 하지만 그저 심사본을 완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교과서 편집자의 역할은 아니다. ‘음악적인’, ‘교과서적인’ 음악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인격을 완성시키는 중·고등학교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감이 교과서 편집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단 한 곡이라도 심미적으로 접근하는 연주자와 같이 학생들에게는 아름다운 인성과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교과서, 교사들에게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교과서를 만드는 교과서 편집자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내가 되기를 희망한다. 교과서에 첫발을 내딛는 편집자들도 예상과는 다른 여정에 지쳐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상적인 교과서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힘을 내시기를! 

필자 소개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현재 (주)박영사 교과서개발부에서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다.

교과서 본문 용지 품질 개선 및 유해성 검증에 관한 연구

*

김 창 근

강원대학교 신학협력단 교수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현재 탈묵 재생펄프를 배합하여 친환경 교과서 용지를 생산할 때 기준 평량은 $75\text{g}/\text{m}^2$ 로서 만일 평량을 $65\text{g}/\text{m}^2$ 으로 낮추는 경우 책이 가벼워지고 자원을 절약하는 이점이 있으나 평량 저하로 두께가 얇아지고, 두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처리를 시행함에 따라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국내 주요 재생인쇄용지 제조사에서 신규 친환경 교과서 용지($65\text{g}/\text{m}^2$)를 시험생산하고 그 물성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신규 친환경 교과서 용지($65\text{g}/\text{m}^2$)의 규격을 확정하고 생산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쇄전문가에 의한 $65\text{g}/\text{m}^2$ 용지의 인쇄적성 평가를 실시하여 기존 $75\text{g}/\text{m}^2$ 용지의 인쇄적성과 비교하였다. 평량 저하에 따른 예상되는 불투명도 저하가 잉크뒤비침 등등의 현상을 실험실적 검증 뿐만 아니라 실인쇄를 통해서 기존 3개사 $75\text{g}/\text{m}^2$ 용지와 이번 연구과제에서 생산한 3개사 $65\text{g}/\text{m}^2$ 용지와 동일한 조건에서 인쇄를 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아울러 위 실인쇄를 통해 인쇄한 용지를 제본하여 기존의 교과서 같은 형태로 제작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험실적 평가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 학생들의 5감에 대한 평가를 받아 이를 정리하였다.

■ 한국 교과서 색상

과정	과목	L	a	b	CIE W	R457 C	R457 F	Yellowness
전체	전체	92.79	-0.20	4.0	67.0	77.02	3.65	7.5

세계각국의 교과서 본문용지 색상 측정결과 일본교과서 용지가 가장 노란 미색이었고, 그다음이 한국 교과서 본문용지였다. 하지만 그 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모두 백색계열의 색상을 보였다.

이는 미색이 가독성과 눈의 피로도에 좋다는 근거로 제작된 것이지만 연구 결과 미색과 백색은 가독성과 눈 피로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교과서의 다색중첩인쇄가 증가하면서 색상 재현성이 있어 미색이 백색용

* 공동연구자 : 신혜승 (바이오 미디어(주)), 류정용 (화학연구원), 하영백 (부경대학교), 이상주 ((사)한국검정교과서), 박성호 ((사)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임이균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지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노란색을 나타내는 b값을 일부 백색으로 조정하였다.

II. 본 론

1. 65g/m² 신규 교과서 용지의 시험생산 및 물성분석 결과

기존의 평량 75g/m² 친환경 교과서 용지의 규격을 참고하여 신규 친환경 교과서 용지(65g/m²)의 1차 규격안을 마련하고 한솔제지 장항공장, 전주페이퍼 및 대한제지에서 시험생산을 실시하였다.

Table 5. 신규 친환경 교과 용지의 규격안

항목	평량	두께	인장 (MD)	인열 (CD)	광택도		백색 도	불투 명도	색상			거칠음도		FI 지수	재생 펄프
					T	B						T	B		
단위	gsm	um	kN/m	mN	%		%	%	L	a	b	um		-	%
현행	75 ±3%	72 ±3	3.2↑	200↑	23 ±3	23 ±3	78 ±2	90↑	93 ±0.7	0 ±0.4	3.5 ±0.4	2.5 ±0.5	2.5 ±0.5	4↓	30↑
안	65 ±3%	68 ±3	2.7↑	200↑	15 ±3	15 ±3	78 ±2	90↑	92 ±0.7	0 ±0.4	1.5 ±0.4	3.5 ±0.5	3.5 ±0.5	5↓	30↑

Table 2. 신규 친환경 교과 용지의 생산결과

제조사	평량 (gsm)	두께 (um)	인장 (MD, kN/m)	인열 (CD, mN)	광택도(%)		백색 도(%)	불투 명도 (%)	색상			거칠음도(um)		FI 지수
					Top	Bottom						Top	Bottom	
한솔제지	67.3	67	3.65	280	17	16	77.63	91.12	92.2	0.06	2.92	3.7	3.6	1.36
대한제지	66.5	71.9	3.04	480	15.7	15.7	77.25	90.91	91.65	0.34	1.96	4	3.6	3.28
전주페이퍼	67.2	73.4	2.88	287	18.4	17.3	76.69	90.55	90.86	0.33	1.67	3.7	3.2	0.46

용지 물성 요약: 시산품들 대부분 규격을 충족시킴.

2. 인쇄물 품질

2.1 인쇄물의 색 농도

2.1.1 인쇄적성 시험에 의한 색 농도

환경 용지의 인쇄물 색 농도 값이 기존용지에 비하여 조금 낮게 나타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재생펄프를 포함하지 않은 고급인쇄용지의 경우, 같은 평량으로 만들어진 용지에서도 다소 우의를 나타내고 있지만 육안에 의한 구분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D-65의 경우에서 다소 높은 농도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용지내부로 잉크가 침투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 표면에 많은 잉크가 잔류하였거나, 공급된 잉크 양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재생펄프를 포함하며 평량이 65g/m^2 인 용지에 대한 잉크 색 농도 값을 나타낸 것으로, D-65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공급된 잉크에 대하여 전이량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다양한 종이의 특성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육안에 의한 평가에서는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였다. 잉크 색 농도 값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Fig. 52에서와 같이 고급인쇄 용지의 경우 HQ-B-75 시료에서 다소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은 ΔE 의 오차가 0.1 이내로 육안 관측 시 큰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시험 인쇄에 의한 결과 값을 비교해 본 결과 친환경 용지에서 Black 잉크의 농도 값이 다소 낮은 값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기존 용지에 비하여 상이한 차이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2 실 인쇄 시험에 의한 색 농도

기존의 평량 75g/m^2 으로 제조된 시료에서 잉크의 색 농도 값이 다소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D사의 75g/m^2 의 경우에서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시료에 비하여 다소 높은 농도 값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제조사의 비목재 성분 첨가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하지만 평량 65g/m^2 과 75g/m^2 의 색 농도 차이는 상이하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육안 구분에 의한 색 농도 차이는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65g/m^2 의 제조에 따른 인쇄물의 색 농도 편차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평량이 65g/m^2 로 상대적으로 낮은 교과서 용지에서 색 농도가 균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평량을 가진 용지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0.006 정도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값으로 미루어 볼 때, 상호간의 색 농도 오차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조사가 다른 것을 감안해 볼 때 용지에 투입된 첨가제의 종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상호간의 색 농도 값은 상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D-75 시료에서 가장 높은 농도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65g/m^2 의 평량을 가진 재생용지에서는 색상 농도 값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질은 색의 경우에는 색상이 옅은 것에 비하여 그 편차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각기 다른 평량을 가지는 교과서 용지 상호간의 편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하다.

2.2 인쇄물의 뒤풀림

2.2.1 인쇄적성 시험에 의한 뒤풀림 현상

전면에 인쇄된 화선이 이면에서 비쳐 보이거나, 잉크가 베어 나와 보이는 현상을 뒤풀림(Print Through)이라고 한다. 친환경 재생펄프를 함유하고, 평량이 낮은 용지에서 평균 0.012 정도 뒤풀림 값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뒤풀림 편차를 비교해 보면 친환경 재생펄프를 포함한 평량 65g/m^2 는 0.016이고, 재생펄프를 포함한 평량 75g/m^2 는 0.025, 고급교과서 용지는 0.023으로 그 차이가 오히려 65g/m^2 보다 아주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제조사별로 첨가된 첨가제의 차이나, 첨가량 때문으로 판단된다. 뒤풀림의 육안 관측 결과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 인쇄용 교과서 본문 용지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2.2 실 인쇄 시험에 의한 뒤풀림 현상

65g/m^2 평량의 용지에서 다소 높은 뒤풀림 농도 값을 나타내고 있다. 65g/m^2 평량의 용지 중 J-65의 경우는 시험 인쇄보다 다소 높은 뒤풀림 농도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두 가지의 잉크가 중첩되면서 모세관 현상이 더욱 많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D-65에서는 시험 인쇄보다 적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만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시험인쇄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뒤풀림 농도 편차는 65g/m^2 평량의 시

료가 평균 0.111, 75g/m² 평량의 시료들 평균이 0.092로 그 차이는 0.018정도로 극히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65g/m² 평량의 교과서용 본문 용지 또한 뒤비침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 잉크의 중첩성

일반적으로 인쇄물의 색은 잉크에 의해 재현되어 진다. 잉크에 의한 재현 방식은 감색 혼합이지만, 망점을 이용한 재현에 있어서는 여러 색의 망점이 빛의 반사로 합쳐져서 중간색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색의 표현을 잉크의 중첩성 혹은 트래핑(Trapping)이라 부른다.

트래핑 값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첫 번째 인쇄된 잉크 위에 두 번째 인쇄된 잉크가 잘 부착되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본 실험 인쇄 결과에서는 Orange 색상에 대한 것으로, Magenta 잉크 위에 Yellow 잉크를 올린 것이다. 따라서 다른 색상에 비하여 다소 낮은 트래핑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첫 번째 인쇄 잉크의 사용이 거의 없는, 즉 Yellow에 가까운 Orange 색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 값을 비교해 보면 D회사의 제품에서 65g/m² 평량의 용지나 75g/m² 평량의 용지가 다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 이유는 두 번째 올라가는 Yellow 색상 잉크가 많았기 때문에 첫 번째 인쇄된 Magenta 잉크에 의한 트래핑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첩된 부분의 색상에 의한 색 오차는 거의 없는 판단되며, 65g/m² 평량의 교과서 본문용지의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4 망점 확대(Dot Gain)

망점에 의한 인쇄는 인쇄 시 압력에 의한 영향으로 망점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거의 대부분은 망점이 커지는 망점확대(Dot gain)가 일어난다. 4색 인쇄에서 3개의 프로세스 컬러, Cyan, Magenta, Yellow 잉크 사이의 도트게인 밸런스는 그레이밸런스와 함께 피부 색, 풀잎 색, 하늘 색과 같은 오버프린트 색상 유지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과도한 Magenta 색상의 망점확대로 피부색이 붉게 표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화선의 정확함과 색상 재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쇄 시 망점확대의 영향을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다.

2.4.1 50%망점에서의 망점확대

65g/m² 평량의 시료들에서 H-65가 46.67%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75g/m² 평량의 시료들에서는 D-75의 시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D-75는 잉크 색 농도 값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잔류하는 잉크가 많아 표면의 잉크 층이 두꺼워져서 압력에 의한 망점확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다른 두 시료 H-75와 J-75는 평량 65g/m²의 시료들 보다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평균 편차를 비교해 보면 65g/m² 평량의 시료들은 1.66, 75g/m² 평량의 시료들은 4.66으로, 65g/m² 평량의 시료들에서 낮은 편차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편차가 적은 이유는 평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종이 제조 시 사용되는 비목재 성분(충전제)의 사용이 많아져,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망점 확대의 경우에서도 65g/m² 평량의 시료들과 75g/m² 평량의 시료들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서 품질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설문을 시행하고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3. 설문조사 대상

설문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총
설문자 수	54명	72명	126명

- 위 종이물성 및 인쇄적성 결과와 일치하였다.
- 인쇄뒤비침, 종이두께 등 일반적인 문제점이 대부분 인식되지 못했다.
- 거의 95% 이상이 책이 가볍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중등과 고등과정중 칼라인쇄가 적은 국어와 같은 언어과목, 사회과목 등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III. 결 론

위 연구를 토대로 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65g/m² 용지의 물성

기존의 평량 75g/m² 친환경 교과서 용지의 규격을 참고하여 신규 친환경 교과서 용지 (65g/m²)의 1차 규격안을 마련하고 한솔제지 장항공장, 전주페이퍼 전주공장 및 대한제지에서 시험생산을 실시하였다.

제조사	평량 (gsm)	두께 (μm)	인장 (MD, kN/m)	인열 (CD, mN)	광택도(%)		백색 도(%)	불투 명도 (%)	색상			거칠음도(μm)		FI 지수
					Top	Bottom			L	a	b	Top	Bottom	
현행	75 ±3%	72 ±3	3.2↑	200↑	23 ±3	23 ±3	78 ±2	90↑	93 ±0.7	0 ±0.4	3.5 ±0.4	2.5 ±0.5	2.5 ±0.5	4↓
1차 안	65 ±3%	68 ±3	2.7↑	200↑	15 ±3	15 ±3	78 ±2	90↑	92 ±0.7	0 ±0.4	1.5 ±0.4	3.5 ±0.5	3.5 ±0.5	5↓
한솔제지	67.3	67	3.65	280	17	16	77.63	91.12	92.2	0.06	2.92	3.7	3.6	1.36
대한제지	66.5	71.9	3.04	480	15.7	15.7	77.25	90.91	91.65	0.34	1.96	4	3.6	3.28
전주페이퍼	67.2	73.4	2.88	287	18.4	17.3	76.69	90.55	90.86	0.33	1.67	3.7	3.2	0.46

상기한 바와 같이 시산품들은 대부분의 규격안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쇄평가

재생필프를 포함한 평량 65g/m²인 교과서용지와 재생필프를 포함하지 않은 평량 75g/m²의 고급 교과서용지의 인쇄적성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인쇄물 농도는 친환경 용지의 인쇄물 색 농도 값이 기존의 고급 교과서용지에 비하여 조금 낮게 나타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육안에 의한 구분은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평량을 가진 시료에서 농도 값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용지내부로의 침투가 상대적으로 적어 표면에 잔류하는 잉크 양이 많았거나, 공급된 잉크 양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결과는 오차범위 0.1 이내로 상이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

지 않다고 판단된다.

뒤비침은 평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65g/m^2 인 교과서용지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그 편차를 비교해 보면 친환경 재생펄프를 포함한 평량 65g/m^2 는 0.016이고, 재생펄프를 포함한 평량 75g/m^2 는 0.025, 고급교과서 용지는 0.023으로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65g/m^2 보다 아주 조금 높게 나타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제지사별로 사용한 첨가제의 차이나, 첨가량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내부구조의 변화에 의한 미세한 차이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 차이는 극히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뒤비침의 영향은 매우 적었다.

잉크 중첩성의 영향을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지사 간의 오차가 다소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육안 분석에 의하면 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중첩된 부분의 색상에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65g/m^2 평량의 교과서 본문용지의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쇄물 망점의 확대율을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평균 편차를 비교해 보면 65g/m^2 평량의 시료들은 1.66, 75g/m^2 평량의 시료들은 4.66으로, 65g/m^2 평량의 시료들에서 낮은 편차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편차가 적은 이유는 평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종이 제조 시 사용되는 비목재 성분(충전제)의 사용이 많아져,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 때문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어두운 부분(shadow part)에서 망점확대율은 차이가 거의 없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별히 높은 값을 나타내었던 평량 75g/m^2 의 고급 교과서 용지는 인쇄물의 색 농도에서와 같이 표면에 잔류하는 잉크 양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인쇄 시 압력에 의한 영향으로 망점확대율이 커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현상이 한 시료에서만 나타났기 때문에 인쇄물의 색 농도에서 판단내린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재생펄프를 포함한 65g/m^2 평량의 시료와 75g/m^2 시료 간의 편차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재생펄프를 포함한 평량 65g/m^2 의 인쇄용지를 교과서 본문 용지에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위해성 평가

시료 중에 있는 중금속의 경우 체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로 보아 유해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광물질의 경우 일반적인 생활에서 검출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아 현재 실험에 검사한 모든 용지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위해 수준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4. 재생용지의 규격 결정

	평량 (gsm)	두께 (μm)	인장 (MD, kN/m)	인열 (CD, mN)	광택도(%)		백색 도(%)	불투 명도 (%)	색상			거칠음도(μm)		FI 지수
					Top	Bottom			L	a	b	Top	Bottom	
65g 신규용지	65 $\pm 3\%$	68 ± 3	2.7↑	200↑	15 ± 3	15 ± 3	78 ± 2	90↑	92 ± 0.7	0 ± 0.4	1.5 ± 0.4	3.5 ± 0.5	3.5 ± 0.5	5↓

이로서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다.

- 65g/m^2 용지는 교과서 본문용지로 적용 가능하다.
- 65g/m^2 용지는 뒤비침과 같은 인쇄품질 또한 문제가 없었다.
- 재생용지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위해 수준은 아니다.
- 학생들 설문조사에서도 95% 만족도를 보였다. 

나와 교과서!



김 정 욱

(전) 존스홉킨스 교수
고등과학원 초대 원장

아마 나같이 교과서와 인연이 없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이 교과서에 대해서 무엇을 쓴다는 것이 좀 쑥스럽다. 여하튼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5학년 때 광복이 되어 한국에 돌아왔다. 한국말도 잘 몰라 6학년을 적당히 마친 초등학교 시절의 교과서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우리말 배우기에 정신이 없었던 기억은 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이 있다. 중학교 입시를 위한 참고서가 있었는데 (그러니 1946년 이야기가 되겠다) 제목이 “외우는 책”이다. A4용지 반 정도도 안 되는 크기의 책이었고 두께는 약 1cm. 중학교 입시 면접시험을 위한 유일한 참고서다. 이 책은 중학교 면접시험의 첫 질문과 모의 답안으로

시작한다. 면접질문 “학생은 왜 이 학교에 응시하게 됐는가?”에 “부모님들과 교장선생님 그리고 담임선생님과 상의한 결과 이 학교가 가장 좋다고 결정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답으로 시작하는 참고서다. 나머지 내용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으나 면접 당시 모두 이 책을 암기하여 똑같은 답을 했을 터이니 면접관들이 얼마나 웃었을까? 그것이 당시의 교육과 사회의 수준이라고 할까. 지금도 이 참고서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나온다. 내가 경험한 중고교 학생 시절을 돌아보면 교과서는 역시 내 학교생활에 큰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다. 광복, 그리고 6·25 전쟁을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로 보낸 세대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얼마 전 옛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 환경과 생활이 너무 어려워 제대로 된 교과서가

있을 수 없었고, 있었다 한들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사치였을 때니까. 지금도 가끔 TV에서 몹시 낙후된 나라의 교과서나 여러 교육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도 그랬지 하고 공감을 한다. 선생들의 강의나 여러 가지 재미있었던 일들, 그리고 3년이나 계속된 전쟁의 어려움이 기억에 남아 있으나 여기에서 할 이야기들은 아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별로 좋아진 것은 없었다. 6·25 직후 이야기니까. 그러나 일학년 때 처음 배우는 일반물리는 그래도 교과서가 있었다. 그 교과서는 영어 일반물리 교과서를 교수가 직접 번역한 것이었는데 첫 시간에 들어와 “이 책을 이번 학기에 스무 번 읽어”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지셨다. 그분은 당시 서울대의 많은 교수들과 같이 학교에 잘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몇몇 학생끼리 모여 이 책으로 자습을 했다. 토론도 많이 했다. 덕분에(?) 일반물리는 제대로 공부했으니 다행이었다. 이 교수는 학기 말에 두 번째 나타나 학기말시험을 치렀는데 문제는 교과서와 거의 관련이 없던 걸로 생각이 난다. 유명했던 최윤식 교수의 미적분강의는 교과서는 없고 한 시간 내내 칠판의 좌편 상단부터 오른쪽 하단까지 촘촘히 몹시 빠른 속도로 오래된 노트를 보면서 필기하시는 미적분학을 열심히 노트에 적는 것이 강의의 전부였다. 받아쓰기가 느린 학생들은 최 교수가 칠판이 차면 아무 말도 없이 바로 지우시고 다음으로 갈 때 받아쓰기를 못하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교수와 학생간의 질문 토론은 전혀 없었다. 이 관습은 대부분의 강의에서 그랬고 아마 그 당시의 사회제간의 풍토였을 것이다. 어느 교수는 질문에 “그런 거 알아서 뭘 해”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일도 있었다. 당시 교수들 거의 모두가 타 대학에 강의하러 나갔거나 다른 대학에서 강의하러 나온 교수들이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우리가 배운 서울대의 몇 교수는 정부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자문하거나 직접 개입했기에 강의 같은 것에 신경 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간

다. 학생은 스스로 공부하는 것으로 알았던 시절이다. 그야말로 주입식 교육은 전혀 없던 좋은(?) 시절이었다고 할까?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교과서라도 제대로 있었으면 그다지 고생은 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도 든다. 우리는 자주 청계천가에 준비해 있던 고(古) 서점을 뒤지며 다녔다. 운이 좋아 옛 일본 교과서를 찾으면 보물이라도 찾은 듯 기뻐했으며 이 책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 유명한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이 쓴 교과서들이었다. 영문 교과서도 있었으나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었다. 그러니 일본 참고서들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문사회학 과목에서는 교수들이 집필한 책이 참고서일 때가 있었고, 수학 물리에서는 대부분 교수들이 일제 때 다니던 전문학교나 대학에서 배우던 노트들이 몇 안 되는 우리의 교과서였다. 어떤 교수의 강의 노트는 너무 낡아 사각형의 노트가 타원 꼴이 되어 있었다. 과장이 아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장이 빠져 있는 것을 학생들은 모두 알고 있었는데 그 교수는 알지 못했던 것 같다. 학기말 시험에 우연히도 이 빠진 페이지가 포함되는 문제가 나왔다. 그때 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써야지 점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몇 학생은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없어진 페이지의 내용을 착실히 보충했다. 이 학생들은 C를 받았다.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나는 좋은 교과서와는 거의 인연도 없이 군대를 마치고 한국을 떠났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배울 건 배웠구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때가 1959년.

그러고 보니 내가 교과서 무용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교과서는 배우는 학생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미국에서의 경험을 종합해 보면, 대학에서는 교과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좋은 참고서들이 많고, 대학생들은 자기 자신이 갈 길을 알아서 가는 능력이 있는 사

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교의 교과서 문제는 다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교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 내용과 표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교과서가 있어도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을 자극시키고 인도하느냐 하는 문제는 교과서 자체와는 다른 문제다.) 그리고 나라라는 큰 틀에서 볼 때도 교육의 일관성과 보편성을 위해 교과서는 필수적이다. 그럼 교과서란 과연 무엇일까?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 같지만 교과서의 정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사람 이야기는 교과서와 같다.”는 말을 흔히들 한다.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내용이 질서 정연하게 잘 요약됐다는 말인가? 아니면 판에 박힌 듯 꼭 필요한 것만 나열했다는 말인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애매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자세한 내용은 빼고 적당히 그럴듯하게 한 이야기인가? 사실은 다 맞지만 상상력은 전혀 없다는 말인가? 나는 이런 표현들이 모두 교과서의 일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그만큼 교과서는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에도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표현도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교과서 내용은 그 당시 사회가 공인해야 하며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어느 나라나 교과서는 그 집필 과정 때문에 독창적이거나 상상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리고 읽기에 편안하고 재미있는 책이 되긴 어렵다. 보통은 일선에 있는 전문가들(현직 교사들)이 다른 기준으로 선정된 전문가들과 “정부기관”이 승인한 교과과정 태두리 안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다 핵심과제에 맞는 연습문제 등 각 학년에 주어진 교과 과정의 진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본질은 간단하나 결과물은 복잡할 수밖에 없고 급변하는 사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역사관의 변화 때문에 때로는 사회 갈등도 있기 마련이다.

최근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너무나도 오래간 만에 보는 고등학교 교과서였다. 옛 교과서에 비하면 몹시 세련되고 재미있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아주 기초적인 몇 가지 역학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바로 특수 및 일반 상대성이론의 설명이 있고 다음에 우주론의 초보 개념으로 이 교과서는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저자들이 학생들에게 빅뱅 같이 큰 인상과 불타는 호기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현대물리학의 첨단내용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찬사를 보낼 만하다. 저자들은 이 교과서를 통해 물리학의 기본학문을 학생들이 이해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과연 이정도의 간단한 서술적 설명으로 학생들이 상대성 이론과 우주론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선택도 여러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겠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몇 페이지의 설명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 교사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란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버트랜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상대성이론이 너무 알고 싶어 아인슈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인슈타인은 꽤히 승낙하고 몇 시간 개인교수를 했다. 기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러셀에게 이제 상대성이론을 이해하는가 라고 질문하자 그는 “아직도 이해 못하겠다. 그러나 내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인슈타인은 상대성이론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답했다. 어린 학생들에게 상대성이론을 설명해야 할 교사들에게 우려와 격려를 보낸다. 상대성이론 바로 다음에 우주론이 나온다. 다행히도 2011년에 출판된 교과서이기 때문에 최근의 우주론의 중요한 결과들이 설명되어 있었다. 그러나 너무 간단하고 피상적인 곳이 많다. 예를 들어 우주 나이 계산이 그렇다. 교과서에는 우주 팽창계수의 정의공식에 최근 팽창계수의 값을 넣으면 우주의 나이 137억 년이 나온다고 되어 있다. 사실은 현재의 팽창계수, 우주의 밀도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 등을 일반상대론의 우주방정식에 입력하여 나이를 계산하면 우주의 나이 137억 년

이 나온다. 즉 우주의 나이는 우주 팽창계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물질의 양과 그들의 성질과 분포의 함수다. 인용된 공식은 우주 나이의 대충 가까운 근사치를 얻어낼 수 있는 식이라고 하면 된다. 좀 쉽다.

교과서 내용이 정확되지 않으면 신뢰도를 잃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은 교과서의 생명이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으면 그렇다고 기술하면 되고 복잡한 것은 복잡하다고 기술하는 것이지 간단하게 하려고 설명도 없이 간단한 공식으로 대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이점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약 2년 전 모 기독교 단체(큰 단체는 아니다)가 교육과학기술부에 교과서의 진화론 설명에서 시조새의 화석과 말의 진화 과정에 관한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삭제하도록 개정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과서 내용을 사사건건 간섭하던 옛날 교육부나 당시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자율적으로 한다는 명분하에서인지 잘 모르겠으나 탄원서를 교과서 출판사들에게 주면서 알아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몇몇 출판사들이 고치겠다고 나섰다. 불행히 이 사건이 작년 6월에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한국, 창조론자 요구에 굴복하다.”라는 기사로 나오게 되었다. 국제적 망신을 한 것이다. 다행히도 학계가 신속히 개입하고 심지어 한국과학기술한림원도 가세해 결과적으로는 현대과학의 기반 중의 하나인 진화론의 교과서에서의 입지가 더 굳어지게 되어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교과서 집필자들의 부주의 특히 정확성을 등한시한 것이거나 학문의 변화에 따른 정기적인 교정의 부재의 결과이며, 여러 면으로 너무 소모적인 사건이었기에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우주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대 우주론의 몇 가지 중요한 결과인 우주의 나이가 잘못된 공식에서 나왔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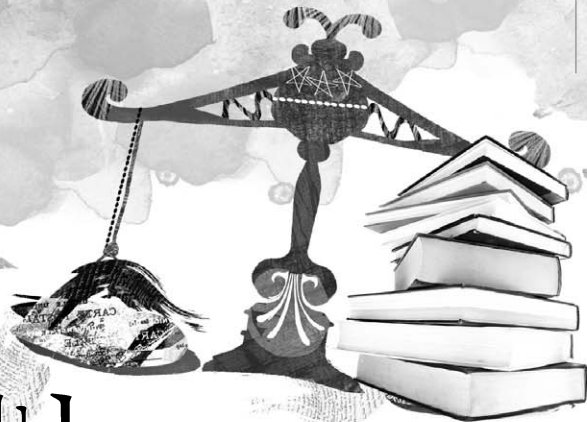
지금쯤은 모든 것이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

다. 교과서도 인터넷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벌써 e교과서도 나왔다. 인터넷에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의 대부분이 있다. 좋은 예가 위키피디아(wikipedia)다. 그러나 이것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필한 내용물들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리고 누구나 거기에 의견을 첨가할 수 있는 열린 공간(open forum)이다. 따라서 정확도의 검증이 없다. 그리고 이런 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이 열려있는가. 가장 방대한 검색엔진(engine)인 구글(Google)은 인류 역사상의 모든 기록을 저장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많은 정보를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선별하고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역시 교과서는 필요한 것 같다.

필자 소개

미켈살바니아 대학 연구원을 거쳐, 존스홉킨스대학교 물리천문학과 교수, 고등과학원 초대원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존스홉킨스대학교와 고등과학원 명예교수이며 전공분야는 소립자이론과 우주론.

교과서를 공부하는 선생님



권혜인

한성여자중학교 교사

학교의 울타리를 거친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할 것이다. “교과서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는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교과서가 가진 힘은 이렇게 우리를 무의식 저변에 깔려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한다. 지식정보화사회(知識情報化社會)라서 그렇단다.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비 콰터스(Ubiquitous) 세상에서 교육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이 가능한 교육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위기를 맞은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교과서’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는 못생기고 볼품없어도 ‘교과서’ 이기에 대접을 받았었다. 이제는 내적 아름다움만큼이나 외적 아름다움도 중시되는 사회라 못생기고 볼품없으면 교과서라도 관심 받지 못한다. 교과서 입장에서 달라진 인심이 야속할 테지만 세상 이치가 원래 그렇다. 교과서가 변하는 수밖에.

‘교과용 도서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 연수’는 교과서의 어제와 오늘, 미래에 관한 연수이다. 연수는 교과서의 법률적 정의, 제도, 정책과 교과서와 관련된 교육과정, 저작권법, 그리고 교과서의 표기, 표현, 편집, 디자인 등을 다루었다. 교과서와 제반 사항을 거시적 관점에서 미시적 관점으로 훑어보니 교과서에 관한 그림이 체계적으로 그려졌다. 실무 업무를 담당하시는 강사 분들의 실질적인 경험 사례와 업무 고충까지 곁들여지니 연수는 내내 흥미진진하고 생동감이 넘쳤다.

이 연수가 여타의 연수보다 의미있는 것은 교과서의 ‘현실적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교과서를 손에 쥐는 선생님에게나 학생들에게나 ‘좋은 교과서’는 너무 이상적이고 그래서 막연하다. 교과서 개발은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과서 내용으로 교육과정도 반영해야 하고 공정성 논란에 시달리지 않을 만큼 중립적이어야 하며 정보의 홍수에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여야 한다. 그 뿐인가. 허름한 맛집이 되지 않도록 흥미롭고 재미있게 내용을 장식하는 재주도 중요하다. 이 연수는 교과서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함께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덕분에 연수에 참가한 선생님들은 연수가 끝난 후 나처럼 교과서 개발에 대한 나름의 구체적인 계획이 생겼을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교과서란 무엇입니까?” 교과서에 대한 이해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해를 넘는 순간 탐구가 시작된다. 이렇듯 좋은 교과서란 연구를 거듭하는 교육 전문가의 장인 정신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Sartre, Jean Paul)는 “내가 세계를 알게 된 것은 책에 의해서였다”고 말했다. 교과서의 위상과 역할은 시대를 거치며 달라질지 모른다. 그러나 교과서가 세상을 알게 하는 책들 중 한 권이 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몫은 교과서 개발 전문가에게 달려있다. 좋은 교과서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나는 교과서를 공부하는 선생님이다.

『교과서 연구』 열정을 담아 희망을 열자!

이정기 밀양 예림초등학교 교사

“지하철 7호선 논현역 3번 출구” 서울 자체가 낯설은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주소였다. 이리 저리 헤매기를 1시간... 드디어 논현역 3번 출구를 나와 지상으로 향했다. 그런데 나의 눈앞에는 작은 카페만이 보일 뿐 쉽게 찾을 것이라는 목적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또 거리에서 30분... 참으로 힘들게 목적지를 찾아 들어갔다. 하지만 내가 찾아간 그 곳에는 향기가 가득하였다. 교과서에 대한 열정을 담아 교육의 꽃을 피우기 위한 아름다운 향기였다. 낯선 곳에서 만난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나에게 그렇게 다가왔다.


요즘 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인스턴트 사회에서 어느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열정을 쏟는 것은 겉보기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 오직 교과서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칭찬보다는 비판이 앞설 수 있는 교과서 연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발간하는『교과서 연구』는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다.『교과서 연구』는 교과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우리 교과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지속적인 교과서 연구를 통해 교과서의 선진화를 이루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 특별히『교과서 연구(제71호)』에서는 새 정부에 바라는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방향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누구보다 교과서를

가까이 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교사로서『교과서 연구(제71호)』에 제시된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에 대한 바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교과서의 발행은 중요한 과정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발행되어야 한다.
- 둘째, 교과서는 교육의 산물이므로 우리 경제력에 걸맞은 교과서를 만들어내야 한다.
- 셋째, 교과서를 저술하고 발행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 넷째, 교과서 스스로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 핵심적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교과서 정책의 바램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두에『교과서 연구』가 있다.

요즘 우리 주변의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가슴이 답답해져 온다. 정부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의 인성은 바닥을 향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교육의 기본에 충실하자. 이러한 점에서『교과서 연구』는 교육에 대한 희망을 살리는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다. 교과서에 열정을 담아 교육의 희망을 열자! 

알림 우리 ‘교과서 연구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교과서 연구’를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특집기사 또는 다른 원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보내주세요. 담당자의 이메일(editor@textbook.ac) 또는 연구재단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연구지 제안에 접수된 의견 중에서 독자의 소리에 게재되면 교과서 연구지를 1년간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고등학교부 금상

상하이에서 본 교과서



장 민 석

여주 대신고등학교
1학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중국 상하이로 유학을 갔었다. 먼저 가서 나는 1년 동안 상하이 한국학교를 다닌 뒤 상하이 미국학교로 전학을 갔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미국학교를 다녔었다. 그러다보니 한국 교과서를 배울 시간이 없었다. 영어실력이 올라가는 만큼 나의 한국어 실력은 점점 쇠퇴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상하이 한국학교에서 중등 국어책을 가지고와 주셨다.

“시간 날 때마다 보렴.”

난 문득 교과서를 받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 교과서를 외국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면 나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외국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 나는 선생님께 동아리 활동을 만들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맘대로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애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예상 외로 많은 아이들이 참가했다. 일본인 2명, 미국, 캐나다 애들 3명, 그리고 중동 애들 3명... 그래서 총 24명 정도가 참가하였다.

나는 나의 학생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대부분 한국을 좋아해서 몇몇 아이들은 한국어로 자기소개 정도까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애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다. 가르쳐주다 보니까 웬지 더 욕심이 났다.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을 해 다른 과목의 교과서도 챙겨 오시라고 했다. “엄마, 저 요즘 제 친구들 모아놓고 동아리 활동으로 애들한테 우리나라 교과서로 제가 수업하고 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니 어머니께서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칭찬을 해주셨다.

우리나라 교과서로 외국 아이들을 가르쳐주다 생긴 이런저런 에피소드 중에 기억나는 게 있다면 바로 사회책에 있었던 독도이야기와 삼국시대이야기였다. 물론 나도 수업을 하면서 당황하기는 했다, 그래도 이걸 꼭 애들한테 알려줘야겠다 마음에 말을 꺼냈다. “너희 중 몇몇은 독도 알지? 지금 독도 때문에 일본과 한국 관계가 별로 않 좋은 것도 알거야.” 역시 내 예상대로 지금 동아리 수업을 듣고 있던 일본 애들이 말을 꺼냈다. “다케시마 말하는 거야? 그거 우리나라 땅 아닌가?” 이 질문을 받은 후 사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영어로 번역해 읽어 주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알겠다는 듯 박수를 쳐주었다. 일본 애들도 미안하다고 나한테 사과를 했다. “괜찮아, 이 문제는 우리가


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일본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 같아.”

내가 봐도 멋있었던 것 같았다. 이 사회 교과서로 인해 일본 아이들... 그다지 많은 수의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조금이나마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책이 바로 사회 교과서였다. 이러한 재미 때문에 나는 방학 때도 애들하고 모여 학습을 하였다. 물론 한번 모이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방학 중에 모였을 때 밥을 먹어야 될 시간에 나는 말도 안 되는 퀴즈를 낸 적이 있었다.

“국어 교과서에서 기억나는 시 이름 2개만 말해봐. 먼저 말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오늘 점심 사줄게.” 내가 이렇게 말하자 순간 조용해졌다. 왜냐하면 시 이름을 떠올리기 바빠졌기 때문이다. 물론 나도 알고 있었다. 애들이 시 제목을 떠올릴 수는 있겠지만 밖으로는 표출을 못한다는 것을. 그러던 순간 한 아이가 책을 꺼내놓고 내가 한국어 발음을 영어로 적어준 글을 토박토박 읽어 내려갔다.

“do I do-amm ae so k so ck ieneun hat bit...” 나는 물었다. “와, 교과서는 왜 들고 왔어? 학구열이 정말 뛰어난데? 이것 좀 보고 배워라, 자식들아. 주말에 교과서를 들고 와서도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 가자. 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난 애들을 한식집으로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들을 추천해 주었다. “와... 이거 너무 맵다. 넌 이런 거 매일 먹는 거야? 맵긴 맵운데 왜 이렇게 맛있냐?” 나는 애들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웃겼다. “이런 건 매일 먹지는 않지. 하하... 이것도 먹어봐.” 이러면서 방학을 보냈던 것 같다.

이러면서 중등을 졸업할 때까지 교과서를 통해 아이들 하고 같이 여러 것들을 배우고 얻었던 게 많은 것 같다. 보통 교과서를 한 학기에 다 끝내 버리지만 우리는 2년 만에 마쳤다. “헤이, 상하이 올 때마다 연락하고! 교과서는 내가 가질게.” 가지라고 준 거지만 웬지 몇 장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책을 찢어 나눠주고 받았던 기억이 난다. 이 때 난 교과서로 인해 많은 추억과 많은 친구들을 얻음으로써 많은 것을 얻은 것 같다. 아직도 집에 있는 교과서들을 보면 추억이 새록새록 돌아난다. 그러므로 나에게 교과서는 추억이다. 

고등학교부 은상

나의 절정, 내 삶의 절정



김민정

숙명여자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문학 시간이었다. 하품이 비어져 나오던 어느 오후,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다. 졸음과 권태가 절정에 이른 그 순간에 나는 그 시를 보았고, 또 그를 만났다. 고교 첫 해의 담임선생님께서서는 빨간 인(人)자 가득하던 내 출석부를 어떻게든 깨끗하게 비워보시려 무던히도 애쓰셨다. 뒤늦게 찾아온 태풍 같던 사춘기에 동조해, 방황기의 절정을 보내던 나로서는 영 달갑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런 노력의 결실로 어쨌든 나는 새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

입학하고 그 후 1년간은 정말 내 삶에서 너무나 위태로웠던 나날이었다. 절친한 친구의 죽음과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수군거림. 게다가 어머니의 건강악화... 이 모든 것들로 나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갈등했었다. 삶을 살기는 얼마나 살았다고 밀려드는 회의감과 목적의식 없이 말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참 평안한 일 없는 날들이었다. 그렇게 새 학년에 올라서는 힘들어도 돌이 기대어 잘 살아보자는 애원어린 어머니의 부탁에, 억지로 학교를 다니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 몸이 머무르고는 있었다고 해도 갈길 없는 내 마음이 쉽게 안정을 찾을 리가 있을까. 그냥 단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을 뿐이었다. 나조차 언제 또 다시 급격한 태풍이 불어 닥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 그저 남들이나 휘말려 다치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점점 더워지던 그 2학년 늦봄에, 내 마음은 이상하게 추웠다. 얼굴로는 웃으며 애써 마음을 다잡은 듯이 굴었지만 속에는 쉽게 잠잠하지 못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다. 현재를 거부하며 나는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내 기억은 편안했던 옛날 그때를 추억하며 그리워했다. 그냥 내 몸이 있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 따위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해 그 속의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썼다. 그런 내 몸의 유리된 정신을 현실로 끌어온 계기는 무척이나 더운 그날의 아이들의 책장 넘기는 소리였다. 나에게 또 다른 절정을 가져다 줄, 시 한편을 만나게 된 그날이었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대한민국 학생, 아니 국민이라면 많이들 아실 이 시는 이육사 시인의 민족시이다. 일제 치하, 숨 막힐 듯 고립되어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이 시에는 너무나 잘 나타나있다. 시를 읽을 당시에는 시인이 누구인지 무슨 상황이었는지 나는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저 시가, 그 시구의 내용이 너무나 좋았고 눈물겨웠다. 아이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던 그 어느 날 오후, 나는 맨 뒷자리 구석에 앉아서는 옆드려 소리죽여 울었다. 갑작스럽게 북받쳐 오르는 눈물의 정체를 그 당시 나는 알지 못했다. 그냥 서러워서, 가슴 아파서 흐르는 눈물을 내 버려 두었다. 선생님의 충고나 어머니의 간절한 애원조에 감동은커녕 머리로도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우스웠지만 단지 시 한편에 울고 있었다. 그때 나에게 있어서 교과서 속 이 육사란 사람은 옛날의 사람도 시험에 나올 인물도 그 누구도 아니었다. 그냥 그 사람은 나 처럼 나와 같이 힘들고 고뇌에 찬, 그런 사람이었다.

나를 유일하게 이해할 것만 같은 사람이었다. 이상하게, 정말로 이상하게 그 시가 나를 위해 쓰인 듯한 기분, 나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내 힘든 나날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할지 모르는 그 사람의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갈등, 승화. 나와는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힘겨운 나날을 겪으면서 이겨냈다는 점, 이겨내려 한다는 점이었다. 맨 마지막 어쩌면 나약해빠진 무능한 내 모습을 꾸짖는지도 모를 한마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어떻게 그 외로움, 구름조차 함께 하지 않는 출디추운 고독 속에서 그가 무지개라는 것을 떠올렸는지 모르겠다. 하늘에 펼쳐지는 약속의 상징-그 요요함, 그 아름다움은 고통스런 그것과는 다소 먼 거리감을 느낄 만한 것이었으니까. 그만큼 아니, 오히려 더욱더 나는 그가 존경스러웠다. 또 그리고 내 행동이 얼마나 한심해빠진 작태였는지도, 우스운 변명거리에 불과한지도 뒤늦게야 깨달았다. 그 추운 고독 속에서도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빛나는 무지개를 피워 내려하는 저 사람과 다르게 나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 내 고통이 단순한 자작거리, 어쩌면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낀 순간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미 시간은 흘러서 충분히 내 감정을 추스려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나는 현실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고개를 들지 않고 있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 모두가 언제나 힘든 시련에 맞닥뜨리지만 그 와중에 극복함에도 나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회피하기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그래서 나는 꽃피우지 못한-나의 삶에 “무지개란 없다”며 벌써부터 결론지어 버렸다는 것을 느꼈다. 이후로 나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권태를 차마 느낄 새도 없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작은 교과서 한 권에 담긴 그 소소한 지혜와 깨달음이 나를 이끌었다. 우리의 교과서를 보면, 그 속에는 정말 말로 하지 못할, 무궁무진한 지혜가 숨겨져 있다. 모르고 지나치는 순간이 아마 대부분이겠지만, 나는 딱 한 순간을 만났다. 그 짧은 만남의 순간이 내게 준 감동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너무 힘들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이제는 자신 있게 권해줄 시 한편은 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아마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강철로 된 무지개를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이다. 

고등학교부 동상

나의 독특한 취미생활



정 소 정

서울 효문고등학교
2학년

얼마 전에 어느 유명 연예인이 취미가 수학 정석 문제풀기라고 말하며 화제가 되었다. 그 말이 사실일까 의심을 품는 친구들도 있지만 난 그 말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취미는 그야말로 '독특'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독특한 취미를 가진 사람 중 하나이다. 나의 취미는 교과서를 읽는 것이다. 내가 처음 이 취미를 갖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이다.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국어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자유 독서 시간을 주셨다. 그런데 나는 깜빡하고 읽을 책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교과서 뒷부분을 읽게 되었다.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읽었는데, 읽다보니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았다. 수업시간에 진도를 나갈 때는 그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교과서 내용이 이렇게 재미있고 좋은 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마음 편하게 교과서를 읽으니 그 어떤 책보다 좋은 책이 교과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교과서 읽기라는 조금은 독특한 취미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읽은 교과서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교과서는 미술 교과서였다. 미술 교과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그 안에는 문학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으며, 우리들의 삶이 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 관심을 끈 부분은 <동서양의 자연표현>이었다. <동서양의 자연표현>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풍경화를 비교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동양화의 새로운 매력을 알게 된 것이다. 색감이 적은듯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에는 열거 표현되어 있어 약간은 단조롭지만 한편으로는 장엄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동양화는 마치 진하게 우려낸 커피 같은 깊은 아름다움이 있었다. 산을 그리면 정말 그 산에서 신선이 살 것만 같고, 물을 그리면 뱃사공이 유유자적하게 배를 타고 거닐 것만 같은 분위기가 보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특히 미술 교과서 속에서 만난 정선은 그야말로 천재였다. 그의 '금강전도'는 산을 옆에서 보는 관점에서 그린 일반적인 산수화들과 달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관점으로 그렸다는 점이 독특했는데, 빛바랜 누린 종이가 산의 분위기를 더 살려주었다. 또한 눈 덮인 산봉우리를 거칠고 날카롭게 표현함으로써 차갑고 매서운 한 겨울의 추위가 그대로 느껴졌다. 그의 또 다른 작품 '산수도'는 먹의 검은색 이외의 다른 색은 거의 쓰지 않았지만, 다양한 붓 터치와 먹의 농도 조절을 통해 평화로운 산의 분위기와 나무의 울창함을 잘 표현하였다. 그동안 나는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색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정선의 풍경

화를 보고는 다양한 색으로만 아름답고 훌륭한 풍경화를 그릴 수 있다는 나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동양화와 서양화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가릴 수는 없다. 다만 동양이 자연 합일의 정신으로 자연에 깃들어 있는 정취와 기운, 생명의 존엄성을 작품으로 표현하였다면, 서양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각각 존재한다는 사고를 중심으로 자연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시각에서 자연을 바라보고 분석하였다.

미술교과서에서 만난 또 한명의 천재는 김홍도이다. 일상을 표현한 작품으로는 김홍도의 그림을 빼놓을 수 없다. 역동적인 모습과 표정을 그대로 화폭에 옮긴 김홍도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소소하지만 일상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의 감정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한적한 농가 앞뜰에서 고양이가 병아리를 물고 달아나자 주인이 곰방대를 들고 소리 지르며 쫓아내는 모습을 담은 김홍도의 ‘파적도’를 비롯하여 ‘씨름’, ‘무동’ 등……. 그의 작품은 어느 하나 얌전하고 조용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조선에 김홍도가 있다면 영국에는 조지 클라우슨이 있다. 조지 클라우슨의 ‘봄날 아침, 하비스톡 언덕’은 보자마자 꼭 한번 캔버스에 직접 따라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작품이었다. 그림의 전체적인 부드러운 분위기와 은은한 색감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도도하게 걸어가는 숙녀와 그 옆을 바짝 쫓는 부유해 보이는 어린아이의 모습도 인상 깊었지만, 그 뒤로 보이는 공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회계층마다 행동과 옷차림이 다르다는 사회적 모습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집은 이제 죽는다. 그러나 국가는 영원하리라.”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태양왕 루이14세! 미술교과서 속에서 만난 루이14세는 입은 옷, 들고 있는 지팡이, 머리 모양, 신발, 검 등 어느 하나도 소홀하게 그려진 것이 없었다. 반짝이는 지팡이와 검, 망토, 그리고 최대한 풍성하게 그려진 루이14세의 초상을 보면서 그림을 뚫고 뿜어져 나오는듯한 그의 힘과 권력을 느낄 수 있었다.

미술교과서를 만나는 시간, 미술교과서는 미술은 우리와 함께 살아왔다고, 미술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나에게 말한다. 미술교과서와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나는 생활 속에서 미적 감각을 찾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달팽이 조형반’이라는 학교 자율 클럽에서 학교의 미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미술교과서를 통해 나의 삶은 많이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졌다. 또한 미술교과서를 통해서 미술은 우리 삶에서 배제하려 해도 배제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꼭 미술관에 가야한다고, 예술이란 무엇인가 좀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미술교과서 안에 미술관이 있다고, 이 작은 미술교과서 안에 작은 예술이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공부하다 지치고 힘들 때면 미술교과서를 펼치고 그 안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생생한 예술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휴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교과용도서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 연수 안내]

우리 재단에서는 전국 초·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대상으로 여름·겨울방학 중에 교과용도서 개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수 분야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과정 소개

- 과정명 : 교과용도서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전문성 향상 과정)
 -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년도 특수 분야 연수 기관 지정(서울교육 2013-462)
- 연수종별 : 직무연수
- 연수 대상 : 전국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 연수 시간 : 30시간(인정 학점 : 2학점)
 - ※ 최저 이수 기준 시간 : 24시간, 80% 이상 출석(성적 산출 안함)
- 교과과정 : 교과서 정책·제도와 법령, 개발 방법, 편집 및 인쇄 등

□ 기간 :

구 분	기 간	시 간	인 원	신청 마감
제 1 기	2013. 7. 29 ~ 8. 2	10:00~17:00	40	연수 시작 20일 전까지
제 2 기	2013. 8. 5 ~ 8. 9	10:00~17:00	40	연수 시작 20일 전까지
제 3 기	2014. 1. 6 ~ 1. 10	10:00~17:00	40	연수 시작 20일 전까지
제 4 기	2014. 1. 13 ~ 1. 17	10:00~17:00	40	연수 시작 20일 전까지

□ 신청 방법

- 직무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2-2651-1982)로 접수
- 연수비 납부
 - 연수비 : 6만원
 - 납부 방법 : 해당 과정 신청 마감일까지 지정 계좌 입금
(신한 140-009-109202, 예금주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선종근)
 - ※ 연수비 환불조건 : 연수 시작 3일전까지 연수취소(포기) 신청서 제출한 자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제 1 회 교과서 모범 단원 개발 공모

- 내가 배우고 싶은 교과서, 내가 가르치고 싶은 교과서 -

- 제1회 공모 주제 -

-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교과서
- 스토리텔링형 교과서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는 교육현장이 원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모습의 사례를 찾아서, 교과서 정책 및 교과서 개발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 및 일반인(초·중등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교과서 모범 단원 개발 공모를 실시합니다.

□ 공모 개요

- 주제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일부 교과와 관련한 교과서 한 단원(주제, 성취기준)을 자기주도학습형 또는 스토리텔링형의 내용 및 체제로 개발
 - 국어, 사회(역사, 도덕 포함), 수학, 과학, 기술·가정(실과), 영어
- 대상 : 전국 초·중등학교 교사 및 일반인(초·중등학교 학생 및 대학·대학원생 포함, 초등학생은 5학년 이상)
 - ※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현행 교과서 연구·집필자 및 현재의 교과서 발행사 편집자는 응모할 수 없음
- 부문 : 초등학교 교과서 부문(교사부, 일반부), 중등학교(중·고등학교) 교과서 부문(교사부, 일반부) 등 4부문으로 나누어 공모 진행
 - ※ 개인별 또는 팀별(5명 이내) 응모 가능
 - ※ 교사는 초·중·고등학생을 같은 팀원으로 하여 교사부로 응모할 수도 있음
- 작성방법
 - 내용 : 중단원(주제, 성취기준)을 기준으로 3~5차시 수업이 가능하도록 작성
 - ※ 단, 차시별 연계성이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개발된 교과서는 완결성을 지녀야 함
 - ※ 서책형 교과서를 기준으로 개발하되, 디지털 교과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예: 인터넷 주소, QR코드 등)
 - 형식 : 표지(학교급 및 학년, 교과목 명기, 인적사항 표기 절대 불가) + 본문(글, 사진, 삽화, 표, 그림 등)
 - ※ 저작권에 위배되는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 있음

－방향 :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작성 방향 〉

관 점	심 사 내 용	배점(비율)
1. 내용 구성의 창의성	－ 내용의 전개, 체제, 소재 및 제재 등이 참신한가?	35점(35%)
2. 공모 주제의 구현성	－ 공모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25점(25%)
3. 내용 구성의 완결성	－ 사용된 소재 및 제재는 타당하고 공정하며, 내용 요소 간에 위계와 체계가 있는가?	25점(25%)
4. 내용 구성의 가독성	－ 내용이 해당 학생 및 교사가 활용하기에 적합한가?	15점(15%)
계		100점(100%)

－활용 컴퓨터 프로그램 : 한글 또는 MS워드

－분량 : 20~40쪽

－색도 : 컬러(4도)

－지질 : 일반 복사지

－판형 : 제한 없음

－제본형태 : 좌철(양면 복사할 것)

－제출부수 : 인쇄본 3부 + CD 1개

－기타사항 : 참가신청서(600자 내외의 교과서 개발 취지문 포함) 및 저작권 준수 서약서 별도 작성 첨부(제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응모작에는 제목 및 본문만 포함되어야 하고 인적사항 기재는 절대 불가함)

○ 상격 및 부상(수상 인원 및 상격은 응모 결과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음)

단위 : 만원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초등학교 교과서	교사부	1편(400)	1편(200)	1편(100)	2편
	일반부	1편(400)	1편(200)	1편(100)	2편
중등학교 교과서	교사부	1편(400)	1편(200)	1편(100)	2편
	일반부	1편(400)	1편(200)	1편(100)	2편

－금상(교사부) : 교육부장관상

－금상(일반부), 은상, 동상, 장려상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상

※ 팀이 수상자로 결정될 경우, 상금은 팀원수대로 등분하여 개인별로 지급함

※ 입상자는 앞으로 교과서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출판사 등에 안내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3. 7. 22(월) ~ 8. 23(금)
 - 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우편 접수처 : (우) 137-80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47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공모 담당자 앞

□ 입상자 발표

- 입상예정작 발표 : 2013. 9. 16(월), 개별 통보 및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www.textbook.ac) 게재
- 표절 관련 이의신청 : 2013. 9. 16(월) ~ 9. 27(금)
- 입상작 확정 발표 : 2013. 9. 30(월)

□ 시상식

- 2013년 10월 초순(자세한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홈페이지 게재)

□ 유의사항

- 응모작은 국내외 미발표 작품으로서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입상작이 타 기관에서 입상된 작품이거나 유사 작품 또는 표절로 판명될 경우 입상을 취소함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우리 재단에 귀속됨
- 입상작은 우리 재단이 발행하는 '교과서연구' 및 별도 작품집에 수록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 담당자(02-6206-6362)에게 문의하기 바람

□ 후 원

교육부, (사)한국검인정교과서, (재)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한국교육과정학회

‘교과서 연구’ 후원제도 안내



□ 목 적

‘교과서 연구’의 재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후원제도를 도입하여 발행비용을 보전하고자 함

□ 개 요

- 회원제 도입을 통한 발행 후원금 모집
 - 기존 배포제는 유지하고, 추가 요청분에 대해서는 회원제 등급을 두어 배포
 - 일반, 연간, 단체 회원제를 두고 차등적 혜택안 마련

□ 후원 회원 종류

- 일반회원 : 매월 5천원 정액 계좌납부 “홈페이지(www.textbook.ac) 배너를 통해서도 후원 가능합니다
- 연간회원 : 매년 5만원 정액 일시 계좌납부
- 단체회원 : 매년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원 이상을 일시불로 계좌납부

□ 후원 회원 혜택

- 일반회원, 연간회원
 - 교과서 전문 학술지 ‘교과서 연구’ 제공 및 회원동정 안내
 - 재단 주관 학술행사 초대 및 간행 연구보고서 제공
- 단체회원
 - 교과서 전문 학술지 ‘교과서 연구’ 제공 및 회원동정 안내
 - 재단 주관 학술행사 초대 및 간행 연구보고서 제공
 - ‘교과서 연구’ 지 연간 광고 게재(광고제작비 불포함)
 - 해외 탐방시 우선권 제공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후원회원 가입서]

성명(한글)	* 기재필수	회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간회원 <input type="checkbox"/> 단체회원
생년월일	* 기재필수 (음 · 양)	주민등록번호	* 기재필수
직장명		집 전화	
E-Mail	* 기재필수	휴대전화	* 기재필수
주소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 * 기재필수		
회 비	CMS자동이체 납부 동의서 (일반회원일 경우에만 해당) * 홈페이지에서도 후원신청가능		
	출금은행	* 기재필수	계좌번호
	예금주	* 기재필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출금일	매월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인출금액
	일시불 납부(연간/단체회원일 경우)		
	입금은행	신한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입금금액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금주	(인) 또는 서명
-----	-----------	-----	-----------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직장명, 계좌번호, 가입정보
 2. 수집·이용 목적
본인 확인, 후원회비 회계관리, 웹진 등 정보매일 전송, 후원혜택 적용시, 서비스 안내전화, 우편물 발송, 설문조사, 메시지(SMS), 후원회원 신청 및 해지 기타 업무처리에 필요한 동의·철회 등 의사 확인, 민원처리
 3. 보유·이용 기간
후원회원 가입기간 동안 이용하고, 해지 후 6개월까지 보유·이용(재가입 시 사용)
- * 본인은 개인정보 및 후원회 가입 관련정보를 귀기관이 위와 같이 수집·이용함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이에 따라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주의: 신청접수 후부터 해지 신청 전까지 결제금액이 청구됩니다.)

- * 후원 신청은 <http://www.textbook.ac>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 절취하여 팩스 전송도 가능합니다. (FAX : 02-2651-1982)
-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수신주소 : editor@textbook.ac)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국정 교과서

● 온라인 구입

－ 각 과목의 발행사를 확인하여 해당 발행사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공업계	2007 개정	건축설계제도, 금속제조, 기계일반, 기계제도, 역학, 재료가공, 측량, 토목재료·시공, 토목제도 및 설계, 건축계획일반, 건축구조, 공업영어, 구조세라믹, 기계공학법, 기계기초공학, 기능성세라믹, 기계공학법, 기계기초공학, 기능성세라믹, 디자인제도, 디지털논리회로, 방송시스템, 방적방사, 사진·전자제판, 선박이론, 선박제도, 섬유재료, 세라믹디자인, 인쇄·사진재료, 주조, 평판인쇄, 공작기계·II, 기계설계, 로봇기초, 발효공업, 전자기계이론, 전자기계회로, 인쇄일반, 만화애니메이션기초, 만화창작, 영화·방송제작, 자동차·건설기계, 자동차기관, 자동차채시, 촬영·조영, 항공기기체, 항공기일반, 항공기전자장치, 수질관리, 컴퓨터게임그래픽, 컴퓨터게임기획, 컴퓨터게임프로그램, 환경공업일반, 공업화학, 전기기기, 전기일반, 전기회로, 전력설비, 전자회로, 통신일반 및 시스템, 공예, 디자인일반, 색채관리, 조형	(주)천재교육
농업계	2007 개정	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 농업정보관리, 재배 및 작물생산기술, 숲과인간, 원예및생활원예, 동물자원, 농업과물, 농업관광, 식품과학, 생물공학기초, 환경보전, 조경, 농산물유통	
상업계	2007 개정	경영과법및국제화와기업경영, 금융과생활	
외국어계	2007 개정	심화영어, 영어청해, 영어회화, 영어독해, 영어권문화, 기초독일어, 독일어청해, 독일어회화 I, 독일어청해, 독일어회화, 독일어독해, 독일어권문화, 기초프랑스어, 프랑스어청해, 프랑스어회화 I, 프랑스어독해, 프랑스어권문화, 기초스페인어, 스페인어청해, 스페인어회화, 스페인어독해, 스페인어권문화, 기초중국어, 중국어청해, 중국어회화, 중국어독해, 중국문화, 기초일본어, 일본어청해, 일본어회화, 일본어독해, 일본문화, 기초러시아어, 러시아어청해, 러시아어회화, 러시아어독해, 러시아어문화, 기초아랍어, 아랍어청해, 아랍어회화, 아랍어독해, 아랍문화 I, 심화영어보완교재, 영어청해보완교재, 기초독일어보완교재, 독일어청해보완교재, 기초프랑스어보완교재, 프랑스어청해보완교재, 기초스페인어보완교재, 스페인어청해보완교재, 기초중국어보완교재, 중국어청해보완교재, 기초일본어보완교재, 일본어청해보완교재, 기초러시아어보완교재, 러시아어청해보완교재, 기초아랍어보완교재, 아랍어청해보완교재	(주)미래엔
체육계	2007 개정	스포츠개론, 스포츠경기과학, 체육과진로탐구, 육상운동, 체조운동	
수산 해운계	2007 개정	수산물유통, 수산생물, 수산일반, 수산해운정보처리, 열기관, 잠수기술, 항만물류일반, 해사일반, 해양레저관광, 해양일반, 해양정보관리, 해양환경및해양오염	
가사 실업계	2007 개정	간호의기초 및 보건간호, 공중보건, 관광영어, 관광일반, 급식관리, 기초복지서비스, 식품과영양, 영유아교육원리, 의복재료관리, 인간발달, 자수와편물, 주거, 패션디자인, 한국조리	(주)지학사
특수학교	2007 개정	* 60책 (초등 저시력 확대교과서 제외) 지도서 * 45책	(주)미래엔
	2009 개정	* 47책 (초등 저시력 확대교과서 제외) 지도서 * 71책	

● 방문 구입

－ (주)미래엔 직매장 : 지하철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 직진 도보 5분 소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1-10 (주)미래엔빌딩 1층)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만 판매) ARS : 02-3475-4097

□검정(전과목)·인정(일부과목: 1,064책)

● 온라인 구입

－ (사)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 “www.ktbook.com” 또는 “(사)한국검정교과서”로 검색하여 ‘교과서구입’ 메뉴에서 조회 및 판매되는 검정교과서(전과목) 및 인정교과서(일부과목:1,064책)는 온라인 주문하시고, 나머지 인정교과서는 발행 출판사로 구입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검정교과서 및 일부 인정교과서(1,064책) 판매)

● 방문 구입

－ (사)한국검정교과서 직매장
－ 교과서 판매서점 : 각 지역별 교과서 지정 판매점

● 단체구입

－ (사)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 “www.ktbook.com” ‘교과서구입’ 메뉴의 ‘단체주문’ 항목을 참고

2013학년도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교과서별 구입처

학교급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발행사	전화번호
초등학교	2009 개정	• 국어 1~2 학년군 (국어, 국어활동, 국어 교사용지도서)	(주)미래엔 www.mirae-n.com	080-730-3800
		• 수학 1~2 학년군 (수학, 수학익힘책, 수학 교사용지도서)	(주)천재교육 www.chunjae.co.kr	1577-0902
		• 통합교과 (학교1,봄1,가죽1,여름1,나2,봄2,가죽2,여름2) • 통합교과 지도서	(주)지학사 www.jihak.co.kr	02-330-5302
	2007 개정	• 읽기, 듣기·말하기·쓰기, 국어지도자료 3,4,5,6 • 과학, 실험관찰, 과학지도자료 3, 4, 5, 6 • 음악 3, 4, 5, 6 음악 지도자료 • 미술 3~4, 5~6 미술 교사용지도서 • 체육 3, 4, 5, 6 체육 교사용지도서	(주)미래엔	02-3475-3800
		• 도덕 3, 4, 5, 6 • 생활의 길잡이 3, 4, 5, 6 • 도덕 교사용지도서수학 3, 4, 5, 6 • 수학익힘책 3, 4, 5, 6 • 수학교사용지도서 • 사회 3, 4, 5, 6 • 사회과부도 4~6 • 사회과탐구 5, 6 • 사회 교사용지도서	(주)천재교육	1577-0902
중학교	2007 개정	• 생활독일어, 생활프랑스어, 생활러시아어, • 생활아랍어 (각 언어 보완교재)	(주)천재교육	1577-0902
고등학교 (보통교과)	2007 개정	• 러시아어 I, 러시아어 I 보완교재 • 아랍어 I, 아랍어 I 보완교재	(주)천재교육	1577-0902
		• 안전과건강	재향군인회 www.veterans.or.kr	02-417-0641
검정	초등 중등 고등	• 위 교과서 이외의 교과서 * 검정교과서 전체 * 인정교과서 일부(1,064책)	한국검정교과서 www.ktbook.com	02-3663-5409~12

□ 서울지역 직매장

(사)한국검정교과서 직매장 - 검정교과서 전문매장 (국·인정일부)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1-12 다옥빌딩 별관 2층 (☎ 02-3663-5409~12)
- 지하철 : 2호선 당산역 1번, 9호선 당산역 13번 출구에서 롯데리아, 스타벅스 사이 골목 30m 지점 (동양생명 2층)

(주)미래엔 직매장 - 초등학교용 국정교과서만을 판매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1-10 (주)미래엔빌딩 1층 (☎ 02-3475-4097)
- 지하철 :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에서 직진 도보 5분소요

각 지역별 교과서 지정 판매점

지 역 별		상 호	전화번호	판매 도서	지 역 별		상 호	전화번호	판매 도서
서울	종로구	(주)교보문고	02- 397-3551~2	검정, 국정	경기	수원	(주)경기사적	031- 248-6300	검정, 국정
	서초구	교보문고(강남점)	02- 530-0313	국정		의정부	송문당	031- 846-2666	검정, 국정
	송파구	교보문고(잠실점)	02-2140-8821	국정		안산	대동서책주)	031- 406-6666	검정, 국정
	종로구	(주)영풍문고	02- 399-5625	검정, 국정		부천	(주)경인문고	032- 613-2197	검정, 국정
	서초구	영풍문고(강남점)	02- 595-0928	국정		수원	동남서적	031- 251-3929	검정
	성북구	영풍문고(미아점)	02-217-2880	국정		부천	영글북스	032- 623-1600	국정
	성동구	경일사	02-2296-7671	검정		성남	리브로분당점	031- 701-2800	국정
	중구	(주)리브로(을지점)	070-4006-4317	검정, 국정		성남	종원문고	031- 736-2600	국정
	동대문구	성현문고	02- 967-3838	검정		성남	베스트북	070-7570-5172	국정
	영등포구	(주)지에스북	02-2671-5551	검정, 국정		구리	동원서적	031- 563-4621	검정, 국정
	관악구	광장서적	02- 876-9081	검정, 국정		일산	정글북	031- 922-5000	검정, 국정
	광진구	프라임문고	02-3424-1450	국정		광명	일지서적	02-2613-2744	국정
	강남구	반디앤루니스	02-6002-6021	검정, 국정		시흥	한가람문고	031- 404-8664	국정
	노원구	그랜드문고	02- 938-1065	국정		평택	평택문고	031- 651-9204	검정, 국정
	강동구	예림문고	02- 477-8600	국정		안양	교보문고(안양점)	031- 466-3501	국정
	동작구	골드북	02- 841-7100	국정		용인	수지문고	031- 265-4031	국정
용산구	(주)대교문고	02-2012-3544	검정, 국정	김포	열린문고	031- 982-2007	국정		
노원구	(주)노원문고(중계점)	02-2091-0633	검정, 국정	화성	삼성문고	031-8003-3838	국정		
도봉구	예일문고	02- 995-5206	국정	성남	공손서점	031- 703-7279	국정		
강동구	대성문고	02- 427-8190	국정	강원	춘천	교학사	033- 244-0044	검정, 국정	
부산	부산진구	영광도서	051- 816-9500	검정, 국정	충북	청주	유신상사	043- 252-5945	검정, 국정
	중구	문우당서림	051- 241-5555	국정	충북	충주	이학사	043- 844-3494	검정, 국정
	사하구	문학서점	051- 204-0465	검정, 국정		충남	천안	열린문고	041- 573-0827
	사하구	예림서적	051- 203-3383	검정	천안		국민도서	041- 556-0003	국정
	중구	남포문고	051- 245-8911	검정	전북	전주	홍지서림	063- 288-5311	검정, 국정
	사상구	태학도서	051- 313-1718	국정		전남	순천	종양서림	061- 723-9902
	부산진구	교보문고(부산점)	051- 806-3501	국정	목포		책사랑문고	061- 279-2504	검정, 국정
해운대구	영재서적	051- 703-0708	국정	경북	포항	학원사	054- 249-3396	검정, 국정	
대구	수성구	(주)세원출판유통(범어점)	053- 423-0517		검정, 국정	경주	현대서점	054- 742-4885	국정
	중구	영풍문고(대구역점)	053- 428-6700		국정	경산	경산서적	053- 813-2724	국정
인천	중구	(주)대한서림	032- 764-7337	검정, 국정	경남	구미	춘양당서점	054- 455-6669	국정
	부평구	부평문고	032- 529-0077	국정		경남	창원	그랜드문고	055- 283-2848
광주	동구	종합도서	062- 222-4354	검정, 국정			창원	창원서적	055- 282-1544
	대전	중구	(주)계룡문고	042- 222-4600	검정, 국정		진주	대양서적	055- 741-2835
서구		세이북스	042- 483-4441	국정	김해	근비도서	055- 321-1387	국정	
울산	남구	민중서림	052- 275-0313	국정	제주	제주	탐라도서(주)	064- 755-3335	검정
						제주	현대서점	064- 748-1177	국정

교과서 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❶ 참여 분야

<현장교육>, <논단>, <단상>,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 <독자의 소리>

❷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활동.

-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보내실 곳 : editor@textbook.ac

문의전화

02-6206-6357 「교과서연구」 담당자 유순기



◎ 교과서 정보관 이용 안내

| 운영 개요 |

- 우리나라 교과서의 수집 및 보존
- 외국 교과서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편수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교과서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 교과서 관련 자료의 DB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교과서 관련 연구 단체 협력 체제 구축
- 교과서 및 교육과정 정보 제공
- 교과서 비교 전시회 개최 등

| 보유 자료 |

구분	국내	국외	계
교과용 도서	39,400	8,379	47,779
일반 자료	2,988	—	2,988
계	42,388	8,379	50,767

| 열람 시간 |

평일 | 오전 9시~ 오후 5시

점심시간 | 12:00~13:00 *토요일,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02-2651-1953
www.textbook.ac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6-9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빌딩 4F

- 지하철 7호선 노원역 3번 출구
- 버스 : 3412, 462, 4312, 642, 9408번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호두가 1등 이 되는 트레킹

천재교육이 앞장서겠습니다.

“엄마, 독도에 코끼리바위가 살아요.
코끼리바위가 괭이갈매기를 매일 업어줘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 독도엔 코끼리바위가 있습니다.

이제 독도도 교과서로 배웁니다.

우리의 독도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하니까요.

독도 사랑도, 독도 공부도 우리가 1등입니다.

 천재교육



1948년

교과서 사업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었습니다.

2013년

교육, 출판 및 국내외 인쇄사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교육출판문화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미래엔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본부

검정교과서, 참고서, 파사준술



교과서사업본부

국정교과서, 인정교과서



출판사업본부

아이세움, 아이즐, 휴이념, 북폴리오, 와이즈베리



인쇄사업본부

국내·해외인쇄, 디지털인쇄



계열사

전북도시가스, 서해도시가스, 현대문학, 미래엔 에듀케어, 미래엔 인천에너지, 부흥개발
목정문화재단, 목정장학회